

광진

1963年 10月 25日 印刷
1963年 11月 1日 發行

11

第 80 號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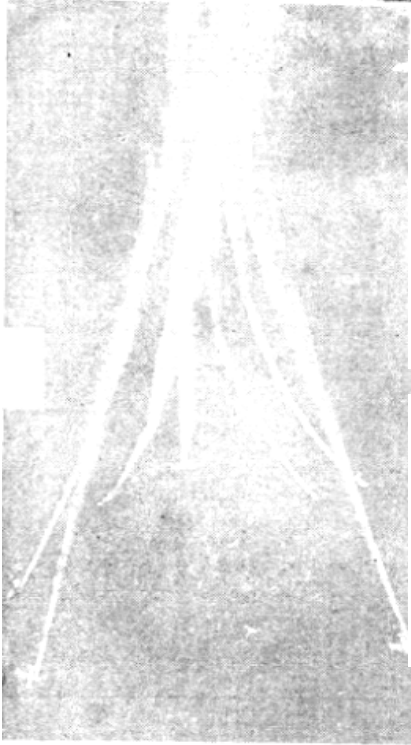


공군 15주년 맞아 한강상공서「에어·쇼」성거(盛舉)

건군 제1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에어·쇼」가 10월 2일 수십만의 시민이 참관한 가운데 한강 상공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상-장(張)참모총장이 박(朴)의장을 안내하여 사열대로 걸어가고 있다.>

<좌-제트편대의 곡예비행>



유공장병(有功將兵)에 서훈(敍勳)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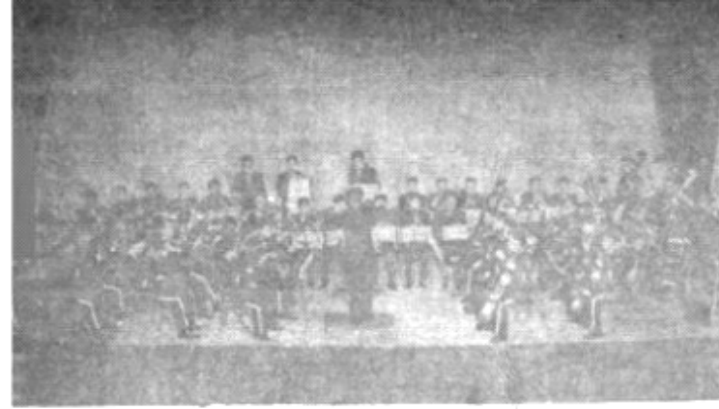
건군 제15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군 발전에 공헌한 유공장병에게 10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근무공로훈장과 방위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은 박(朴)의장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김(金)작전참모부장>



**공군태평양지구
사령관「스마-
트」대장 내한**

태평양지구 미
공군 사령관「
스마-트」대장
은 사령관 취
임이 예하부대
초도순시차 지
난 6일 특별기
편으로 내한하
였다.



공군교향악단 일행 60명이
10월 28일부터 1주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도
시에서 순회연주회를 베풀
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갈채
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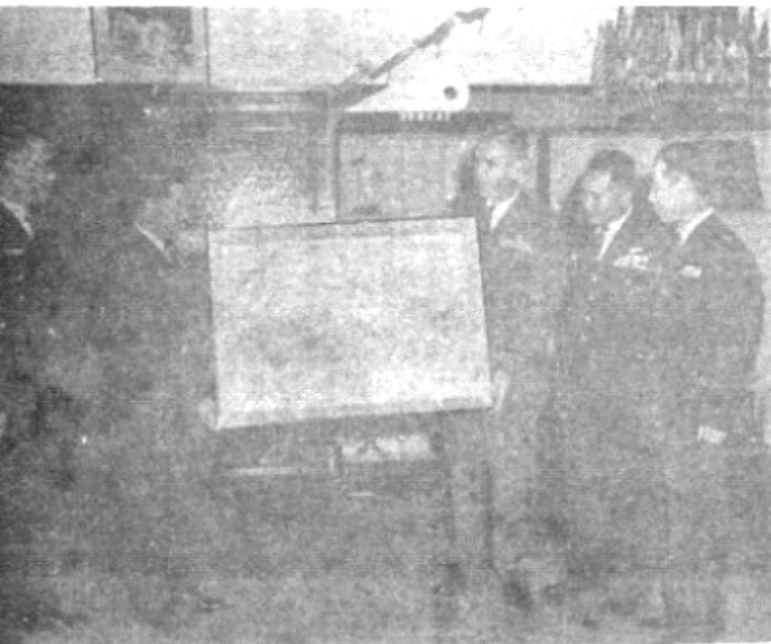
**공사(空士)우승, 3군사
체육전(軍士體育典)서**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가 9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거행
되었는데 공군사관학
교가 해사와 동을 우승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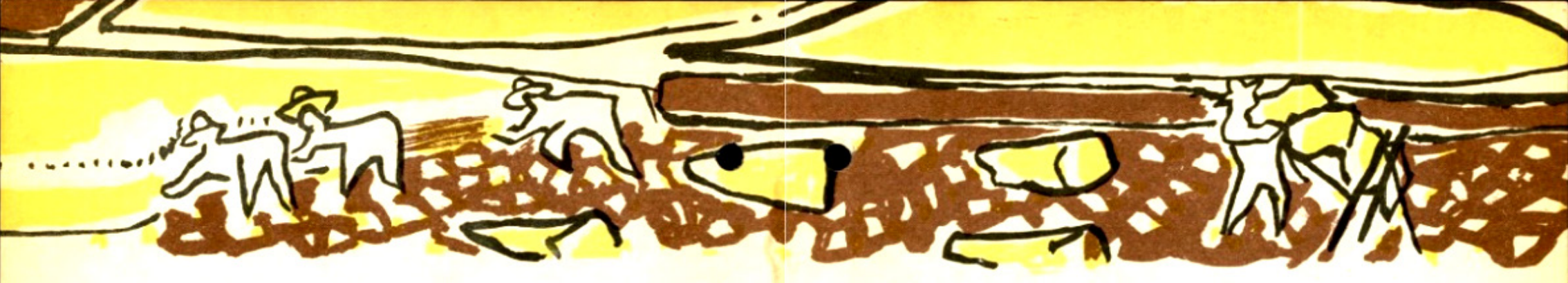
**미공군의무감(美空
軍醫務監)「니-스」장
군내한**

미공군의 의무감「니-
스」소장이 10월 18
일 특별기편으로 내
한했다.
<장(張)총장이「니-
스」장군에게 그림 한
폭을 선사하고 있다.>



공군미술전시회성황

제2회 공군미술전시회가
정훈감실주최로 9월 24일
부터 1주일간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개최되어 큰 성
황을 이루었다.



공군 제80호 차례

표지 > 민철홍
차례컷

◇ 화보(畫報) ····· 표지 2 · 3면

제3공화국과 군인의 자세 ····· 박정배(朴廷培) 8
국회의원 선거법 개요(概要) ····· 김인환(金仁煥) 15

특집 사기양양(士氣昂揚)을 위하여

사기향상(士氣向上)을 위한 제문제(諸問題) ····· 정해영(鄭海瑛) 21
군사기(軍士氣)와 건강 ····· 계원철(桂元喆) 28
레크리에이션과 사기(士氣) ····· 심현(沈玹) 34
일선전투조종사(一線戰闘操縱士)의 사기실태(士氣實態) ····· 마종인(馬鍾仁) 41
사기양양(士氣昂揚)을 위한 나의 제언(提言) ····· 박재호(朴在浩) 48
······ 유치곤(兪致坤) 51
63년도 상반기 범칙 및 군기위반분석(軍紀違反分析) ····· 이인영(李仁榮) 56
군대와 계급(階級) ····· 신오현(申午鉉) 64
◇ 소련을 추리한다 ····· 신일찬 99
◇ 나의 반공시(反共詩) ····· 박기원(朴琦遠) 126

◇ 이러한 반공(反共)노래가 있었다 ····· 하중희 130
자유의 품으로 <북한동포(北韓同胞)는 나를 살렸다> (완) ····· 이준수 118

민주주의 원리 ⑥ ····· 이극찬(李克燦) 86

공산주의 비판 ⑥ ····· 김창순(金昌順) 93

익명 <제4회> ····· 임어당(林語堂) 저 하정옥(河正玉) 역 145

미래의 생활

미래의 건축(建築) ····· 박학재 103

미래의 동력(動力) ····· 이종수 109

미래의 의복(衣服) ····· 김운숙 113

우리의 적(敵)을 알자

5년간의 이야기 ····· 심수명 133

수필 여자(女)가 사랑할 때 ····· 김영태 135

창공(蒼空)의 편상(片想) ····· 김옥남 138

시 트란지스터 ····· 오윤환 141

친구야 ····· 이창운 143

산(山) ····· 김석철 134

제3제국의 흥망(興亡) ····· 샐러 158

내부(內部)의 적(敵) (상) ····· 유기영 151

◇ 후기 ····· 164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 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 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3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金榮浩)
 인 쇄 처 · 공군교재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제3공화국(共和國)과 군인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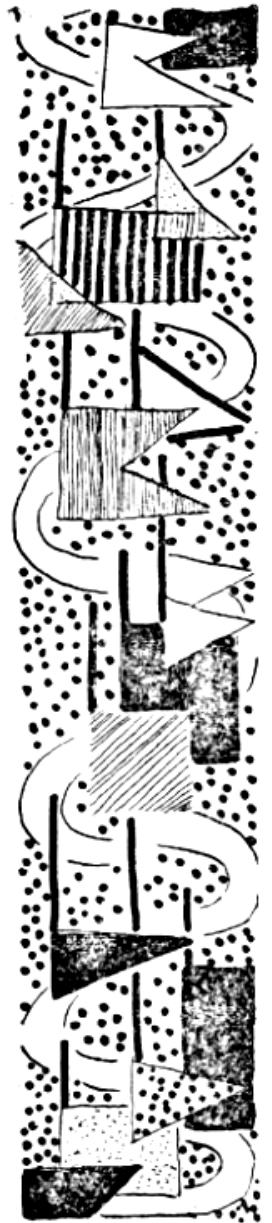
박정배(朴廷培)
 <재건국민운동 중앙교육원장 서리(署理)>

제3의 운명

언제 누가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아무 별다른 생각 없이「제3공화국(共和國)」이라는 현실적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광복 18년에 두 차례 혁명을 치루고 세 번째 고쳐 만든 나라를 가리켜 제3공화국이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다 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다스런 수식어들을 그 첫머리에 붙이고 있다.

아무리 화려한 형식을 갖추어 새로 다듬는 나라를 말하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반만년의 역사를 엮었다는 우리들에겐



너무나 어기찬 시련과 또 슬픔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해의 달력을 펴놓고 보라. 거기 얼마나 많은 기념일들이 표시되어 있는가 말이다.

〈3·1일운동〉, 〈4·19〉, 〈5·16〉, 〈6·25〉, 〈8·10만세〉, 〈8·15〉, 〈9·28〉, 〈개천절〉… 분노, 반항, 쫓겨, 치욕, 환희, 이러한 감정들이 엇갈린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 때마다 새 출발, 새 결심, 새 희망을 다짐하였으며 그리하여 이제 또다시 제1, 제2의 충계를 올라와 제3공화국이 우리의 문패가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엄숙한 자세로 돌아왔다.

실로 세계가 보고 듣는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 그려 부친 표어 몇 마디로 간단히 지난날의 불행에 대하여 자학적(自虐的)인 변명이나 복수를 다 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36년 동안 짓밟힌 식민지 노예의 사슬에서 풀려나던 그날도 그러하였고 적색제국주의(赤色帝國主義)의 침략 앞에서 우리의 재산과 혈족의 생명을 빼앗기고 마침내 남의 나라 도움으로 시산혈해(屍山血海)로 뒤덮인 고향을 다시 찾아 통곡하던 그때도 그러하였고 십여년간 민주주의라는 허울아래서 민생의 기본권을 고스란히 좀 먹히다 못해 맨주먹의 어린 생명들이 총 뿌리 앞에 쓰러져 그로 하여 있었던 제2공화국 그날에도 여느 때 못지 않는 구호와 찬란한 표현들이 그러하였었기 때문이다.

이제 제3공화국……그것은 살벌한 적침(敵侵)의 위협과 국제간의 묵비적(默秘的) 불안을 무릅쓰고 일어난 불행하였던 우리들의 회오(悔悟)와 결심과 설계여야 할 것이지만 한갓 정변적(政變的) 구호로 수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그것은 동양적 사고에서 완전수(完全數)요 또한 종말을 뜻하는 수치기도 하다. 그래서 「마지막 혁명」이라고 강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들의 기력과 양심 또한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류는 보다 더 큰 가치의 창조를 위하여 혁명이란 수단을 가져 왔다.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로서 발전한 유례(類例)를 찾을 수 없었기 그렇다고 혁명을 자주 치른 나라를 두고 보다 더 발전한 현상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혁명은 결정적 수단임과 동시에 그것은 본질적 근원적인 것을 다루어 놓아야 할 책임과 또 의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혁명은 작일(昨日)에의 복수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자기수정(自己修正)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결정적 수단과 자기의 현실적 생활을 직결시킬 수 있는 본질적 자기 성찰은 국민적, 민족적, 인간적,

자기에 입각해야 할 것이지만 결코 신분적, 파벌적(派閥的), 정견적(政見的), 편견에 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을 맞는 오늘날 군인만이 유독 한 자세가 마련되거나 강조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자기 위치에서」 하나의 대관적(大觀的) 의지로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의 가치는 해결의 의의를 가질 때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처음은 중개(仲介)일 수도 있다.

두 번 째는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셋째는 자기의 의지와 판단을 토대로 한다. 거기에는 뉘우침도 회피도 전가도 있을 수 없다. 처음에는 해방군에 의존하였고 다음에는 정당(政黨) 정객(政客)을 믿었으나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 여기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을 때……다시 말하자면 제4의 기능을 양조(釀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는 또 한 번 불운의 역경을 반추(反芻)할 것이요 이제 희망이란 한갓 우연에 기대는 도리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조국을 지키는 자

「네게 무엇이 필요 하나」

하고 묻는 아버지 앞에서 제일 작은 놈은 과자를 달라고 했고, 다음 놈은 연필, 다음은 책, 또 그 다음은 신발, 마지막으로 제일 큰 놈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 하오」

아버지는 그 아내에게 물었다.

「저는 당신이 계시면 되요」

은 국민을 한자리에 모으고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본다면 모두가 각기 다른 요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만일 군인인 당신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나는 권력이 있어야 하오」

애국 하겠다는 거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답변일 것이다.

「나는 외환(外換)이 필요 하오」……장사꾼

「나는 더 많은 봉급이」……셀러리맨

그러나 군인인 당신 말이다.

오늘날 후진국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실제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아내」같은 답변이 군인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안정된 나라가 필요 하오」그래야지만 그들이 꽃다운 목숨을 걸어놓고 외적과 더불어 싸울 수도 있고 또 죽음에의 보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정치적 불안과 민생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은 나라보다 먼저 이기적 사심(邪心)에 눈멀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우선 권력」

「우선 돈」

「우선 명성」

그런 것들이 한 나라의 국민 된 자가 할 일과 공지를 버리게 하여 마침내 나라는 주인을 잃게 되고 제 할일 다 못하는 자를 꾸짖을 수 있는, 죄 없는 자로서 돌을 든 군인이 곧잘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5·16혁명의 가능과 국민적 지지도 이와 같은 일반적 상황이 만든 불가피적인 것이라 해서 무방할 것이다. 먼저 나라가 있어야 한다. 나라 없는 권력—한 가지 살아있는 예증(例證)이 있다면 한제말(韓帝末)에 일본으로 불모 되어간 이은공(李根公)같은 이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권력은 그 명색에 있어서 일본의 황태자만 못지않은 것이었지만 그는 비운의 평생을 보내었다. 나라 없는 돈—그것은 확대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도 그러하거나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가를 생각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 오늘의 이스라엘을

재건했던가를 돌이켜 보아 알 일이다.

나라 없는 민족, 그러나 그 자존 때문에 몇 백만의 피가 나치스의 손으로 참살 당하였으며 또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보상되었는가 말이다.

나라를 재건하기까지 한사람의 나치스도 범할 수 없었고 또 벌을 대신하여 줄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권력자는 그 나라를 최후까지 지킨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무리 없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가장 고차원에 위치한 권력자이며 또 매국적(賣國的) 정치에 대한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제3공화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정당이 아니고 말 잘하는 정객도 아니다. 비록 싸우는 정치가 있고 못 미더운 경영이 있고 썩은 도의가 활개 치더라도 마지막 위기를 모면케 하는 조국을 지켜 순(殉)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다.

군인은 옛 사람들이 별선(別仙), 선인(善人)이라고 불렀다.

그 뜻은 무욕(無慾)의 고행자(苦行者)요 그가 선(善)을 이루기에 구별된 자리에서 일한다 함이다. 참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자, 조국을 지키는 자요, 그 힘을 가진 자며,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욕에 눈멀지 아니한 자이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는 당신 <조국>만 있으면 되요」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자랑스러운 입상(立像)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것 하나는 친화성이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동류적(同類的) 친화성은 제1차적인 것이다.

한하운(韓何雲)의 시에「문둥이끼리 만나면 반갑다」하는 어느 한 구절이 있듯이 사람은 제게 가까운 것부터 이해하게 되고 친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성향이며 이것이 확대되어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가진 고약한 병의 하나로서 가까운 것부터 이해하려 하지 않고 먼 것부터 친 하려는 경향은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국민 간의 분열을 조성하였고 또 사대근성(事大根性)이 되었으며 마침내 자기파열(自己破裂)이 지나쳐 자아상실이 아니면 자기멸시에까지 확대되어 나왔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멸시하고 군인이 군인을 천시하는 따위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는 터이다. 외국여행을 하고 돌아온 인사들의 입에서는 마치 천국이나 갔다 온 것처럼 말하는 버릇을 한결같이 배우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언동이나 심지어는 국민의 생활양식 전반에서 이국풍을 본 따고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한 일본이나 미국사람들은 무슨 우리에게 관하여 놀라운 사실을 말할 때라도 우선은 제나라나 제나라 사람들의 것을 첫째로 꼽아 놓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그리하여 한국은 한국 아닌 것으로 자꾸만 변모하여 가고 마침내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잃게 되었다. 미국식 일본식 서구식 이렇듯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부조리가 조화를 잃어 사뭇 혼란한 것은 느낌뿐만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새나라 제3공화국에 가장 앞서 할 일은 어찌되던 하나로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사람의 마음들이 한곳으로 얽혀 든든한 새살림의 바탕을 마련해야 하겠는데 그 밑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첫째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자랑스러운 것을 못 가진 연고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자랑스러운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국민에게 확대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자랑할 것을 잃고 또 잃었다.

지금 한국의 군인은 이토록 자랑을 못 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자랑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도루 찾는데 하나로서의 협동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자랑을 밑바탕 삼아야 하고 군인은 바로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순서는 지극히 간단하다. 이것은 국민에게 이해되는 군인이 되는 길이요, 이해되기 위해서는 가까워져야 하고 가까워지면 본능적 친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국민 안에 있으면서도 국민과의 거리를 멀리 느껴왔다. 그것은 군의 질서가 국민생활의 무질서를 방관하였고 국민의 희박한 애국심이 군의 의(意義)를 몰지각(沒知覺)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스스로를 천시한 군인들의 반성도 아울러 촉구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도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고귀한 사명감으로 스스로의 긍지를 과시하고 홀모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군을 국민은 친밀하게 대할 수가 없었던 사실 말이다. 한국을 지키는 것이 한국군인이요 그는 한국민족에 의하고 한국민족을 위할 진대 어찌 민족적 친화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인의 자세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자세이며 스스로 자랑스러이 서는 그 모습은 불행을 이기고 새로운 나라의 재건을 다짐하여 일어난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확대되고 말 것이다.

제3공화국, 그것은 새로 단장한 간판이 아니라 내용이며 이의 성장 번영을 위해 군인은 순국의 성(誠)으로 뭉쳐 빛나야 한다.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술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며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국회의원선거법개관(國會議員選舉法概觀)

—특히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의 해설을 중심으로—

김인환(金仁煥)

1. 서언

1962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된 헌법은 국회를 단원제(單院制)로 함과 동시에 정부 형태도 또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국회의원의 실수(實數) 및 후보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직접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의 공영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정헌법에 의한 제3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해서는 구(舊) 국회의원선거법을 폐지 내지는 개정하여 개정헌법의 취지에 따르는 선거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개정헌법에 부합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1963년 1월 16일 새로이 제정 공포된 것이 곧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될 새 국회의원선거법이다.

폐지된 구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될 당시의 헌법은 국회의 양원제(兩院制)와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의 권력구조를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선거를 비롯한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는 태두리 안에서 법률에 맡겨졌었다. 이에 따라 구 국회의원선거법은 국회의 양원제와 정부형태에 있어서 내각책임제를 전제로 하였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중심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개정헌법에 기초를 둔 새 국회의원선거법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선거방법에 있어서 지역대표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아울러 채택한 것, 선거운동에 있어서 철저한 공영제(公營制)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 지역선거구가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과거의 233개구에서 131개구로 대폭 감소된 것 등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하 새 국회의원선거법을 설명함에 있어 특히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처음으로 채택된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하여 새 선거법의 특색을 개관(概觀)코져 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20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고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구법(舊法)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신법(新法)에서는 선거법(選舉法)으로 처벌된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기간을 연장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를 확장하고 있다.

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議員定數)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과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에 의한 다수대표제로 일관하여 왔다. 선거구는 구, 시, 군을 단위로 하여 1선거구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구가 15만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인구 10만인 마다 1선거구를 증설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새 국회의원선거법은 종래의 선거제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와 선거구를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원제로 하여 전자(前者)에는 소선거구에 의한 다수대표제로 하고 후자(後者)에는 대선구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개정헌법은 국회의원의 정수(定數)를 1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 국회의원선거법은 그 범위 안에서 지역선거구에서 다수대표제로 선출될 의원수를 131인으로 하고 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4인은 전국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채택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기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가하고자 한다.

4. 비례대표제의 의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이것은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대선구제와 필연적으로 결탁된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그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다수대표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대립과 승패는 없고 다만 각 정당은 평행적으로 그 득표수에 비례하여 대표되고 있는데 불과하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정당, 즉 순수한 인적단체가 전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까닭에 선거구의 구분에 있어서와 같이 선거인을 지역적 단체로 분열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선거구에 의한 제약을 해소할 목적으로 만일 1선거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수가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표수를 사표로 하지 않고 전국의 선거위에서 동종의 표수를 모아 그 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을 획득케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근대국가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채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개인주의적 자유의 원리이며 또한 철저한 민주주의적 원리를 의미한다는 데 있다. 「켈젠」이 말한 바와 같이 자기가 참가하고 의결한 법률에만 복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한다면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자기는 국가의사구성에 있어서 자기의 대표자로 선임한 자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례대표제가 민주주의적

원리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하는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소수자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있다. 그것은 투표에 참가한 자는 동일한 정도로 의회의 구성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 이유와 함께 비례대표제는 또 일종의 윤리적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즉 다수대표제에 대하여 비례대표제는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감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1770년 볼란서 국립학사원(Academic Royale)의 1회원인「드 보르다」(De Borda)에 의하여 안출(案出)된 이 제도는 제1차대전 이후로 구주(歐洲)각국의 선거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5.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

그러나 비례대표제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각종의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규정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국민의 개념과 모순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한다. 그것은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은 정당에 의하여 지명되고 또한 의회에 있어서는 그 활동도 엄격히 정당에 의하여 구속되므로 실제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1정당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입후보자의 선택이 선거인의 자유에 의하지 않고 정당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대표를 선출하는 직접선거와도 모순되고 있다. 다음 실천적으로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소수정당의 난립(亂立)을 초래하여 정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게 하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2차대전 이후의 구라파에 있어서는 점차로 비례대표제에서 이탈하고 오히려 다수대표제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6. 입법례(立法例)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법례 중에서 우리 선거법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일의 선거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본래 제2제국시대(1871-1918)에는 제국의회(Reichstag)의 의원선거시에 단일의원선거구(소선거구)에 의한 절대적 다수대표제(과반수득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다음의「바이말」공화국시대에 와서 비로소 정당만이 제출하는 후보자 명부에 의거하는 엄격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 이 시대에 채택된 비례대표제는 소위 고정「쿼타」식 비례대표제로 의원정수(議員定數)를 정함이 없이 6만표마다 1의석을 정당에 배정하였다. 이 시대의 선거제도는 너무나 정당중심의 엄격한 형태의 비례대표제였던 까닭에 그 결과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또한 정국의 불안정, 정권수립의 곤란 등 좋지 못한 혼란을 가져와 마침내「히틀러」에 의한 독재정권(제3제국시대)을 대두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국토가 동서로 양분되어 서독(독일연방공화국(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치열한 논쟁 끝에 새로운 선거법이 마련되었으며 정당들도 군정당국의 인가를 얻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전후 서독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와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연방민원의 법정의원수인 516명중 반수는 단일의원선거제(personenwahl)에

의하고 나머지 반수는 정당에 의한 비례대표제(Verhältniswahl)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2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단일의원선거제는 우리나라의 지역구선거와 대체로 동일한 제도이나 무소속도 입후보할 수 있는 점이 다르고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만이 제출할 수 있는 주선거구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 주선거(州選舉)에서 각 정당의 주명부(州名簿)가 얻은 투표수에 의거하여 의석을 배정한다. 그리고 서독에서는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소정당저지규정(群小政黨沮止規程)을 두고 있다. 즉 전국투표의 5%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전국소선거구에서 3인 이상의 당선자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인데 이 군소정당저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당을 받지 못한다.

7. 우리 국회의원선거법에서의 비례대표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새 국회의원선거법은 지역선거구에 의한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여 다수대표(지역대표)로 선출될 의원을 131인으로 하고 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4인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자의 선출은 전술한 서독의 선거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국민이 2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구에서의 유효투표를 집계하여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새 선거법이 규정한 전국구의석의 배분방법을 보면 제1위로 득표한 정당(제1당)의 득표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되 제1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는 전국구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제1당의 득표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제2당 이하의 정당에 득표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2당의 득표가 제3당 이하의 정당의 득표총화(得票總和)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할 때에는 제2당에게 나머지 의석의 3분의 2를 배분하고 그 나머지 의석을 제3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득표비율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의 의석배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선거법도 서독의 그것과 같은 군소정당저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전국구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이 새 국회의원선거법이 다수대표제에 중점을 두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한 것은 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입후보자의 사표에 관한 제문제를 정당중심의 비례대표제를 혼용함으로써 해결하고 반면에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인의 개인의 사의 무시(정당중심), 군소정당의 난립 등 제문제를 다수대표제를 중점적으로 채택 혼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있을 것이다.

8. 의원후보자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개정 헌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원선거법은 정당의 추천을 후보자 등록의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종래에는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개인이 후보자 등록의 주체였으나 새로운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정당이 등록의 주체가 된다.

정당은 선거일이 공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역선거구에 있어서는 후보자 추천서와 후보자의 승낙서를, 전국선거구에 있어서는 정당에서 순위를 정한 그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와 각 후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 피선거권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만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무소속의 입후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9.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선거를 순화하고 선거결과를 선거제도 본래의 의의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선거법은 과거의 의원후보자중심의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철저한 공영제선거운동의 원칙을 채택하여 많은 공영사항과 제한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 선거일과 투표

새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국회의원총선거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3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게 하였다. 개정헌법부칙 제2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63년 12월 25일까지는 새 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의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금년 11월 중에는 새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새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방법은 중전과 같이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하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11. 당선인

새 국회의원선거법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채택하였으므로 당선인의 결정에도 이 두개의 원리가 각각 단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선거구에서는 소선거구에 의한 다수대표제로 당선인을 정하므로 그 지역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상대적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되며 득표수가 같은 지역구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

전국선거구에서는 전국구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의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원칙적으로 그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여 그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중에서 그 정당에 배분에 의석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된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된다.

사기양양(士氣昂揚)을 위하여

군사기(軍士氣)란 군의 생명이오 명맥인 것이다. 전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초점이 오직 그 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전장(戰場)이 아닌 평상시의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라도 그 군대 조직과 질서를 뒷받침하는 것은 오직 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 ◇사기향상(士氣向上)을 위한 제문제(諸問題)
- ◇군사기(軍士氣)와 건강
- ◇레크리에이션과 사기(士氣)
- ◇일선전투조종사(一線戰鬪操縱士)의 사기실태(士氣實態)
- ◇사기양양(士氣昂揚)을 위한 나의 제언(提言)

사기향상(士氣向上)을 위한 제문제(諸問題)

정해영(丁海瑛)



1. 서론

현대를 가리켜서 관리의 시대라고 한다.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력과 물자의 최소한지출로 부과된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하는데 있다.

한편 인사관리란「종업원의 내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우하고 조직하는 방법에 관한 규범체계가 다」라고 이 분야의 지도자인 Thomas G. Spates씨는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인사관리란 각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여 개개인이 자기 직무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고 그가 속하는 작업집단의 일원으로서 만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원만한 인사관리 없이는 조직의 목표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통솔이 어렵게 되고 따라서 관리의 목표달성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비단 인사관리담당자뿐 아니라 모든 경영계층의 관리층으로 부터 일선감독관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인사관리를 위한 책임이 메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미공군 편람(USAF, GUIDE)에도「부하를 지휘하는 모든 관리자가 그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인사관리상의 시책과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 혹은 집단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곧 군대사기의 제요소(諸要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사기계발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고안을 함으로써 인사관리를 통한 사기업무의 비중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2. 사기(士氣)의 정의

먼저 사기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 자신에 대한 신념, 전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행하려는 결심, 즉 각 병사로 하여금 각자의 환경에 만족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적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3. 사기의 성격

사기가 높으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취하게 됨으로 보다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다.

- (1) 힘 찬 노력(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성이 대단하다)
- (2) 고도의 자발적 협력(임무에 대한 헌신적 노력과 충성심이 충만하다)
- (3) 기율(紀律)에 관한 문제감소(복종심이 양호하다)
- (4) 입원환자 감소(신심이 건전하다)
- (5) 불안제거(안전성이 있다)

반대로 사기가 낮으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취하게 됨으로 비능률적이다.

- (1) 피동적 근무의식(잔여복무시간을 따지고 있다)
- (2) 불평불만(단결이 안 된다)
- (3) 경쟁적 태도의 감퇴(근무의욕이 없다)
- (4) 불복종상태의 발생
- (5) 훈계와 권한행사에 의한 성과유지
- (6) 직접적인 감독에 의존
- (7) 상사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

따라서 높은 사기의 효과란 사기 상태가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의 증거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효과 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1) 열의에 차 있다.
규정에 의한 피상적인 복종한계를 넘어서 자기의 임무를 다 하려는 자발적인 태도 즉 조화된 창의력.
- (2) 군기가 엄정(嚴正)하다.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며 각 개인의 이해 깊은 복종.
- (3) 자기신념에 차 있다.
직무의 기호여하에 관한 실질적 평가와 과거의 훈련 및 현재의 통솔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따르는 개인적 가치라는 기본적 관념.
- (4) 만족하고 있다

불만과 걱정에서의 해방 즉 전쟁수행에 있어서나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부면(生活部面)에 있어서의 기본적 만족.

(5)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자기가 속하고 있는 조직이 가장 훌륭한 조직이라고 믿는 확고한 신념.

(6) 충성심이 있다.

부과된 임무에 대한 업무이상의 깊은 성실성이 있다. 이것은 가족간의 충성과 근사(近似)한 것이며 고도의 책임감을 수반하여야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4. 군대사기의 제요소

개인 혹은 집단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로서 다음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 (1) 통솔력
- (2) 신념
- (3) 임무완수에 대한 인정(포상)
- (4) 집단의 일치단결과 부대 자부심 (Team의식, 경쟁의식, 전통)
- (5) 훈련과 교육
- (6) 안일(安逸)과 휴양
- (7)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적재적소)
- (8) 외부적 영향 (가족상태, 서신(書信))
- (9) 조직 기구 (T/O)의 적격성, 의사소통

5. 사기측정의 의의

사기계발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유형적인 자료의 수집 분석, 통계 평가결과에 대한 시간적 변위에 따르는 우열을 식별하여 사기계발의 동기를 제공함에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층이 종업원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그 업무의욕을 높이기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방법을 통해서 종업원의 불평이나 불만을 미리 알아내고 종업원의 근무의욕의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 사기측정방법

사기조사(Morale Survey) 태도조사(Attitude Survey) 또는 조직조사(Organization Survey)라고도 하는데 그 구체적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면접법

종업원을 직접 면접하여 그들이 갖는 불만 만족의 상황을 알고 그들이 지닌 감정(Sentiment)을 파악하려는 방식으로서 다음 두 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가. 지시적 면접법 (Directive Interview) 질문사항을

준비해 가지고 조사계에서 질문하면서 용지에 기입하는 방법.

나. 비지시적 면접방법 (Non-directive Interview)

질문사항의 준비 없이 종업원에게 자발적인 불만 같은 것을 이야기 시키는 방법.

(2) 질문지법 (Questionnaire)

질문사항을 적은 용지에 OX식 해답을 얻는 방법.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생산고, 여론조사, 출퇴근 상황, 이직률 등을 분석하는 방법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군대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1) 약식(略式)방법 (Informal Method)

다음 9개 내지 14개 항목의 측정요소를 수집, 분석, 평가함으로써 시간적 변위에 따르는 사기의 정도 또는 경향을 식별한다.

가. 군법회의건수

나. 성병발생률

다. 전속(轉屬)요구자수

라. 민사 사건 수

마. 무단결근과 탈영건수

바. 입원건수와 탈영행위(입원중)

사. 부주의로 인한 장비품의 손실

아. 경례

자. 정발(整髮)을 포함하는 복장상태. 단 전투지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

차. 부대목적원수실폐회수

카. 가병(假病)자수

타. 신경병자수

파. 낙오자수

하. 자기과오로 상해를 입은 자수

(2) 직접방법 (Formal Method)

질문지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착안점에 대한 각 구성원의 정감에 관한 독특한 질문을 시도한다. 따라서 동질적 단위부대에 대한 답안을 동시에 작성케 함으로써 각 착안점간의 지수차이를 분석 평가하여 사기의 정도 또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다.

가. 식당

나. 오락시설

다. 훈련계획

라. 진급

마. 조직, 통솔력

바. BX편의

사. 일반내무생활

아. 자기자신의 조직

자. 군사편제

이때 질문의 형태는 OX나 “Multiple choice”로 하되 간략하고 명백한 말을 써야 하며 각 질문은 단 하나의 문제에 국한시키되 무기명으로 하여 솔직한 답을 보장하고 모든 질문에는 점수를 정하고 채점하여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기의 효과만이 사기측정의 진실한 지표가 되는 것임으로 사기조사결과에 대한 과신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기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령 우수한 관리자 밑에 있는 모(某)직장이 최저의 근무의욕지수를 나타냈다는 실례를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에는 숙련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신에 급여를 비롯한 제반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국자가 조사할 때에 없던 불평도 제3자를 개입시켜서 조사하게 되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심리적 경향도 없지 않은 것이다.

7. 사기개발책

측정된 사기정도나 경향을 비판하여 적기에 시정사항을 제시 또는 경고를 발함으로써 사기의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인사시책의 시정)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사기개발책을 보전케 함은 물론 이를 과감히 수행시킨다.

(1) 제안제도 (Suggestion scheme)

종업원으로부터 작업 기타에 관한 개선안을 제안케 하고 이를 심사하여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의의는 제안된 내용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제안을 하기 위한 사고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결함사항이 있다.

가. 제안과정은 공동의 성질이나 영예와 장려금은 제안인에게 한정됨으로 동료와의 관계에 균열(龜裂)을 일으킨다.

나. 상관과 상담치 않음으로 상하관계의 악화가 염려된다.

다. Hint를 비장(秘藏)하려는 경향 때문에 Idea 발전상에 저해가 된다.

라. 창설초기에는 활발한 것 같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2) 인사상담제도 (Personnel counselling program)

종업원의 직장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걱정 번민(煩悶) 고정(苦情) 등을 듣고 종업원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공식조직과 그 집단적 정감(Group sentiment)을 파악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모든 관리층이(특히 장교) 과연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직능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령 지시적 상담(Directive Counselling)보다 한층 새로운 비지시적 상담(Non-direct Counselling)을 구사해 가면서 요(要)는 본인의 자발적인 해결을 돕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사기를 향상시키는 일반적 방법 (라테나의 5개 항목)

가. 각자에게 자기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반성을 갖게 한다.

나. 부하에게 영향을 줄만한 변경사항을 사전에 알리라.

다. 개인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적재적소)

라. 직무분담을 공정하게 지키도록 한다.

마.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것(상사의 권력남용에 저항)

(4) 사기유지기구

그러면 군내부에 사기유지기구란 어떤 것인가. 미공군 MANUAL에 의하면 사기유지기구를 통상 개인사기면과 부대사기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제 같은 구분 밑에서 당군(當軍)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져야 할 기구나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사기를 위한 면

(가) 안전에 대한 욕망을 위한 것	군인전사급여금
정기봉급지불	항공장려금
각종수당지불	군사원호보상금
휴가비지불	입원가료(入院加療)
군인 및 공무원연금업무(군인연금법)	개인의 권리보장(군법회의징계위원회)
군인보험업무(군인보험법)	가족 및 재산의 보호
우편저금업무(국민저축조합법)	유족연금 및 상해연금
생명보험업무(Pilot)	적십자사
각종보상금	자선협회
전역급여금 및 전역자 피복비	전몰(戰沒)군경유자녀보호(추천)
장기입원사병전역특별급여금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추천)
(각령 239호)	군목(軍牧)업무(고백가능)
군인사망급여금	감찰업무(적발 또는 시정)

(나) 기본적인 위안에 대한 욕망을 위한 것.
영내식당(Club), 세탁소, 이발소, 극장, 기타BX
오락실

나. 부대사기를 위한 면
(가) 부대 운영기금의 활용
BX를 통한 이익금
포상
파티
체육경기를 위한 장비
휴식실 장비

(나) 적십자사의 봉사(이용)
(다) 기지원호사업기금(전원의 복리)
(라) 공군자선행회
(마) 오락시설
다. 기지 특수봉사
(가) 군목(軍牧)
(나) 법무관
(다) 감찰관(監察官)

8. 결론

지금까지 소위 관리시대에 사는 군인으로서 사기업무가 차지하는 인사관리상의 비중을 고안해 보았다. 사기를 향상시킬 일반적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운용은 곧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재론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군대사기의 제요소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개인 혹은 집단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연소를 충족시키려면 어느 특정직계의 직능수행에만 기대할 성질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 우선 수궁이 갈 것이다. 즉 높은 사기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집단의 모든 장(長)들이 사기향상을 위한 제문제에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사기개발책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개개의 GROUP 사기향상이 결국 전공군의 사기양양을 의미해 주기 때문이다. 겸하여 우리공군이 대내(隊內)에 가지고 있는 사기유지기구에 대해서 가급적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고 하사관 이상의 모든 관리층이 지녀야 할 사기향상의 공동목표를 재인식함으로써 보다 나은 공군의 사기가 보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헌

국방을 위한 군사통신 John Robert Belshire
현대경영학 판본등량(坂本藤良)
경영을 살리는 인간관계(經營を生かす人間關係) 굴천직의(堀川直義)
인사관리론 Parl P·Gros / Charles A·Myers
인사행정론 박동서(朴東緒)

군사기(軍士氣)와 건강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군사기에 미치는 영향—

계원철(桂元喆)



서언

군대에 있어서『사기』의 왕성정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척도로서 그 부대 장비의『성병(性病) 이환률(罹患率)』과『유휴병력률(遊休兵力率)』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양자가 모두 군 풍기(風紀) 확립 즉 규정 및 지시의 이행상태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규정과 지시를 제대로 지키고 군 풍기가 확립되어 있으면, 성병률이나 유휴병력률이 저하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건전한 정신이 결핍되어 있거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면 군 풍기가 이완되어 제규정 및 지시를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절제를 함으로써 성병에 이환(罹患)된 자가 많아지고 또한 상병으로 근무에 종사치 못하는 자 소위『유휴병력』이 증가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부대의 기능과 전력을 마비시켜 군사운용을 비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 성병률과 유휴병력률은 그 부대의 훈련되어 있는 정도와 사기의 왕성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되며, 동시에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다. 또 한편 이 제규정 및 지시의 이행상태는 즉 명령에 복종하는 형태를 알려주는 것으로 명령이 내리자마자

자율적으로 이를 지키는 습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명령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의 시간 즉 반응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훈련이 잘되어있고 사기가 왕성한 군대라고 볼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명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훈련이 미숙하고 사기가 저하된 군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평시(戰平時)를 막론하고 상사로부터『명령』이나『지시』를 받았을 때에 건전한 정신력과 강건한 체력을 가질수록 직각적(直刻的)으로 재빠르게 복명(復命)과 책임완수를 하게 되나 만일에 그 복명자의 정신력이나 체력이 건전치 못할 경우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이 민활치 못하게 되며 또한 어려운 명령일수록 또는 주위 환경조건이 고루지 못할 때일수록 더욱 민활치 못해진다. 이는 곧 그 부대의 사기가 저락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그 부대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현명한 군의 지도자들은 이 사기양양 문제를 취급할 때 항상 정신 및 육체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명심하고 있으며 제일 손쉽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인 이 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하장병으로 하여금 항상 명랑하고 쾌활한 군대생활을 유지케 하며, 사기를 양양시키고 있다.

이 기회에 필자는『사기』를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건강면에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건강의 의의

옛부터『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전한 정신』과『건전한 신체』란 무엇인가? 두말 할 것 없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병이 났을 때에만 비로소 자기 몸을 걱정하고 돌보게 되며 평소 건강히 지낸 때에는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지낸다. 통속적으로『건강』이라 함을『무탈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결코 이것이『건강』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건강』이라는 것은 단지『심신에 고장이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건강』이 넘쳐흐르며 즉 투철한 군인정신이 용솟음치는 상태를 말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떠한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도 술선해시 감당할 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여하튼 첫째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는 것이 제1조건인데 이것은 다만 육체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제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천치바보인

경우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정신면에 있어서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성격이상 때문에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협조가 안되어 단체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 또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로 활동력 작업능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어야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장병을 막론하고 맡은바 군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나는 항상 사무실 근무만을 해야 한다』라든가 또는 그와 반대로『나는 행정업무에는 취미가 없으니까 전연 할 수 없다』는 등등의 자기본위의 군대복무를 원하는 자들은 활동력 작업능력 면에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기저하—질병—사기저하의 악순환

(건강유지의 실패로 작전기능이 마비된 전례)

개개인의 건강유지의 실패는 개개인의 사기저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 작전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전례가 허다하다.

1854년「크리미아」전역시 연합군 부대 내에『콜레라』가 대유행하여 작전기능이 마비된 적이 있었고 또한 2차대전 당시「뉴기니아」와「과달카날」방면에서는 전상자(戰傷者)수보다「마라리아」환자가 훨씬 더 많았으며 이 때문에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유희병력이 속출되어 미군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 됨으로써 고전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예를 들더라도 6·25 전 지리산공비 특별 작전 때, 경험 및 훈련부족과 위생시설 및 위생관념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국군이 동상(凍傷)에 걸려 손발의 기능이 마비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또한 사기가 떨어짐으로서 더욱 동상 및 기타의 환자가 속출되어 전력이 저하 되었다. 또한 한국전란중 공산군에 있어서도 위생시설 및 위생관념 부족과 훈련부족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다수의 동상 기타의 병상자가 발생하였음이 알려져 있다.

이 전쟁과 동상은 건강과 사기와와의 관련성을 가진 좋은 예이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사를 들추어 보면 전염병과 동상은 1812년『폴란드』에서『나폴레옹』군이 패전한 직접원인으로 되어있고 또한 1854년「크리미아」전역 당시「티벨」구세군의 실패의 원인으로 되었으며, 1차대전 당시에는 불군(佛軍)의 소위『참호족(塹壕足)』으로 많은 고전을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 전염병과 동상은 특히 사기와 증대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가 왕성한 군대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사기양양을 위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군대에는 대단히 밧생하기 쉬우며, 따라서 사기는 더욱 저하된다.

그 이유는 사기가 왕성한 군대에서는 모든 규정의 이행상태가 (예를 들면 예방주사점중, 신체검사, 개인위생) 철저히 때문이다. 반대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에 있어서는 모두가 위축되어있어 동작이 게을러지고 명령 지시에 대한 이행상태가 불량하여 전염병이나 동상 등에 걸리기 쉬우며, 따라서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환자는 더 많이 생긴다는 질병과 사기저하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결국 전의가 없어서 부대는 무력화되고 만다.

강건한 신체와 사기

제아무리 명랑하고 쾌활하며 건실하고 만사에 협조적이면서 적극적이던 장병일지라도 일단 신체가 허약해지면 자연히 침울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무기력하게 되어, 모든 일에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아무리 천재라도 업무능률이 떨어지며 따라서 사기가 저하되고 사기가 저하되면 더욱 사람이 위축되고 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까지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신체가 건강치 못하면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 상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유쾌한 감을 주게 할 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책임감이 희박해진 독선적이고 비협조적, 비조화적인 사람이 되어 자연히 단결을 파괴시키고 동료에게 공연한 부담을 줌으로써 온 부대의 사기를 떨어트리게 한다.

반면에 신체가 강건하면 자연히 성격면에서 명랑 쾌활해지고 용감하며 일 처리에 과단성(果斷性)이 있고 정의감이 강해지며 적극적이면서 책임감이 왕성함으로서 개인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집단의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 집단의 사기는 더욱 양양되며 나아가서 그 집단의 단결력은 더욱 공고히 된다.

그러므로 건강은 지휘관이나 상관으로서의 필수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집단의 구성분자 개개인이 다 같이 지녀야만 할 필수요건인 것이다.

건전한 정신과 사기

건전한 정신은 강건한 육체에 못지않게 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신면에서 건강치 못한 사람은 자연히 성격에 결함이 생기며, 그 결함

의 도를 지나치면 행동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조울적(躁鬱的), 망상적, 긴장적, 히스테리적, 사디스트적, 동성애적인 행동으로서 군대의 결단을 파괴하고 사기를 떨어트림으로서 군 운영상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군에 있어서 그 부대지휘관의 통솔력 여하에 따라 부하장병의 사기가 크게 좌우되며 그 부대의 운명이 결정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대지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그 부대 지휘관의 올바른 통솔력인 것이며 올바른 통솔이 이루어질 때 부하들의 복종심은 지성(至誠)으로 되고 따라서 그 부대의 사기는 고조되고 군기가 확립되며 전력이 향상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이 통솔력은 그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그때그때의 정신건강상태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올바른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생기면 이것은 통솔력에 빈곤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졸렬(拙劣)한 통솔력은 연쇄 반응적으로 군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위환경에 따라 감정이 좌우된다. 비근(卑近)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말해보기로 하자. 어떤 가정적으로도 원만한 상급자가 자기 집 꼬마들의 전송을 받고 명랑하고 쾌활한 기분으로 출근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명랑한 미소를 분배해 줄 수 있어 그 부하되는 사람들도 자연히 명랑해지고 부대 전체가 명랑한 가운데 활기를 띠고 하루의 첫 출발을 하게 되며 상호간에 존경심과 협조심이 왕성해지고 따라서 상하좌우의 단결이 공고하게 되어 그 부대 내의 사기는 충천(衝天)하고 부대 임무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지난밤의 과음으로 수면부족인 붉은 눈과 아침도 못 먹은 쓰라린 속을 가지고 집을 나올 때도 귀여운 아이들의 전송대신 아내의 불평을 듣고 출근했다면, 이 상급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욕구불만이 다분히 조성되어 자연히 이맛살은 찌푸러지고 만나는 사람과 화기에 찬 인사는커녕 만사가 못마땅하다는 듯 신경질을 부리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그날 하루 업무의 스타트는 알아볼만하다. 이것은 비단 영외자(營外者)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내자(營內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어떤 한사람이라도 정신적인 면에서의 건전성을 잃어버리고 결함을 가지게 되면 연쇄 반응적으로 부대전체가 명랑성을 잃고 침울해지며 상호간의 융화단결이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신적인 불건전으로 인하여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모두가 단결을 파괴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신건강에 있어서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건강유지의 방법

앞서 말한 사기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손쉬운 방법을 말해보기로 한다.

먼저 건강이란 단지『병이 없다』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관념을 고쳐야 하며, 군 대생활에 있어서의 건강의 표준을 강건한 체력과 건전한 군인정신임을 명심 하고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로 우선 병에 걸리거나 몸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유의하고 환 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진단을 통하여 신체의 이상을 조기 발견함으 로써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군 풍기(風紀)가 확립된 군대에 있어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계규정을 이행함으로써 건강이 용이하게 유지된다.

셋째로 강건한 체력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규칙적인 병영생활뿐만 아니라 평 소에 적당한 스포츠를 통하여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 동시에 과로를 피하고 휴일을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가짐으로써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피로 의 축적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정 신의 수양을 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음으로써 개개인의 정신건강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적의 방법이다. 또한 단체적으로 볼 때에는 운동경기 중 가급 적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구기(球技) 등을 장려하여 상하좌우가 단결함 으로서,『팀웍』(Teamwork)을 이룰 때 상하가 혼연일치되며 협동정신, 희생정신, 감투(敢鬪)정신 등을 왕성하게 발휘하며 명량한 분위기 속에서 목표달성을 위 해 모두가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결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은 군대의 사기를 좌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면에 있어서의 건강도 대 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장병들은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도적 입 장에 있는 장교나, 하사관들은 항상 이 건강과 사기저하의 악순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명심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점을 항상 연구개선함으로써 군사기를 진작(振作)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 투철한 군인정신과 강건한 신 체는 왕성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단결을 이룩하고 그 부대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감에 틀림없을 것이다.

레크리에이션과 사기(士氣)

심현(沈玹)



인간의 문명은 위기권 밖에까지 미치지 시작했다. 이 급진적인 문명의 발달 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우주병 이라든가 원자병, 노이로제 같은 것들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대표적 부산물들이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연료만 있고 물의 냉각 장치가 없다면 과열로 기관의 기 능이 상실된다는 것은 너무 평범한 상식이다.

우리들도 이 급진적인 문명에게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정신과 육체를 냉각시 키는 작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 냉각과정을 말해서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은 우리들에게 단체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협동심 이나 넓은 마음을 키워 꿈과 의욕을 주는 공급기관의 역할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과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은 창공의 동경자와 애국의 청년들로 조직 된 단체이다. 원대한 장래의 꿈을 이루고 복잡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며 발 전과 강군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면 명령일하에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 개인의 힘이 필요 하다. 힘을 가리켜 사기라 한다면 높은 사기의 필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강력한 명령계통의 확립을 혹자는 강제하는 것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그것은 시대감과 뒤떨어진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만한 인간관계와 알맞은 레크리에이션, 자신들이 무엇을 왜 해야 한다는 뚜렷한 인식이 잘 조화될 때 비로소 높고 왕성한 사기가 형성될 것이다. 우 리나라 사람

들은 협동하는 마음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남을 높여 자기를 침묵할 수 있는 아량이 없다는 얘기가 일 것이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나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올바른 생활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우리들의 생활조건들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은 거짓일 수 없다.

구름 속에서 계기의 움직임과 수신되는 신호만을 믿고 비행하는 조종사들, 까마귀떼 같이 날아드는 항공기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관제사들, 시동중인 제트엔진 앞에서 잘못 일췌했다가는 흡입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비사들, 쌓이고 쌓인 서류몽테기, 대인관계의 복잡한 신경전, 여기에 마누라의 바가지까지 겹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초 과일상태임에 틀림없다. 냉각제인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긴장감으로 팽창된 두뇌, 불안과 울분과 피로함, 이와 같은 생활의 잔재들을 어떻게 배설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술도 좋고 여자도 좋다. 빠지르르한 기생 오래비의 대갈통을 후려치는 것도 좋다. 맥주병을 던져서 몇 쪼가리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현명한 지성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현대 이전의 방법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멋과 즐거움과 지성을 겸비한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는 마음, 거짓말을 심각하게 들어줄 수 있는 아량과 지성인의 멋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우리의 정신이나 신체에 미치는 압력자체가 섬세하고 묘한 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우리의 방법도 멋과 기술의 묘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역시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시대와 분야를 초월한 걸작품임에 틀림없다.

현재 공군에서 많은 종류의 운동을 레크리에이션과 효과를 위하여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배구, 정구, 탁구, 베드민턴 같은 가벼운 운동들은 신체의 단련에도 좋겠지만 흥미도 진진하여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크다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다.

공군낙시회에서는 주말마다 안내용 포스타를 통하여 새벽을 버스에 싣고 떠나곤 했다. 바둑부도 부원을 모집하여 행사계획이 다채롭다. 공군장교 합창단의 발족을 위해 애쓰는 몇 분이 계시다. 이렇듯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일의 전투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들이 이러한 모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기의 취미와 단체의 멋을 높이기 위한 참여의욕을 높여야겠다.

미국의 전 대통령 후버(Hoover)씨는『낙시는 맑은 물속에 서서 잔잔한 물결과 신선한 공기, 반짝이는 태양아래 내 영혼의 잡된 것을 씻어버리는 시간』이라고 낙시를 찬양한 글이 있다.

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풍겨 주는 것인가.

공군 기본훈련 과정에서 성행하고 있는 기마전이나 투구 같은 게임도 신체와 정신의 단련에 다시없는 게임이다.

어느 한사람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뭉쳐진 단체의 투지가 승리를 약속하는 게임이다.

훈련에 지친 신체와 긴장된 정신은 이 피와 피의 대결이라는 규칙 없는 게임을 통하여 말끔히 발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 누구의 가슴속에도 이 게임을 통한 뿌듯한 추억거리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후보생 교육을 받은 지 7년이 가까워오니 그리 많지 않은 동기생들의 얼굴도 삼삼해진다. 일전에 서울 역으로 J대위를 마중 나갔다가 복잡한 사정이 일어났다. J대위와 나란히 걸어 나온 안경잡이 공군대위가 어린애처럼 반가워하는 것이 아닌가. 딱한 노릇이다.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도 알 수 없는 얼굴이다. 우물쭈물 얼버무리고는 J대위와 함께 합승을 타고 앉아서 물었다.

1구대 8번 K 몰라?...모르겠다. 기마전 할 때 3번 기수 말이야.

나는 7년전 훈련복 속의 기마전 기수 K의 얼굴을 찾아냈다.

—아하 KSK 말이냐.— 옳지—

J대위의 맞장구로 확인은 했지만 이 친구 쓰지 않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의젓해졌으니 알아볼 수가 없을 밖에.

역에서 이 친구의 정체를 알았다면 기마전의 적으로서가 아니라 까까머리 동기생으로서 껴안아 주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 했다.

이렇듯이 내 가슴속 앨범속인 기마전과 투구와 눈싸움을 통한 생생한 스냅들이 아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군에서는 이러한 게임과 병행하여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이 육성된다면 불굴의 투지와 왕성한 사기가 형성되고 성장되어 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종류와 방법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정적인 것이라면 바둑, 장기, 화단 가꾸기, 합창단 활동, 음악감상, 그림, 사진, 서도 같은 것을 들 수 있겠고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 낚시, 연날리기, 씨름 같이 동적인 것도 좋다.

그 밖에 서구적인 포크 댄스도 띄 흥을 돋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날리기 같은 것은 공군과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경비가 필요치 않으니 전국적인 취미 물로 장려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항공기를 모방하여 여러 가지 연을 만들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학술적 원리를 정리하여 취미인과 전국의 애호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일년에 한번정도의 대회를 계속 유지한다면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등산이 또한 쉽고 장쾌한 레크리에이션이다.

이제 가을이 짙었다.

멋쟁이 내무반장이라면 급양대에 교섭하여 중식을 준비할 수 있을게다.

일주일의 잡다한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새벽을 밟으며 영내를 떠난다. 가을 하늘, 꽃피어 붉은 단풍잎, 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 풍성한 자연에 싸여 지난주의 잡념을 털어 버리고 젊음을 발산한다면 그 아니 좋겠는가.

모닥불 노리도 또한 흥겨운 것이다. 달 밝은 가을밤에 활주로 끝이나 연병장 모퉁이에 어린 동심으로 모여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손벽치며 흥타령을 불러 보자. 부풀어 오른 마음으로 공군의 땡가땡을 불러도 좋다. 이 어찌 멋쟁이 공군들의 흥취가 아니겠는가.

멋쟁이 군인이란 말은 공군아저씨들에게 보내는 어여쁜 아가씨들의 애칭이다. 유니폼도 멋지지만 유니폼 속의 동물성 옷걸이가 일품이라는 것이 정평이듯이 많은 지성들이 내무반에 모여서 살고 있다. 내무반 단위나 대대 단위로 취미강좌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다.

순번적으로 강사를 정하여 자기의 취미 있는 소재이거나 연구한 결과를 발표토록 하여 반원 전체의 취미를 향상시킬 수 있다. 내무반장이나 선임하사관이 강력한 힘으로 추진한다면 소개하는 사람이나 소개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양은 자기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우는 일에는 그만한 가치와 이상이 있어서이다. 나라 없는 민족을 위하여 싸울 조국이 없다. 내가 나라를 사랑 한다면은 조국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내 뼈가 크고 조상이 묻힌 땅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사기는 이렇게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라와 공군을 위하여 싸운다는 정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고 싶은 공군이 있어야 한다. 존경하고 싶은 상관이 있어야 한다.

애착을 느끼는 내무반이 있어야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때문에 공군이라는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공군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나는 이 육성이라는 말을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면을 떠나서 멋과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을 전환시키는 PR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년에 한번 정도의 공군장병 취미전 같은 것을 시내의 알맞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공군 장병 중에는 예술과 취미, 오락 부문에서 일가견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체불사진전을 열어 찬사를 한 몸에 지닌 Y장군을 비롯하여 그림, 조각, 서도, 시화 등의 취미인은 얼마든지 있다. 공군의 신형기 모형과, 유도무기 모형, 정성든 화분, 시화, 사진, 그림, 특별히 준비한 인쇄물 같은 것들을 잘 조화 시켜 시민에게 공개한다면 성공은 눈앞에 있을 것이다. 또한 공군 음악회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도 있다. 교향악단과 장병합창단, 공군장병의 자녀 중에서 소양이 높은 어린이들, 여기에 국보적 희극배우 광규석(후라이보이)씨 같은 공군예비역 연예인을 초청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대외 활동이 되겠는가.

국민들의 공군에 대한 정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공군장병의 사기는 높아질 것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군벌시론자들에게 무게 있는 일격을 가할 수도 있어 통쾌할 것 같다. 이렇듯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얻어진 마음의 여유와 건전한 문제의식은 자기를 현실에 철저히 적응토록 해준다. 또 한 번 훈련받던 때의 얘기를 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훈련은 이른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계속했다. 그러려니 고생도 컸지만 내 일생의 제일 흐뭇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해이기도 하다.

네 개의 내무반으로 편성된 병사에서 이틀 밤을 뜬눈으로 크리스마스 장치를 준비했다. 재료란 무엇이나 귀한 때라 흰 씨트를 이용해서 침상 끝에서 창문을 가리며 높이 올려 백색 아취를 만들었었다. 통로 곁으로 푸른 솔잎을 깔고 촛불을 200여개 줄지어 켜다. 씨트의 곳곳에 별과 하늘을 달았다. 앞에 세운 동방박사의 그림이 서툰기는 했지만 경건한 맛이 있었다.

하룻밤을 연습해서「화이트 크리스마스」와「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배운 48명의 구대원은 모두 씨트 뒤에 숨어서「하밍 코러스」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축복해 주었다.

누가 눈물을 흘렸을지는 모를 일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 뿐이다. 다음날은 H여고 학생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군인들을 위문 왔기에 우리는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보여주고 100명의 훈련병들은 모여서 노래를 불러 주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다
—애 저 사람들 영어 노래를 다 할 줄 안다?— —글쎄 말이다— 하는 얘기들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뒤엉킨 크리스마스를 지나고는 나머지 훈련기간을 고달픔도 지루함도 모르고 지냈다. 그저 즐겁게 돌아치며 4개월의 훈련을 마쳤다. 지금 이 일을 생각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레크리에이션의 덕이었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고마움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할 때 레크리에이션과 사기는 선후가 없이 서로 관계있는 한 쌍인가 보다. 강제함으로써 사기가 높아지기보다는 알맞은 레크리에이션과 서로의 개인을 존중하는데서 자발적인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많은 부하를 다스리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의 특별한 연구와 좋은 제도를 실시해 주기 바라며 관계관은 관계관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느껴 지휘관과 부하들을 잘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을 받아들이며 소화시켜야 할 개인들은 개인으로 서로 노력을 계속하여 상사가 요구하는 사기라는 위대한 힘을 작용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껴 주기 바란다.

다시 되풀이 한다면 레크리에이션이란 고무줄이 오므라든 현상과 같은 것이다.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 고무줄은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위해서 팽팽해져야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만일 쉬지 않고 팽팽한 채로 얼마를 지나다면

이미 고무줄로서의 생명은 없어지고 말 것이 아닌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업무에 열중하고 피곤한 상태가 휴식 없이 오래 계속된다면 활동인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어 병원 침대나 조용한 요양소의 나그네가 될 것이 분명하다.

건전한 몸과 건전한 정신만이 우리의 재산이다. 또 그러한 젊은이가 필요한 현대다. 문명이 외기권을 침범한 오늘이기에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레크리에이션은 사기와 기분전환을 위하여 다시없는 묘약이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중공인민이 존경하는 인물

영국의 모(某)신문 향항(香港)특파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중공(中共)내에 존재하는 많은 우파들은 모두가「중공사회주의학원」에 수용되어 세뇌교육을 받고 우파분자라는 랫텔에서 벗어났다. 이 가운데에는 북경의「광일신문(光日新聞)」편집국장 저안평(儲安平), 농공민당주석(農工民黨主席) 장백약(章伯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우파 인물 중에서 단 한사람이 중공정권의 온갖 압력에도 불굴하고 자기의 지조를 꺾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전 국무원식량부장 장내기(章乃器)다.

다른 우파인물들은 모두가「자기비판」에 굴복했다. 그러나 장내기만은 굴복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식량부장에서 쫓겨나 정치협상회의요원으로 떨어졌다. 그는 끝내「자기비판」을 거부했기 때문에 드디어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추방되었다. 1957년, 이른바 정국운동이 일어나고 우파인물들에「명방(鳴防)」을 요구했을 때 장내기는 사회주의개조의 이 이상의 심화를 반대했던 것이다. 그는 오늘도 그의 이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가 부주임 요원으로 속해 있는 중국민주건국중앙상무위원회는 그를 추방하는 제안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부르쥬아 계급이며 우파분자인 장내기는 여전히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본회 중앙위원회는 장내기의 중앙위원직을 박탈하는 동시에 본회의 회적(會籍)으로부터 추방할 것을 결의한다.」

그러나 장내기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향항으로 빠져나온 난민들은 말하고 있으며 많은 인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선전투조종사(一線戰鬥操縱士)의 사기실태(士氣實態)

마중인(馬鍾仁)



서론

사기는 군기의 원천이며 군기는 명령의 복종으로서 나타난다. 군에 있어서는 임무완수가 그 생명이며 이 생명을 활발하게 약동시키는 생생한 선혈이 군기라고 볼 때 사기야말로 피를 조성하는 모든 요소의 결합이며 총체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사기는 따라서 군기와 같이 정신적이며 심적 상태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자발적이며, 의욕적으로 하게끔 유출하는 원동력이며, 그 요인이라고 본다.

어느 집단의 사기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집단의 통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그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기의 요인에 대하여 알기 위해선 인간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득(知得)하고 연구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높은 사기를 확보 유지하는 유일한 주요요소는 통솔역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상 지휘관으로서 또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조직체의 계서제(階序制)의 계층이 높을수록 하위와의 통신이 곤란해지는 반면에 이에 반비례해서 통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영향범위는 매우 커지고 결정적인 임무에의 성패를 좌우케 하는 것임에 지휘관으로서는 자신의 통솔력과 이에 관계되는 당면한 여러 과제에 대하여 언제나 정확히 파악하고 또 적절히 해결하는데 연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도자, 집단원, 상황(환경)의 통솔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이에 따라서 다른 통솔상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아마 동일한 인간성을 지닌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고 또한 동일한 집단도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동일한 집단의 환경이나 상황도 있을 수 없을 것임에 역시 동일한 통솔방법도 있을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지도자가 인간인 이상 천태만변하는 환경 하에서 무궁 무진한 통솔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에 접근하고 근사(近似)한 위치에서나마 적응시키고 자기스스로의 통솔상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집단내의 개개의 인간을 알고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부단하며 꾸준한 자신의 통솔력에 대한 개선 향상에 힘씀으로서 보다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임무완수를 위하여 기여한다는 것을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자각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의 큰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특히 직접적으로 전투역량을 발휘하고 군의 모든 노력과 자원이 통합적으로 여기서 집약 발휘되는 일선전투조종사의 사기의 실태파악을 시도하여 미비하나마 발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하나 앞으로의 보다 높은 전투조종사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또는 현재의 통솔역량의 평가검토와 아울러 보다 향상되고 개선된 통솔력의 질적 자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아 여기다 감히 적어 볼까 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일선전투부대(대대급)에서 근무하는 현역 전투조종사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근무나 출장중인 조종사를 제외하고서 전원에게 실시하였으며, 비교적 협조적이며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배포(配表)조사로서 직접개인에게 분배되었으며, 그 내용은 28개의 의문항목으로서 구성된 질의표로서 작성된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1)대대(大隊)의 역할(위치) (2)협동심 (3)신뢰성 (4)직책에 대한 만족도 (5)휴양 및 건강으로 대별(大別)하여 평하였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평을 결론으로 맺었다.

전투대대의 역할(위치)

전투대대는 군에 있어서 직접전력을 발휘하여 적과 대전하는 최첨단에 위치하고 있는 단위부대이며 군의 모든

지원의 총결산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전술적인 위치에서 보나 또는 조종사 개인에 대한 군에서의 배려나 혹은 그들 자신이 군의「에리트」로서 국군의 어느 병과(兵科)보다도 학술적이며 신체적으로 타에 비하여 선발된 우수한 인원으로 구성되고 기술면으로도 최선단의 고가한 장비를 보통사람으로서는 힘든 난관의 교육훈련을 겪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프라이드」등으로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매우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전비태세에 있어서나 그 능력 유지 및 발휘 면에 있어서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량의 작전가능상태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공군의 전투부대가 얼마나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투조종사들이 자기임무의 중요성과 위치가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것을 제2차 대전 중의 미공군 전투조종사의 실정과 비교해 보면 물론 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差)는 있으나 우리 공군에 있어서 보다 높은 상태에 있음을 도표(1)로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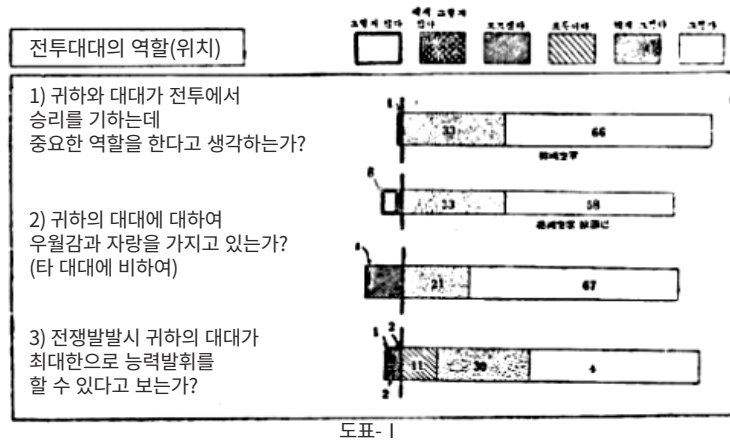


도표-1

협동심

부대임무 수행에 있어서 협동은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 발휘하여 최대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지휘관의 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협동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강력하고 통합된 일사불란(一糸不亂)한 전투력의 발휘가 가능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자발적이고 상부상조하여 원만하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전투임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전투대대내의 전투조종사 상호간의 협동심과 서로 도와 일하려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는 직접 적을 섬멸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승리의「바로메타」라고 볼 수 있다.

도표(II)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투대대내의 조종사간의 협동심은 매우 견고하며 이것은 공중에서의 전투가 단독으로서 수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으며 더구나 집단 즉「팀」(Team)으로서 훈련되어온 조종사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하기도표(II)는 현재의 협동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현 대대원간의 화목상태가 좋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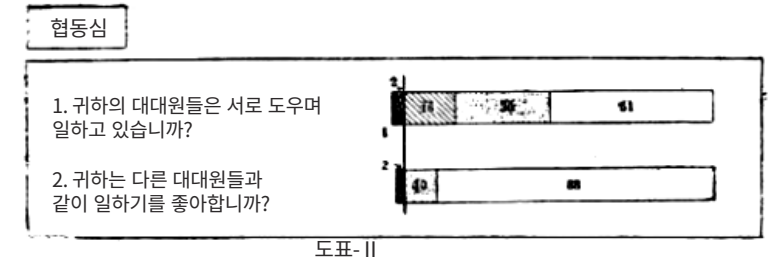


도표-II

신뢰성

전투비행대대에 있어서 승리의 굳은 신념과 이를 견지할 수 있는 자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정신적면에서 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임무수행상의 난관과 애로(隘路)를 극복할 수 있는 심적 태도를 갖게 하고 육체적면이나 양적인 부족을 보충하고 능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특히 이번의 조사 결과 군인으로서 믿음직하다고 거의 전 대대의 전투조종사들이 서로 평하고 있었으며 상관이 자기를 인식해줌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인 타인(특히 상관)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데서 오는 하급자로서 임무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보람을 크게 느끼는데서 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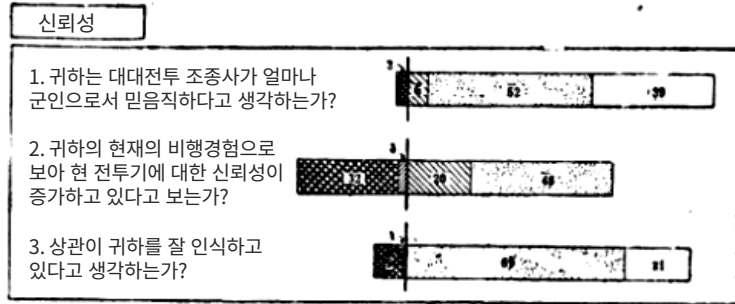


도표-III

기쁨은 더 일층 사기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전투기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는 약간 의아한 감을 갖고 있는 편이기는 하나 대략 좋은 편이라고 본다.

직책에 대한 만족도

군인으로서 자기 직책에 대하여 만족감을 갖는다는 것은 임무완수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며 특히 군대내의 타 직책에 비하여 자기직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람을 느낄 때 또는 사회적면에서 보아 자기의 군대직책이 모든 면에서 타로부터 동경이나 갈망의 적(的)이 되는 직책이며 더욱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국가나 사회면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느낄 때 그 만족도는 더욱 증대하리라고 본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전투조종사라는 매력적이며 보통의 능력이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기술과 또한 국방상의 중요한 존재 하에 있다는 것은 물론 일단 전투조종사로서 전투부대에 배속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국가적인 막대한 투자는 어떠한 다른 부문보다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되리만큼 큰데다가 그들이 조종하고 있는 전투기의 가격만 하더라도 억대에 가까우니 이모저모로 그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며 젊은이로서 하늘을 마음껏 나르며 지킨다는 그 용솨음치는 혈기를 발산시킬 수 있는 일터임에 현재의 전투조종사직에서 타 직책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며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길러준 국가에 대한 의무감에서도 더욱 뭉치고 더욱 힘내어 전기(戰技)연마에 맹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군 전력 향상과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확보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격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좋은 증거도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군에서의 전투조종사로서의 제트기의 조종이나 기술이 아직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없어 도표(IV)에서 그러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민항공계도 켓트화 되고 하면 더욱 활발한 항공에의 약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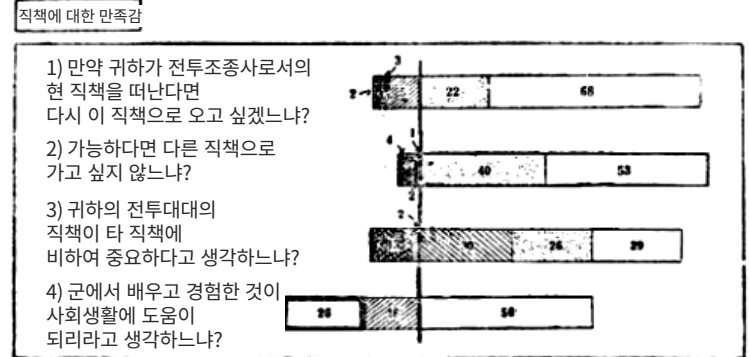


도표-IV

휴양 및 건강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가 휴식(휴양)이라고 본다. 특히 전투조종사로서는 그 임무로 보아 공중사격, 대지(對地)사격 또는 악천 후비행 등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다가 각종의 많은 비행계기나 장치를 경계하며 조종해야하고 불의의 공중고장에도 대비해야 하고 무한한 공중전역(全域)을 언제나 탐색하여 적기나 혹은 다른 항공기의 접근을 발견하여 공격 또는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이 24시간 비행중은 물론 비행 후에도 계속되며 때로는 불안감도 갖게 되기 때문에 타 직책이나 업무와는 달라 적절한 휴양이 필요한 것이며, 특히 고공비행에다 긴장에서 오는 과로가 겹치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욕구의 감퇴는 건강상 해를 미치게 되며 자칫하면 무리한 비행을 하게 되어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초래하기 쉽다고 본다. 따라서 전투조종사로서는 대부분 일정기간 후 휴양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정기휴가(연가) 자체도 부대 실정상 제대로 실시치 못하고 있어 매우 임무에 과중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라고 본다. 여기에 도표로서는 표시치 않았으나 조종사의 특별부식이라든지 영양 섭취면에서 보아 불만족한 표시를 했고 또한 의무지원 면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타 항공가봉(航空加俸)이나 조종사의 개인 특수 보급면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음을 첨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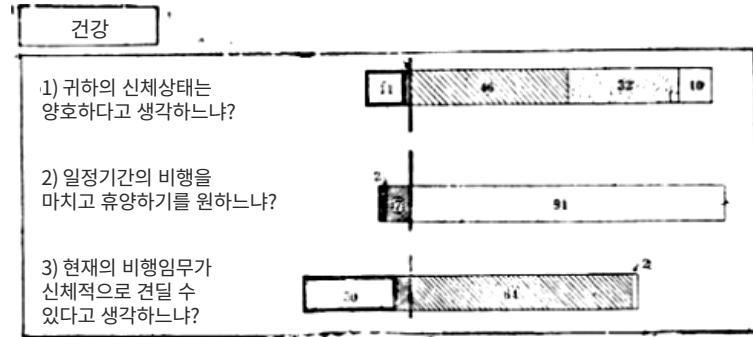


도표-V

결론

전반적으로 보아 전투조종사의 사기는 매우 높으며, 그 임무로 보아 어느 직책보다도 위험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하고 있었으며, 자기직책의 중요성과 작전 임무수행 상 다른 것에 앞서서 고려되어야 할 승리의 관건임을 굳게 보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정밀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특별히 인선(人選)되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고 오늘날 국군의「에리트」로서 과학의 첨단에 있으며, 또 젊음의 보람 있는 용감하고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현 실정 하의 부족한 보급 면이나 기타 모든 지원요소의 결핍을 극복하고 있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고로 같은 은익(銀翼)을 어제까지 맞대고 날던 전우를 잃는 일이 이따금 생겨도 오히려 분발하여 동료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자신을 가다듬어 더욱더 충천(冲天)하는 반공의식과 일격필추(一擊必墜)의 기량연마에 여념 없이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고 하늘을 일터로 싸우고 있음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었다.

끝으로 전투조종사의 사기는 모든 요소가 통합되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임에 앞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적절한 영양섭취,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수당(加俸) 및 비행용 개인지급품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검토하고 개선하여 일진월보(日進月步) 발전하는 과학에 뒤처지지 않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한표에
굳어지는새나라

선거 표어

사기양양(士氣昂揚)을 위한 나의 제언(提言)



박재호(朴在浩)

현대전의 양상이 아무리 과학화되고 무기의 전력이 고도화되었다 하더라도 고금을 통하여 전쟁을 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사람인 것임으로 우수한 장비와 능동적인 화력만이 필승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전이 핵전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강력한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적대의식의 고양과 전투의식의 조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져서 군사기(軍士氣)의 중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사기는 부대의 단체정신상이며 그 기풍을 말한다. 장병 각기의 사기가 왕성하여야만 부대는 활기를 띄울 수 있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지(保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도의 사기는 위기와 곤란에 봉착했을 때 용기와 인내를 부여하여줌으로 기대하는바 이상으로 적극적인 분투와 분발로서 막중한 대성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사기의 요소는 가치관과 의무감 그리고 협조정신에서 이루어진다. 사기의 양양은 지휘관의 용병지술(用兵之術)이며 또한 전략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각 지휘관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과 인격으로 부하 통솔지휘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 및 부대의 사기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충분한 상황 파악과 사기양양책(士氣昂揚策) 강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다음 몇 가지 생각하는 바를 열거하여 본다.

1. 적대의식과 전투의식의 강화

전쟁의 가치와 그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때 비로소

사기가 고도로 진작(振作)되는 것이다. 전투에 있어서도 장병으로 하여금 그 역할의 가치를 이해시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서 목적달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신조를 확립시키고 국가의 이념과 군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끔 조국의 생존권확보에 대한 교화, 전투 목적의 감화 등 정신무장 강화를 기하여야만 한다. 이는 부대교육훈련과 정훈교육(政訓敎育)을 통해 공산주의의 발광적인 무력침략 흥계를 폭로하여 그 허위 기만적 선전 선동을 분쇄할 수 있는 적에 대한 증오감과 저항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2. 진두지휘로 술선수범

지휘관의 일거일동은 부대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첩경이 됨을 우리는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지휘관은 항시 행동으로서 술선수범하고 최선단(最先端)에서 부하로 하여금 절대적 신뢰감과 강인한 인간성의 유대로서 무언중에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정신적인 기풍을 불어넣어 사기에 영향을 줌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

3. 신상필벌(信賞必罰)로 엄격한 군기유지

군기확립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군기는 군대의 명맥이며 그 기본요소가 되는 것이다. 군대만의 특징인 종적(縱的) 통수계통(統帥系統)은 엄격한 군기로 제약하고 군인정신을 함양시킨다. 군기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에서 우러나는 자율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신상필벌은 엄격한 군기유지와 지휘통수를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표창과 포상은 장병의 전투의욕과 적극성을 조장시키는데 긴요한 것이다.

4. 능력에 적합한 임무부여

부하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간은 자기의 임무가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봄으로써 자신이 생기고 자존심이 강해지는 것이다. 지휘관의 권위와 명예심을 위하여 능력이상의 임무를 무리하게 부여함은 금해야 한다. 하시하처(何時何處)에서나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위주의 임무부여와 동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지휘관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데서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5. 사병복지

사병에 대한 복지는 사기와 임무수행능력에 주는 영향이 큼으로 지휘관은 식사, 위생, 휴양, 오락,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행정, 조잡한 주위환경의 제거, 명량한 병영생활의 영위, 그리고 공무외의 개인사정의 적극적인 협조 등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병들은 민감하여 사소한 상관의 관심에도 곧잘 감격하여 사기가 진작된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유사시에는 지휘관 앞에서 자신을 도(賙)함을 불사한다는 결의를 굳게 갖도록 사병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6. 부하로부터 신뢰와 복종

이미 신뢰와 복종에 대하여는 언급한바 있으나 사기를 양양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휘관의 검소하고 청담(淸貪)한 생활, 고결한 인품, 모범적인 술선수범이 부하의 참된 복종을 유발하고 참된 존경과 외경(畏敬),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감을 일으켜 준다. 따라서 명령이나 지시가 없어도 자발적인 의사로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7. 고도의 장비 및 최대의 병참(兵站)보급

대량보복의 현대전에 있어서 우세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부합적응한 장비와 병참보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군의 사기는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신장비의 보유, 병참보급의 충족은 군사적인 우위뿐 아니라 크게 사기에 영향을 미치며 전투의욕과 필승의 신념을 굳게 하여준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전에 적응한 개인 및 부대의 교육훈련을 통해 관리 운영 및 기술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전투력을 배양함으로 사기를 크게 양양시킬 것이다.

8. 일반사회 환경

주위의 일반사회 환경이 수락되는 영향, 피폐한 경제의 영향, 정치영향 등 국내정세가 사기에 끼치는바 영향이 지대함으로 경계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반대로 적국의 부패한 정치상 및 사회제반상(社會諸般相)에 대한 비판으로 장병의 전투의욕을 자극시켜 사기양양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진상폭로를 위한 정훈교육(政訓敎育)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기양양(士氣昂揚)을 위한 나의 제언(提言)



유치곤(兪致坤)

1. 인간조직의 성격

조직이란 서로 상이한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일정한 질서 속에 결합하고 있는 규칙적인 상호작용의 양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란 인간 상호간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인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협동시키는 것이고 인간 상호간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공식적(형식적) 조직과 비공식적(비형식적)조직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공식적(형식적)조직이 직무상 권한 상 제도상 규칙상의 인간집단인데 비하여 비공식적(비형식적)조직은 권한이나 제도규칙에 의하지 않고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인간적 정서적이며 자연발생적이고 내면적인 인간집단이다.

따라서 형식적 조직에 있어서는 인간개인의 주체적 만족이 고려되지 않고 있지만 비형식적인 조직에 있어서는 개인적이고 보다 자연스러우며, 인간적인 개인의 주체적인 만족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고려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인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 정서적이며 내면적 결합인 비형식적 조직의 요소를 전연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 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형식적 조직성원의 주체적 만족을 도모하고 조직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군대조직은 제언할 필요도 없이 대표적 조직이다.

국방이란 엄숙한 목표수행을 위해 주관적인 의법적(依法的) 지배 복종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종적인 조직체계이다. 그것을 전투에 나가 견적필멸(見敵必滅)의 신념으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형태가 형식적인 것이어야 함은 물론 지휘관의 한 명령에 수천수만 부하가 일거에 움직일 수 있는 종적인 통수체통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조직일수록 형식적인 조직원리인 법률규칙이나 권위 강제만으로는 소기의 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성원의 주체적 만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주적이며, 내면적인 조직요소가 적절히 활용될 때 보다 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수천 휘하(麾下)장병을 통솔함에 있어 인간조직 원리인 형식성과 비형식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겠다. 군의 명맥인 군기의 유지와 철석같은 단결이 충천(冲天)하는 장병의 사기에 뿌리를 박고 있다면 군사기 양양을 위한 효과적인 시도는 앞으로 논급하게 될 비형식적인 인간관계의 금밀(鎔密)한 활용에서 출발해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2. 사기의 의의

사기에 대해서 일정하고 명백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집단에 속해있는 성원들의 귀속감(Group Identification), 자기직무에 있어서의 만족감(Job Satisfaction), 일을 하려는 적극적 의지(Willingness to work) 등 다양한 의미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 대표적인 산업사회학 및 사회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한 정의를 내린다면, 사기란 어떤 집단내지 조직의 성원들이 자기 자신들의 주체적 만족을 위한 결속으로서 집단내지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감정 및 태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군사기란 장병들이 군대라는 조직체내에서 자기에 게 주어지는 지위와 임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지니는 태도의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사기는 일할 의욕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대한 조직성원의 근로의욕의 문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군사기란 한마디로 표현하여 전투의욕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기의 양양이란 전시체제에 있어서는 필승의 전투의욕을 보다 더 불러일으키는 일일 것이요 평시체제에 있어서는 전투태세의 확립이란 지상목표를 위하여 전개되는 장병을 집무근무의욕을 고무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의 구조적 성인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사기양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안출될 것으로 믿는다.

3. 사기의 구조

인간의 행동이란 어떤 일정한 동기나 외부의 어떤 자극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의 전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례로서 인간개체가 지니는 독특한 제성질(諸性質)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대중(타자)이 주는 영향, 각양의 자극에 의해서 형성되는 일정한 동기에서 일련의 반응이 나타날 때 이를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C. H. Graham의 공식을 빌려 쓴다면 $B(S)=f(a,b,c,d,\dots,n,t,\dots,x,y,z)$ 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인간행동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 B는 행동, S는 반응, a,b,c,d는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자극) n는 자극의 회수, t는 행동의 시간, x,y,z는 개체의 주체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 대상인 타자(他者)에 대하여 어떤 일정한 행위를 기대할 때에는 우선 개체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도 그때그때의 사기의 주체적 상황과 객관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타자와의 제반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회 윤리적 요청 및 물질적인 조건에 따라 사기의 양상이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정비사가 정비의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이 정비사 자신이 정비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장래 자기실현(성공)의 좋은 기회가 되어(주체적 상황) 상관이나 전우나 하급자가 자기가 아니면 이 임무를 맡을 수 없다는, 또 맡아야만 된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요청이 있고(사회적 또는 윤리적 요청)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물질적 조건) 이 정비사의 직무의욕 곧 사기는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기의 구조적인 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사기는 개인의 능력차 내지 특성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 이것은 개인이 지닌 기능의 숙련도 경험 년수, 육체적 조건, 성별, 연령, 학력, 사회적 배경, 가족관계, 가치관계, 신념, 성격, 기질 등에 따라서 사기가 높아지고 저하되고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무장소의 기술적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술적 물리적 조건이란 작업장의 제설비 기계작업방법을 비롯한 조명 통풍 온도 습도 등의 제조건을 말한다.

셋째, 업무의 성질 내용 형태에 따라서도 사기의 정도는 달리 나타나게 마련이다.

넷째, 자기들이 제공한 노력의 대가로 받는 상대적인 보수 기타 대우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난다.

다섯째, 소속집단 성원간의 상호관계, 통솔 운영하는 감독자 및 지휘관과의 인간관계, 직무 및 직무권한 등 소속작업집단의 양태에 따라서도 사기는 높고 낮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소속집단의 전사회적인 위치와 평가, 속자(屬者) 조직체의 유무 등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언해 둔다.

4. 사기양양에 대한 제언

사기의 구조적 성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기의 양양을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다각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개별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휘자 혼자 힘으로 그 많은 휘하(麾下)장병에게 이 술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시켜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상관의 위치에 있는 부하들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제1차적 집단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좀 더 비형식적인 인간관계의 토대위에서 관찰하고 격려하고 선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부대전체의 사기양양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구조적 측면에서 전체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것은 한 묶음으로 간추려 부대의 일관한 공식(형식)적인 정책으로 반영시켜야겠지만 여기에서 제언(提言)하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사기양양의 조건을 속속들이 관찰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조성시켜주되 공식적인 권위나 강제를 떠나서 어디까지나 비형식적인 부드러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개인본위로 다루어져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지휘관은 자기부하의 그리고 부하는 지휘관의 주체적(개인적)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언제나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회를 부여해주고 개인 저마다의 욕구와 불만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야만 되겠다는 것이다.

상관은 부하가 자기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고 부하는 자기에게 가지는 상관의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똑바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조성될 수 있고, 직무의욕을 고무시켜 개개인 저마다『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는 뚜렷한 방향과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휘관은 부하들이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물질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몸이 불편한 부하에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픔을 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겠고 몸이 허약한 사병에게는 몸의 건강에 적합한 근무처를 마련해 주는 알뜰한 친절 같은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셋째, 업무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적성이나 성격 특기 능력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부책응권(賦責應權)(Delegation of Authority)의 원칙을 살려 응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겠고 능력에 지나친 업무의 요구는 삼가야 되겠으며, 일단 맡긴 업무는 자기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는, 참으로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지휘관은 부하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칭찬과 감사와 격려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비록 조그만 일일지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일을 마쳤을 때는 모든 것이 저마다 자기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하겠다.

자기의 주무완수를 위해 남다른 정력을 쏟은 사병에게는 조그만 특혜라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고 착하고 미더운 일이 있으면 남이 보는 앞에서 치켜 칭찬해 줄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다섯째, 지휘관은 부하장병을 아들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아픈 사병이 있으면 업어다 뉘 수 있는 성의와 사랑의 손길이 있다면, 그 지휘관이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 바쳐 섬길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장병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언제나 면밀히 관찰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요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갈등, 부도덕한 행위 등 온갖 악질적인 요소를 뽑아버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란 이성에 의거하느니보다는 감정에 더 많이 지배된다는 상리(常理)를 잊지 말고 기초적인 인간관계에서부터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고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권위만을 행사하는 지휘자에게는 오히려 자주적인 조직이 반항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공히 인정해야 할 것이며, 모든 명령에 대한 복종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에서 우러나오도록 상신애에(上信下愛)의 숭고한 윤리관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겠다. 모름지기 상관은 계급장 없이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자동적인 복종을 가져올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며 부하는 진정으로 상관의 신임을 받을 자격이 있고 진심으로 복종의 지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할 것이다.

63년도 상반기 범죄 및 군기위반분석(軍紀違反分析)

이인영(李仁榮)
〈공군대위〉

5.16 이후 군 관계 범죄는 현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질적으로 악성화 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공군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원인의 구명과 대책의 강구가 시급한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공군의 범죄현상은 어떤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또 어느 것이 감소되고 있는가 어떻게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는가 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인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에 예거(例擧)하는 범죄 및 군기위반분석은 당군(當軍)의 63년도 상반기분으로 전기한 요청에 부응하여 범죄 예방대책자료의 확보와 아울러 범죄 현상과 범죄 심리 등 각종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적절한 범죄대책을 세우는데 다소나마 밑받침의 역할이 된다면 다행이겠다.

1. 기간 중 일반범죄는 359건 발생에 345건 검거로서 96%의 검거실적으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면 발생이 10%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검거가 10% 감소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발생에 대한 검거의 저율(低率)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음 죄과별 발생통계와 같다.

범죄를 죄과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전체사건의 20%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19%가 감소 발생되었고, 절도가 34%, 자살이 30%, 사기횡령이 13%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군무이탈이 20%, 무단이탈이 20%가 감소되고 여타범죄는 대차(大差)가 없다.

특히 63년도 상반기 중 군무이탈이 41명으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면 20%(200명)가 감소된 이유는 63년 24분기 중 당군 자체로 군무이탈방지 및 체포기간을 설정 코 단속을 함

으로서 여사(如斯)한 현상을 시현(示顯)시키고 있으며, 또한 발생에 대한 130%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그 군무이탈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정신적 이완 둘째, 가정사정 셋째, 허영과 유희 등으로 능력외의 금품거래 및 과오 등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신문화 및 정신교육 군법교육의 강화
나. 각급 지휘관은 특히 휴가 출장 외 출자에 대한 사전 신상파악 철저로서 미귀(未歸)로부터 발생하는 군무이탈자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수립
다. 내무생활과 복지시설의 향상
라. 공개재판제도로써 물리적 사병에 대한 경각심의 환기
2. 각종범죄를 원인별로 보면 금욕이 전체의 45%로 수위(首位)

를 접하고 다음은 과실(過失) 사감(私感) 명정(明正) 염군(厭軍) 염세(厭世) 가정사정 등의 순위이며 원인별로 보면 각종 죄과는 도표분석과 같다.

3. 계급을 대별(大別)하여 죄과를 분류하면 영관급(領官級)에 있어서는 폭행사고자가 4명으로 수위(首位) 다음이 재산범이며 위관급(尉官級)에 있어서도 폭행사고가 14명으로 수위 다음이 재산범, 군무이탈 등의 순위이며 하사관급에 있어서도 역시 폭행사고가 35명으로 수위이고 다음이 재산범 군무이탈 과실치사상 등의 순위이고 병급(兵級)에 있어서는 재산범이 75명으로 수위이고 다음이 군무이탈 통행사고 과실치사상 자살 등의 순위이며 기타는 도표분석과 같다.

4. 기간중 처리된 인원은 574명으로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10% 증가이며 이들에 대한 처리는 군법회의에 기소 처리한 것이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12% 증가하고 징계처리에 9% 감소됨으로서 군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 현상이다.

5. 기간중 안전사고는 53건으로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면 20%(13건)가 감소되고 이를 사고종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45건으로 수위 다음이 오발사건 실화(失火)사건 폭발사고 등이며,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실화사건은 감소된 반면에 오발사건은 증가되었다.

특히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가 30건으로 66%, 과속이 6건으로 13%이며 인명피해는 군인이 16명 민간인이 60명으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36%가 감소된 현상이다.

6. 기간중 군수물자 피해는 200만여원으로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60%가 증가되었으며 피해에 대하여 48%에 해당되는 81만여원이 회수되었다. 피해를 물자별로 보면 병참(兵站)이 81만여원으로 수위이며 61년도 상반기

기에 비하여 40%가 감소되었고 다음이 공병(工兵)으로 52만여원의 피해로서 26%가 감소되었으며, 병기(兵器) 통신의 순위로 각각 감소되었으나 이 반면에 화학물자의 피해가 증가되었다.

범죄예방책수립

- (1) 혁명 후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에 있는 군수물자 부정사건을 철저히 방지하고 이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하여 군수물자 단속지침을 수립대책중이다.
- (2) 민정이양(民政移讓)을 앞둔 시기의 혼란과 급작스러운 물가고로 제반 군사 범죄는 또한 필연적으로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장병문관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방안 및 예방책을 수립하여 실시중이다.

7. 군풍기(軍風紀)

63년 상반기중 군풍기 위반자 총수는 425건으로서 62년 상반기중 1,576건에 비하여 73%가 감소되고 있는바 이는 장병들의 자질과 각급지휘관의 철저한 교육 및 감독과 헌병의 중점적 활동단속 및 적발주의를 지향하고 선도교정(先導矯正)을 위주로 한데 기인되고 있다. (별첨통계참조)

방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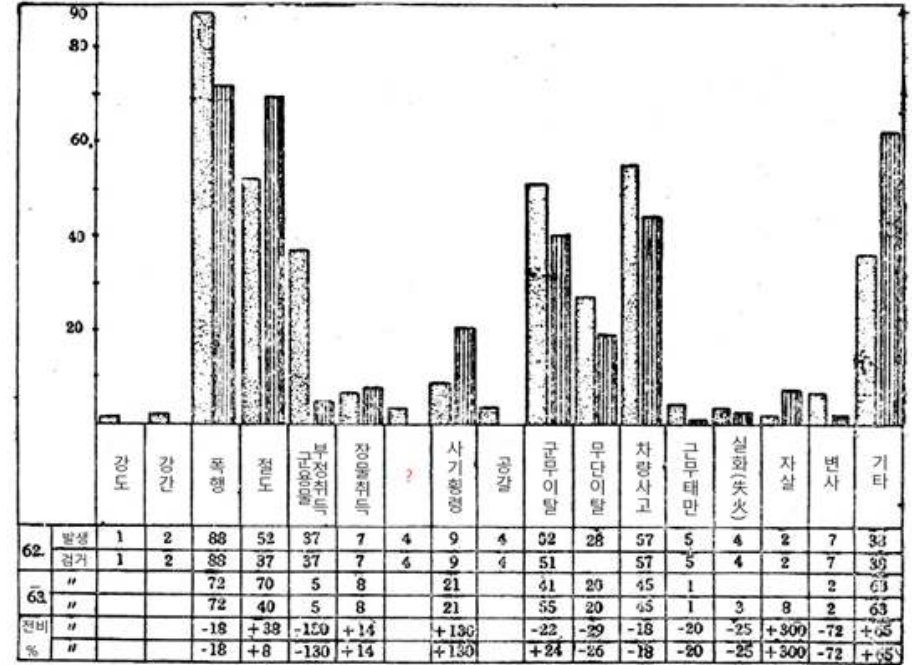
가. 각급지휘관

[군기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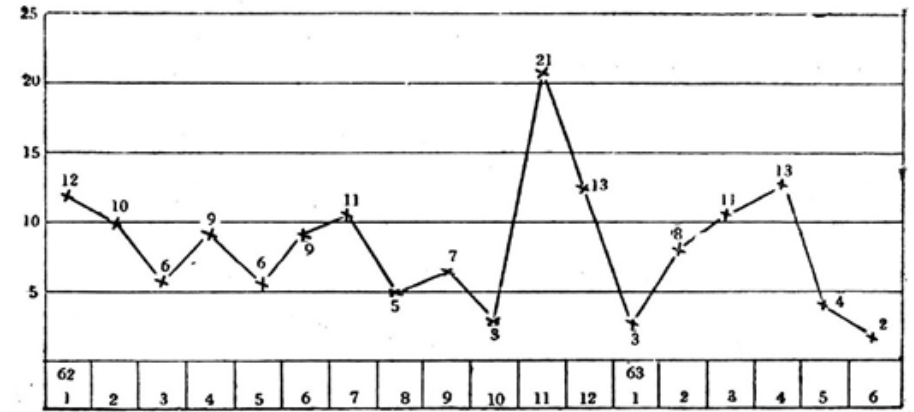
- (1) 상급자에 대한 적발교정의 이행
- (2) 내무교육을 통한 정신교육의 강화
- (3) 휴가 및 외출의 공정 실시
- (4)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권 행사 및 내무에 대한 부대교육 실시
- (5) 병영생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병영생활의 개선

나. 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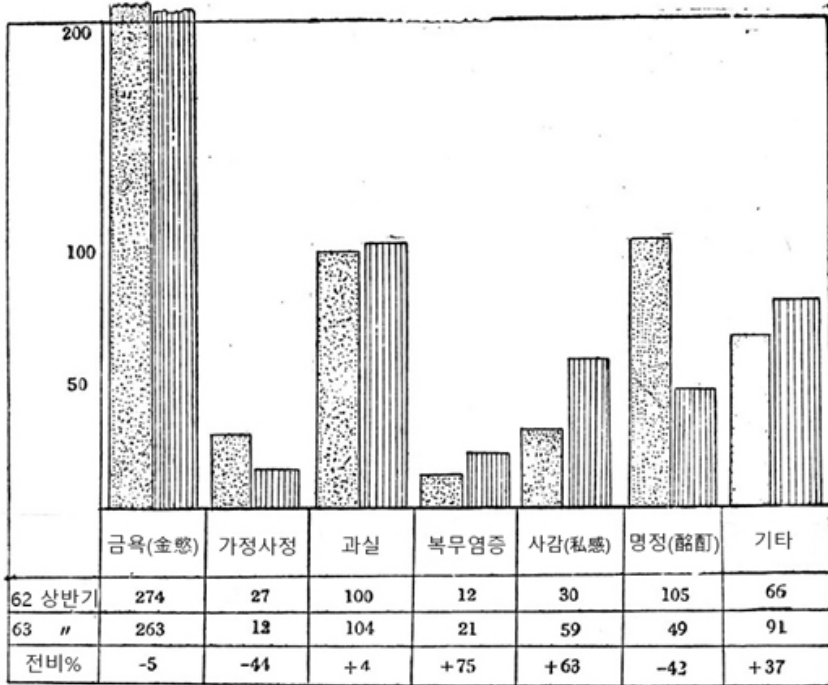
- (1) 중점취체(重點取締)강화
- (2) 친절 선도교정 계몽선전활동 강화
- (3) 위반자를 모두 소속대에 통보함으로서 부대교육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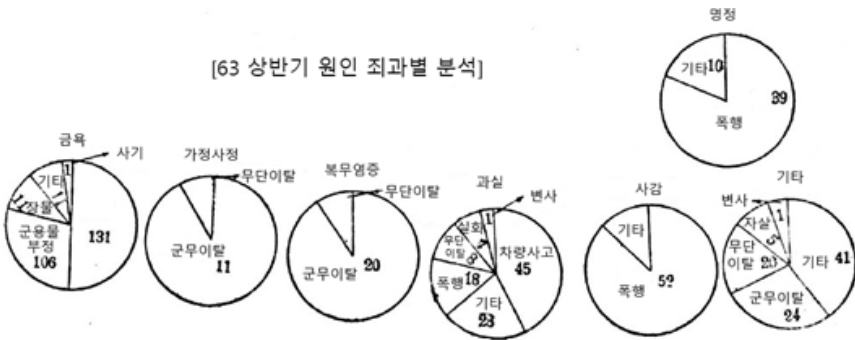
군무이탈 월별 발생 통계



범죄원인별 통계(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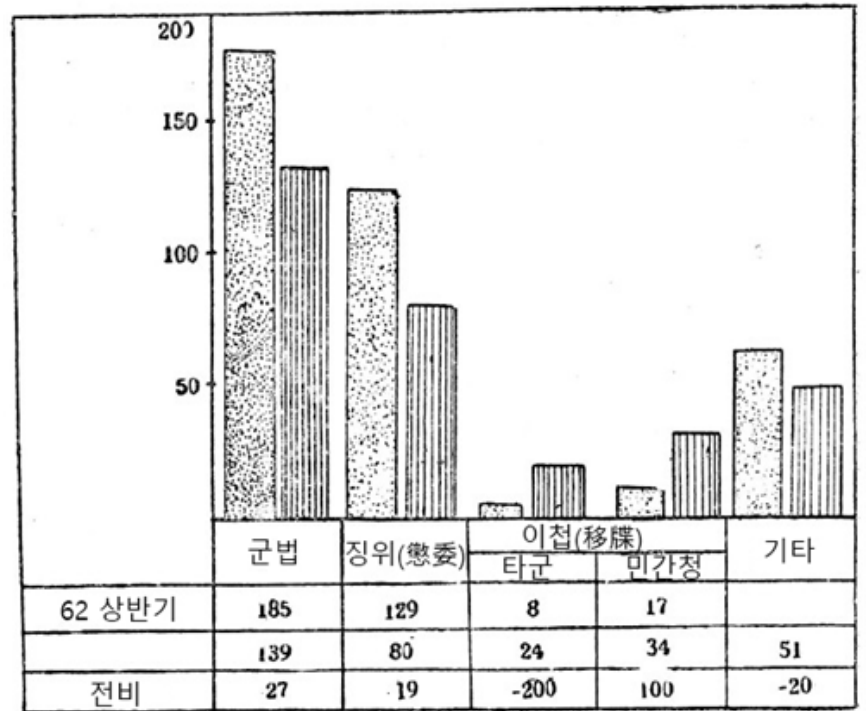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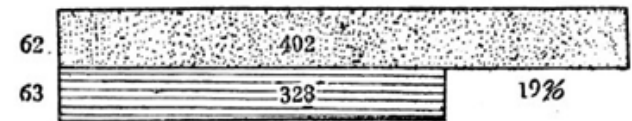


[63 상반기 원인 죄과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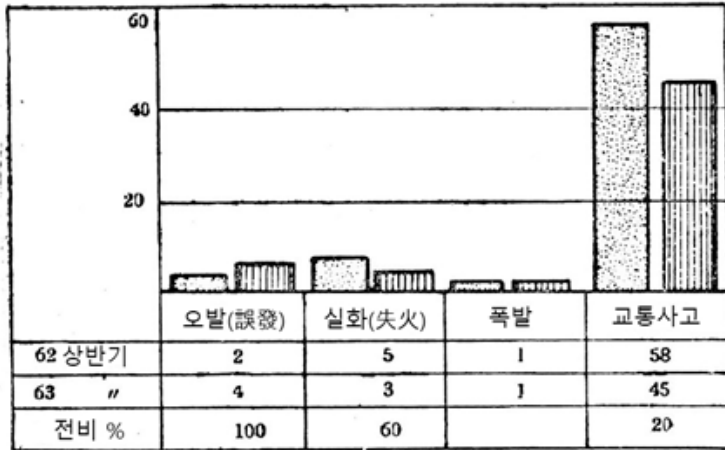


63 상반기 계급별 죄과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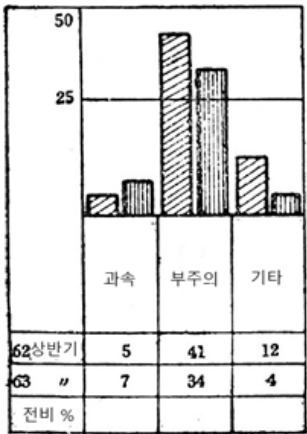
죄과별 계급별	강력범	재산범	군무이탈 및 무단이탈	지상 안전사고	자살 및 변사	기타	계
영관(領官)	4	3		1		1	9
위관(尉官)	14	8	3	1	1	17	44
하사관	35	28	12	8		9	92
병(兵)	35	75	58	34	7	51	260
기타	24	135	11	5	2	17	194
계	112	249	84	249	10	95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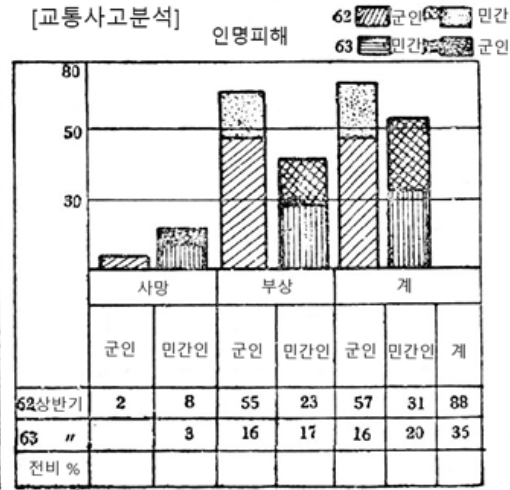
안전사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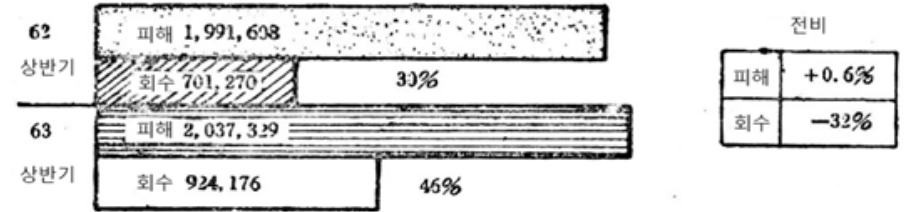
원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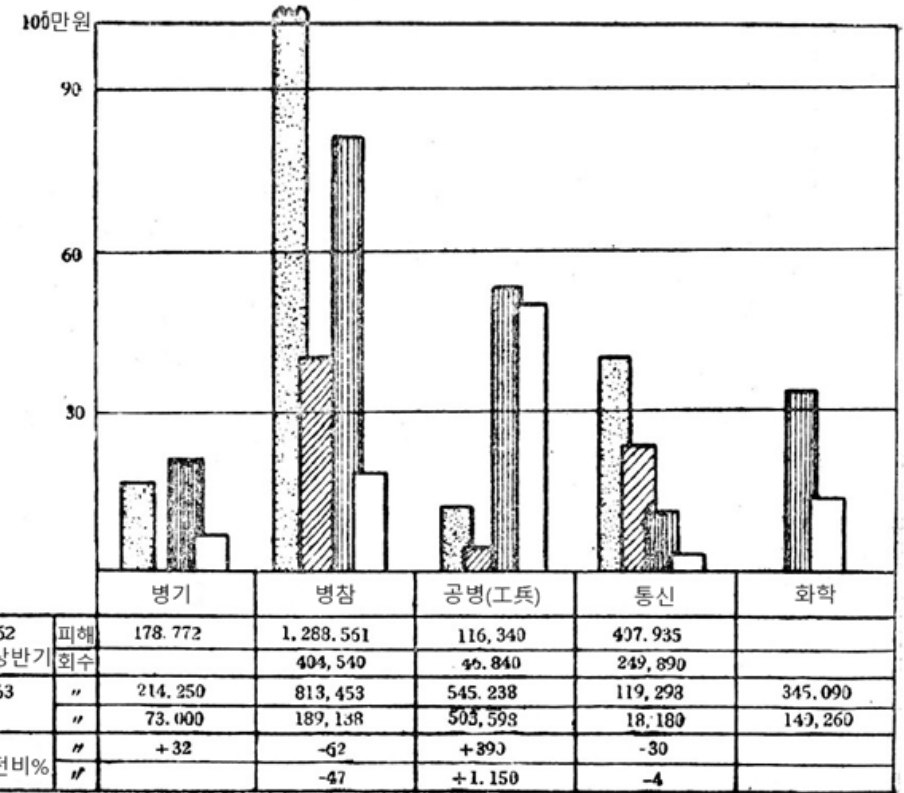
[교통사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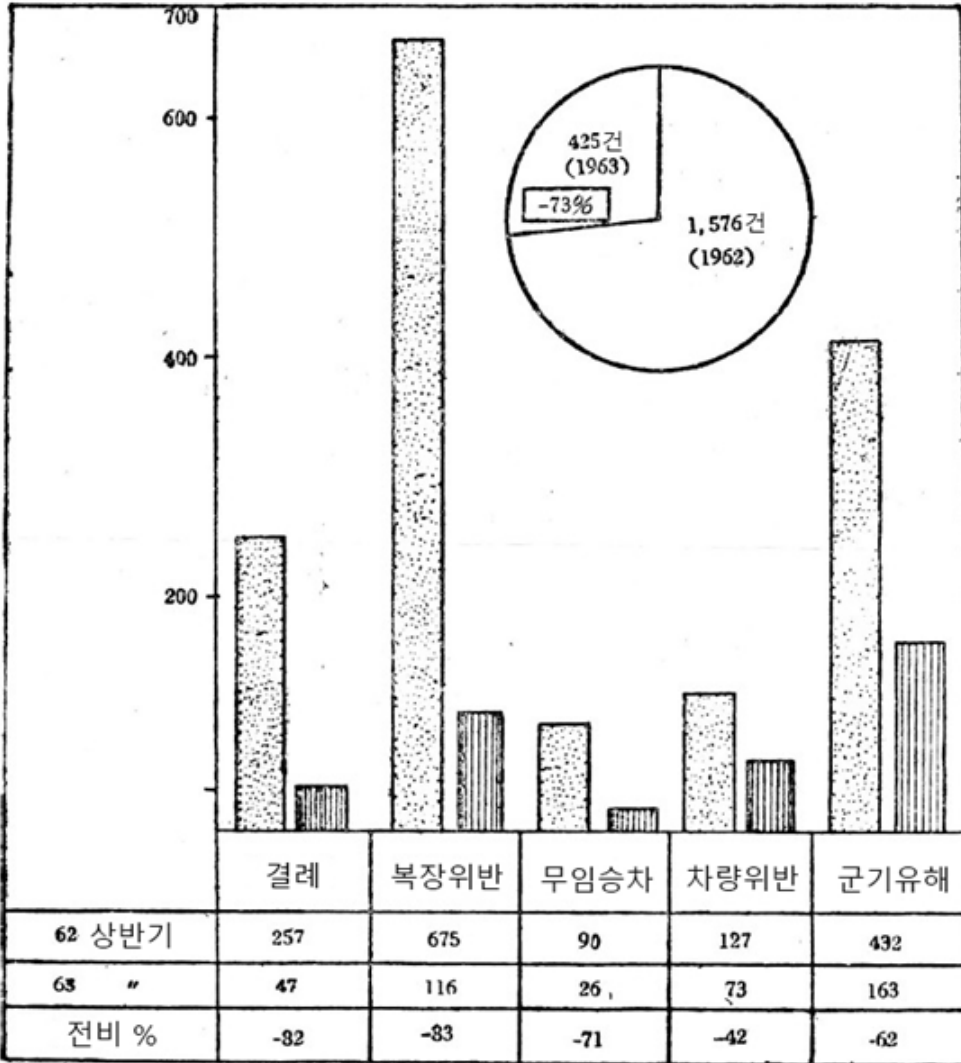
군수물자 피해회수 통계



전비	
피해	+0.6%
회수	-32%



군풍기위반통계



군대와 계급(階級)

신오현(申午鉉)
〈공군 소위〉



1. 서언

「군대와 계급」이는 군대사회의 특수성과 계급의 본질을 현실적인 연관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암시해주는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개념들이다. 그만큼 우리는 계급 없는 군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또 군대만큼 계급의 의미를 여실하게 실증해주는 사회도 드물 것이다. 계급은 군대사회를 연결하고 움직이는 중추 신경인 동시에 군대의 성장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동력이다. 따라서 계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의 정당하고 적절한 행사는 군대사회의 존망(存亡)을 판가름하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군대사회에서 차지하는 계급의 위치와 그의 의미를 몰아야하는 과제의 필수성에 부딪치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본 소고(小考)는 계급의 의미와 근거 및 그 한계선을 평명(平明)한 상식의 입장에서 이론적인 정초(定礎)를 시도하려는 터이다.

2. 계급의 의미

무릇 인간사회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발전해왔고, 이것은 사회의 복잡화를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즉 단순한 자연의 상태에서 복잡한 인간조직의 사회상태로 분화 발전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복잡화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질서유지는 자연 질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질서가 요청되었고 이 같은 인위적인 질서유지의 단적인 표시가 곧「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계급」의 제1의(義)는 인간사회의 질서유지에 있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계급은 결코 인간본질적인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간의 외적인 생활, 즉 하나의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을 운위(云謂)할 때에만 공산주의가 말하는 계급의 의미와는 전혀 이단적(異端的)인 민주사회의 계급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립할 수 있는 터이다.

그러므로 계급 없는 사회란 인간이 지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무정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현실에서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원시공산사회」는 현재의 현실로서는 바로「원시공산사회」임을 면치 못 하겠다. 인간은 결코 인류전체가 희망하는 최고최선의 완전한 이상적 존재로서의「신」일수도 없거니와「시간과 공간」이라는 유한자(有限者)에 포괄된 감성적 현실계에 필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육체적인 존재로서의「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자의적이며 무원칙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단편적 현실에서 완전한 통일성으로서의 인류의 이상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현실사회에 있어서 질서유지는 인간의 자발성에 의한다기보다는 집단의 계약으로서의 하나의 권위에 의존하는바 크다 아니할 수 없겠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하나의 법(자연법에 대치되는 인위법(人爲法))이 성립되고 이것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곧 사회적인 계급이다.

더욱이나 명령의 복종을 그 생명으로 하고 이의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단일하고 수직적인 명령계통이 최고도로 강화되어 있는 군대사회에 있어서 계급의 필요성이란 재언(再言)을 요(要)치 않는다. 명령계통 자체가 철저히 단계적인 계급서열을 전제로 한 것이거니와 더욱이나 개인의 복지보다 집단, 그것도 최고의 집단인 국가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만큼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특수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행동의 강요도 불가피하게 되는 고로 개인보다 단체가 양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고 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계급의 힘이라면 어느 사회보다도 군대사회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아니할 수 없겠다.

3. 계급의 근거

상술한바와 같이 계급은 단적으로 군대사회의 특징을 대변하는 유일의 상징이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개인의 모든 능력보다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이 계급이란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계급은 계급이다」라고 소위 무식(?)한 군인들이 주장하듯이 계급은 그의

근원이나 근거를 물을 수도, 또 물을 필요도 없을 만큼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절대 권력인가? 아니면 그러한 주장들은 다「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인 시대착각에서 오는 망언이오 인지의 발달의 결과이며, 인본주의(人本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아무리 군대라 하더라도 민주이념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며, 계급의 권위에 대한 근거성립도 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발달된 민주주의는 여하한 개인의 독단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의 지혜로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어떠한 권위도 배격한다. 계급의 권위도 그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아무 이의 없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이라면 정의의 기치아래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급의 근거는 우선 철두철미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필요충분 조건하에 제약되며 계급의 행사는 이 근거 위에서 분수에 맞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권위의 근거성립은 계급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계급의 의미가 1차적으로「사회질서유지」에 있음을 살폈다. 그렇다면 계급의 근거 역시「사회질서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계급의 근거는 개인적인 요소가 아니고「사회적」「공익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계급권위는 결코 어떤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주의일수는 없고 이 모든「특수아(特殊我)」를 대변하는「보편아(普遍我)」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당위에 직면한다. 따라서 계급의 권위는 무수한 특수아의 대변자 그러므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바로 국가주권으로부터 발원한다. 그러므로 계급은 그 소지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원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잠정권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계급소지자의 개인적 본질과는 별개의 것이며 결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한계도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 계급 자체는 그 계급소지자의 개별적 능력이나 자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위임된 일방적인 권위인 것이다. 개인은 다만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충실히 그 직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민주국가에서는 최고권위자라 하더라도 국민의 약속인 주권의 노복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소지자는 그 계급에 대한 적절한 권력 행사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항상 개인보다도 그 계급의 근거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계급자체의 권위를 위하여서는 과감하고 충실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대령(大領)」은 대령이란 계급자체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본질이「대령」이 아니라 이것과는 무관하게 아니 이보다 몇 천배나 더 귀한「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계급을 특권으로 과대평가해서도 안되고 또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멸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국가주권으로부터 시원한 것인 만큼 계급자체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의 주권은 자기 아닌 타인이나 어느 특정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를 포함한 전체아(全體我)로서의 국민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국가권위에 대한 복종은 결코 타자에의 예속이나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로 전체아로서의 자기 자신에의 복종, 즉 자기 의사 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민주군대는 결코 어느 특정인이나 특수집단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구성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인 것이다. 따라서 군대사회의 각 성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이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권위도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계급이나 군대자체에 대해서 조금도 불쾌감을 느끼거나 이단시할 필요는 없다.

4. 계급의 한계

이와 같이 계급은 군대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막중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나 만큼 그 배경도 국가라는 최고 권력체를 등에 업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 무한정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급의 권위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것이고 국가는 그 자체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통일적이고 전체적이며 항구적인 복리를 위하여 계약에 의한 가구물(假構物)에 불과한 것이라면 계급의 권위도 필연적으로 그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계급자체가 국가위에 근거하고 또 국가는 개인 위에 근거한다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계급의 근거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즉, 계급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주권은 국민의 집단 의사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개인 의사의 종합통일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의사는 개인의 특수사보다 우위에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근거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주권은 결코 그의 원주체인 개인의 인격을 능가할 수는 없으리라. 국가 없는 개인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있으나 개인 없는 국가란 존재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발생적으로도 국가보다는 개인이 선행하고 본질적으로도 개인의 부분적인 측면들의 종합인 국가보다는 자체가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결과적인 면에서는 국가는 개인보다 우위를 점하지만 원인의 면에서 본다면 개인이 국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의 최고급에

속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본질적인 측면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에 속하는 것들 즉 전혀 개인적인 것에 관계하고 타자(他者)에 손익을 끼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는 아무런 권위도 갖고 있지 않다. 민주국가에서 신앙, 거주,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다. 존·스튜어트, 밀이 갈파한 바와 같이 여하한 집단의 이름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희랍인들은 집단의 이름으로 「지혜의 지혜자」인 「소크라테스」를 「무지혜자」란 죄목으로 독배를 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대중의 이름 아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인류역사상에 가장 치욕적인 두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로 계급은 그 권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는 점에 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개인에게 주어진 계급은 결코 그 개인에게 무제한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요, 그 개인자체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계급의 행사는 오직 위임받은 사항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계급을 자기 자신의 본질과 동일시하여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반대로 분별없는 자만감에 도취한다는 것은 천만 부당한 것이다. 마치 「대령」의 계급을 소지한 자는 자기본질의 대령급에 속하는 것처럼 공무집행이나 사생활에나 무제한적으로 대령행세를 하려한다면 망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일등병이 자기 부하였다고 해서 마치 일등병의 계급이 그 인간의 본질을 대표하는 것처럼 영구히 일등병으로서의 자기 부하로만 보는 자가 있다면……. 대체로 인간은 하나의 우주로서의 개별적인 존재요, 동시에 타자와 공존하고 있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은 철두철미 자기 자신에 게만 관계하는 본질적인 측면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활하고 교통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구유(具有)하고 있다. 이 양자는 어느 것이나 고유한 특성과 영역을 갖고 있으며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면은 바로 생명이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듯이 이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선행하는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일질의 양적측정, 비교, 평가를 불허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의는 전적으로 여기에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본질적인 면이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나」 아닌 타자의 본질적인 측면도 나의 것과 똑같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권존중이니 자유의 고귀성이니 하는 구호들이 탄생하고 인간관계 사회관계와 관여하는 인간의

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성립한다.

앞서 논해온 계급이란 것은 인간의 이와 같은 두 측면중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측면 즉 기능적인 측면에만 관계하며 본질적인 것에는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이 아무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의 행사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무제한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극히 유한한 부분인 기능적인 측면 즉 무한한 본질의 유한한「현상」에만 국한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생활태도 즉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동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다. 직업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는다든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한다는 것은 다 이러한 면과 관계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진대 상계급자는 하계급자의 인격적인 국면에까지 계급의식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하계급자는 상계급자에게 일시적인 안일과 출세를 위해서 인격적인 면에까지 굴종의 태도로써 아첨하지 말 일이다. 이러한 봉건사회의 관료주의적 잔재는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상하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형식을 목약적인 관례화함으로써 시간과 생활의 낭비를 자초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능적인 면을 벗어난다면, 더욱이나 그것도 공무의 영역을 벗어난다면 이미 계급은 무의미, 무기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지각한 자 중에는 마치 자기 자신이「대령」으로 태어나고 적어도 자기의 능력으로「대령」이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거나 한 것처럼 이등병 같은 것은 영구히 자기의 부하에나 속할 천하의 약자, 하찮은 미물처럼 백안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귀족이 노예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식자(識者)가 무식자(無識者)를, 성인이 소아를, 선생이 학생을, 힘센 자가 약자를, 건강한 사람이 병자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것과 같은 가장 악질적인 근성인 것이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암적 존재요 인도주의의 구적(仇敵)이다. 이러한 장애 때문에 군대사회는 정상적인 인문관계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인문의 성장과 인간의 발달에 비례하여 독창적인 발전과 다양화의 각광을 받지 못한 채 한결같이 구태의연한 형식과 악습을「전통」이란 이름아래 악착스리도 고집하고 있다. 결과는 무엇인가? 썩은 송장이 가득한 찬 무덤을 금광처럼 애지중지해 보았자 그것은 빈 무덤에 불과한 것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이리하여 오늘날 군대사회는 급진하는 민주발전의 대열에서 낙후한 이단자(異端者)의 낙인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군대도 시대의 추세와 더불어 발달 성숙해왔지만 아직도 그 길은 멀고 아득하지 않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군대는 특수한 사회요 따라서 이 사회의 구성원인

군인은 본질적으로 특종의 인간인 것처럼 자타가 오인하고 있는 것은 웬일인가? 군대사회는 사회 아닌가? 군인은 사람 아니고 무슨 별세계의 인간들인가? 군대는 음미와 비판의 대상에서 면제된 신화적인 존재인가? 특하면「군대에서 무슨……」「군인이 무슨……」운운하는 식으로 만사를「군대」에다 전가시켜버리는 것이다. 마치「군대」라는 것이 만사형통의 마술사의 방망이나, 전지전능의 신이나 되는 듯이…….

물론 군대사회에도 특수성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군대사회」는「군대+사회」요,「군인」은「군+인」이다. 즉「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정의고 최극류개념에다 종차(種差)를 플러스한 것이다.「군대사회」는 군대라는 종차를 사회라는 유개념(類概念)에다 덧붙인 것이요,「군인」은 인간이란 유개념에다「군」이란 종차를 덧붙인데 불과하다.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사회」와 인간이란 유개념이요,「군대」나「군」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특수성에 지나지 못한다.「군대」가「사회」를「군인」이「인간」을 넘어설 수 없음을 속성이 본질을 종차가 유개념을 능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군대사회도 사회의 법칙과 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군인도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군대사회」에서「군대」라는 특징이나,「군인」에서「군」이라는 특징은「사회」와「인간」에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공복지의 양적문제를 떠나서 계급은 존재치 않는다. 아무리 군대사회라 하더라도 이 이상 계급의 타당성의 범위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간 본질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나마 계급의 의미와 근거와 그 타당성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전개해보았다.

군대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급은 존재하고 그 막대한 권위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그러기에 그 타당한계는 공무집행에 한정된다. 군대사회도 하나의 사회인만큼 거기에는 인간의 집단이 전제되어 있고 인간관계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군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외적 양적 척도가 계급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계급이 군대사회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인간관계의 원만한 수행이 집단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결을 낳는다면, 그리고 군대의 인간관계가 계급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계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거기서 출발하는 정당한 계급행사는 단적으로 군대사회의 생명이라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적(敵)을 알자

공산각국을 움직이는 괴수(魁首)들



<그들의 출생, 행적, 성격>

이들 괴수들은 공산세계를 움직이는데 끝이지 않고 항상 자유세계를 정복하려는 획책(劃策)을 쉬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곧 우리 자유민의 적이며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조성식(趙誠植)

① 흐루시초프 <소련>



<흐루시초프>

「흐루시초프」는 1894년에「우크라이나」근방에 있는「구루수쿠」현의 탄부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유년시절에는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과「돈바스」탄광에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빈곤하였다. 1917년의「러시아」혁명당시에 일 노동자로서 혁명에 참가하여 이 지방의 청년들 가운데서 우수한 역량과 적극성을 발휘한 탓으로 1918년에는 공산당에 입당이 허용되었다. 이때부터「흐루시초프」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등장되어 1929년 35세 때에 스탈린 공업대학에 입학하여 각종 이론의 탐구에 전념하였다. 재학당시 대학 내의 당위원회 서기로 추천되어 활약하였다. 이 당시만 하여도 많은 대학생 중에는「트로츠키」,「부하린」파를 지지하여「스탈린」파에 반대하는 자가 많았으나「흐루시초프」는 단연(斷然)히「스탈린」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또 헌신적으로「스탈린」파를 추천하여 그의 노선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것이 출세의 기틀이 되어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는 그를 일약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에는「모스크바」시 당위원회의 제2서기를 거쳐 38년도에는「우크라이나」당 서기장, 39년에는 당정치국원에까지 등용되었다. 독소(獨蘇)전쟁시에는「스탈린」의 추천으로 일약 육군중위란 직책을 부여받아「우크라이나」의 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곳 방위에서 다행이도赫赫(赫赫)한 성과를 거두어 독일 나치스를 물리치고「우크라이나」를 충실히 방위하였다. 그 후 1944년에는 군사직에서「우크라이나 공화국」인민위원회의장을 거쳐 1947년에는 그곳 수상에까지 승진하였다.

「흐루시초프」의 기민하고 요령 좋은 인품을 높이 신임하여「스탈린」은 1949년에「모스크바」로 소환해서 가장 중요 직책인「모스크바」주당(州黨) 제1서기로 등용하였고 1952년에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라는 최고직에까지 승진시켰다. 이때까지「스탈린」의 심복으로서 많은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야심만만한 「흐루시초프」는「스탈린」의 철저한 개인숭배사상과 광폭(狂暴)한 독재사상에 반감을 품기 시작하였고 특히 농업정책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점점 양자간에는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다.

1952년 8월경「흐루시초프」는 농촌의 농민생활의 빈궁상(貧窮相)을「스탈린」에게 직접 간언(諫言)하여 농업정책의 시정책을 권고한바 있었다.「스탈린」은 격분하여「당신이 농업정책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부질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흐루시초프」를 멸시하고 중오하기 시작하였다. 이 원인은「스탈린」의 후계자 문제로 측근자들이 「흐루시초프」에

우리의 적을 알자

대한 비방중상(誹謗中傷)을 일삼았던 만치「스탈린」의 미움을 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내력이 강하고 처세술에 능한「호루시초프」는 묵묵과언(默默寡言)으로 자기 일에만 충실하였다. 1953년 3월「스탈린」의 사후에는「스탈린」의 직계과인「마렌코프」, 「모로토프」, 「불가닌」, 「쥬코프」를 물리치고 드디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겸 수상직에 등극하여 명실공히 집권자가 되었다. 「호루시초프」의 성격은 쾌활하며 조력(助力)과 식견이 탁월한 점이 있으며, 임기응변으로 기지가 풍부하고 남을 야유하고 희롱하는 성격과 기묘한 격언 등을 인용하여 인심을 유인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야심만만한 전략가이며 연극의 연출가와 같이 허풍을 잘 치는 호담(豪膽)한 풍운아이고 광적인 부장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성질이 호탕한 대음주가이기도 하다. 십여년 전에는 대연회나 주연(酒宴)이 있을 때마다 만취하여 폭언과 추태를 부리기가 일수였다. 더욱이 만취되어 상처까지 입은 일이 있었다. 23년 전부터는 음주에 대한 근신과 건강에 유의하여 음주의 후화(後禍)를 일반인에게도 선전하고 체질에 대한 해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하여「모스크바」및 기타 도시의 주점을 제한하고 판매량까지 제한하여 법문화 하였다 한다. 이렇듯이 음주에 대하여도 결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한 것과 같이 호탕하고 기지(機智) 있는 성격으로 정치면에서도 자기 마음먹은 결단력을 이루며, 개인승배의 폐지, 「스탈린」각하, 평화공존정책 등, 여하튼 세계의 주목을 야기 시킬만한 연술을 실시하고 있는 야심만만한 독재가 이다.

② 모택동(毛澤東) <중공>

모택동은 1893년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중농가의 자식으로 탄생하여 그곳의 한 서당에서 면학하였고, 1913년부터 1918년까지 중국 장사(長沙)라는 곳에서 호남성립 제1사범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북부지방을 여행하여 국립북경대학 부속도서관의 조수를 몇 년간 하였다. 이곳에서 처음으로「맑스」주의에 관한 서적을 독파한 것이 공산주의자로 변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1921년 5월 중국공산당 결성을 위하여 상해에 집합했던 12인중의 한사람이었으며 이 곳 상해회의 후 호남성에 귀향한 모택동은 곧 당기관(黨機關)을 설치하고 향리농민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5년부터 1927년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이 손문(孫文)과 장개석(蔣介石)이 인솔하는 국민당과 협력하였을 때 고급 선전원을 역임하였다. 장개석 총통(總統)은 이 당시 공산당이 민족주의운동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기색을 감촉하자, 1927년 공산당과 결별하여 많은 인원을 인솔하고 별도로 국민당을 강화하고, 이곳에서 떨어져나간 모택동은 몇십명의 패잔병을 규합(糾合)하여 강서성(江西省)의 산악지대에 칩거하고 국민당정부에 대전하기 위한 공농홍군(工農紅軍)을 조직하였다. 일1930년에는 공산당 및 군의 적대자에 대한『피』의 숙청(肅清)을 자행하여 당 전체의 지도권을 획득하였다.



<모택동>

이때가 1935년 당시이다. 그간 국민당군의 섬멸(殲滅)작전에 위협을 느껴 1934년부터 1935년에 걸쳐 소위 유명한 일만리장정(一萬里長征)을 감행하여 도망행각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는 협서성(陝西省)을 공산당 수도로 정하고 그 당시 진행 중에 있던 중일전쟁을 이용하여 농민을 규합하는 한편, 공산군의 강화를 기도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팔로군(八路軍), 신서군(新西軍)을 조직 강화하여 항일운동과 항일전선을 확대하고 중국의 대륙에 공산당조직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중국대륙에 내란을 제발시켜 국민당 군을 격파하고 1949년 드디어 공산당이 중국지배권을 탈취하였다. 모택동은 순 농촌출신이나, 인테리형이며 소년시대부터 논어맹자는 물론 수호전, 삼국지 등 많은 독서를 탐독하고 저서도 있다. 즉 지구전론(持久戰論), 신민주의(新民主義), 모순론(矛盾論) 등이 있으며 해외유학조차 없이 중국내에서 순전히 면학하고 국내를 주유(周遊)하여 각지 민심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였다. 이것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 원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택동은 독서가이며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다. 그의 성격은 인내력이 가장 강한 것이 특징이며, 고집에 있어서도 가장 강하기 짝이 없는 고루한 완고분자이다. 자존심이 강하며, 영웅주의적인 성격과 설득력이 강한 자이다. 항상 지방을 순회하여 민중을 설득하며, 농민들에게 접촉하여 자기의 지도력을 침투시키는데 몰두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생활에 있어서는 유례없는 호색가이며, 변태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의 처음 처는 국공당시 국민정부에 포로 되었으며, 그 후 공산당원인 하사정(賀士貞)이란 여자와 결혼하여 1937년에 이혼하고, 39년 상해에서 여우(女優)생활을 하던 란핑과 3차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3년 후에는 또다시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러므로 이복자식이 5명 이상이나 되며 가정생활은 복잡다단하다한다. 지금도 호색가인 그는 비밀리에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추문이 자자하다한다. 지금은 중공의 괴수로「스탈린」주의의 신봉자로서 모택동을 교조로 하는 인격승배, 사상을 고취시키면서 유명한「대약진」, 「인민공사」등 인민혹사에 여념이 없고, 그의 공산유격투쟁을 유일한 역사로 등장시켜「호루시초프」를 능가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영도자로 자칭하여 소련에 대한 일대 배격을 자행하는가 하면「스탈린」주의의 폭력론을 견지하고 일대 모험주의적인 위략전군(偽略戰軍)으로서 전세계를 제패하려는 영웅심리에 사로잡히고 있다.

③ 김일성(金日成) <북괴>

김일성은 1912년 평남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중농이었던 김보현의 장남



<김일성>

동외(洞外)의 아들로 태어난 본명 김성주(金成柱)라는 자이다. 그의 생모는 강반석(康班錫)으로서 창덕학교(간역학교) 설립자이며, 기독교 신자이다. 강양옥(康良煜)(현재 북교회의부위원장)과는 6촌간이므로 김일성과는 외척이다. 14세시에 부모를 뒤쫓아 만주 길림(吉林)으로 들어가 그곳 육문(毓文)중학에 입학하였다. 중학시절에 이미 중공공청에 가입하고 1931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가소로운 것은 그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때 다만『공산당에 입당하였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명 없는 공산당이 어디 있겠는가? 당시 조선공산당은 해체 당하고 없었다. 김일성 아니 김성주가 입당한 공산당은 물론 중국공산당이였다. 그런데 그를 민족적 인물로 내세우기 위하여 그가 처음 입당한 것이 중국공산당이라는 것을 숨기려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잔 찌인가? 그런데 당시 중국공산당은 만주에서도 유격전을 위주로 하였다. 그래서 김일성도 중공유격대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것이 1931년경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중공의 동만(東滿)유격대 대장이었던「주보중(周保中)」의 말단부하이였다. (주보중은 현재 중공 국방위원회위원으로 지난번 최용건의 중공 방문시에도 김일성과 같이 싸우던 군인이라고 환영참가자명단에 소개되었었다) 다음해 1932년 4월 중공은 전략상 한국인들만으로 한 부대를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공의 동만유격대의 한 휘하부대에 불과하였다. 그러기에 김일성이 가장 자랑하고 굉장히 내세우는 소위 보천보(保天堡)사건 때에도 김일성은 전기 주보중이 인솔 하는 부대의 한 수장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김일성의 황금시대였다. 그러나 일본군경의 토벌작전이 우심(尤甚)해지자, 김일성은 1941년에 소련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곳에서 이번에는 소련공산당원이 되고 소련군대 훈련, 특히 특무훈련을 받았다. 과연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 그는 장교복으로 따라 들어와서 몇 날이 안가 군복을 벗고 김일성 장군 행세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김성주가 언제부터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그가 만한시대부터 이미 김일성의 이름으로 행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젊은이가 우리 민족의 전설적 영웅인 연로한 김일성 장군과는 전연 별개인이라는 것은 연령문제로도 그렇지만 특히 다음의 점에서 문제도 안 되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이 앙모(仰慕)하는 김일성 장군은 철저한 민족주의 지사였는데, 이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점이다. 이것이 김일성의 정체이다. 일제시대 중공유격대 뒤꽂무니를 따라 다니며 다소 싸우다가 다급해지자 소련의 품안으로 쫓겨 들어간 것이 무엇이 그리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그것을 절세의 영웅, 아니 신인(神人)처럼 떠받들게끔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김일성은 소련군이 데리고 들어와서 조작해 낸 장군이며, 괴수(魁首)에 불과하며 북한인들이 추대한 지도자는 결코 아니다. 1945년 10월 14일「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가 소련점령군 지시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을 때 김성주는 김일성 장군으로 소개되었다. 김일성 장군을 보려고 원근을 가리지 않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저것은 가짜 김일성」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환영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흩어져 가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김성주를「김일성 장군」으로 꾸며서「민족의 영웅」,「절세의 애국가」,「민족의 태양」으로 내세우려는 소련점령 정책가들의 초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김일성 장군 개선기」,「인간 김일성 장군」등의 글을 씌워서 이것을 국정판 교과서처럼 모든 사람이 읽게 하였다. 김일성의 성격은 사욕이 많고 우둔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영웅심과 허영이 충일(充溢)한 자이다. 더욱이 잔인성과 야수성이 강한 자로서 반대세력의 숙청, 일반인민들에 대한 혹사, 및 착취를 예사로 자행하며 자기에게 맹종치 않는 자는 무조건 제거해 버리는 독재력이 우심한 자이다. 특히 방탕과 호색을 즐기며 주위의 여성들을 농락하는 예가 많다. 본처가 사망한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금일에도 결혼은 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와 정교를 맺어 왔으며 수명의 이복자식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④ 호志明(胡志明) <월맹(越盟)>

호志明은 1892년에 탄생하였으며 본명은 완애국(阮愛國)이다. 부친은 교사 및 공무원의 경력자인 관계로 유시(幼時)부터 교양과 각종 학문에 전념하였다. 19세 때에 선원이 되어 미국, 독일, 영국 등지를 순회하여, 파리에서 거주하기를 결정하고 이곳에서 사진 수정업에 종사하였다. 파리 체재 중에 좌익운동에 참가하여 1920년 불란서공산당 결성 당시에 활약한바 있다. 1923년에는 공산혁명운동에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모스크바」에 파견까지 되었다. 1925년에는 중국, 향항, 태국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공산혁명분자의 규합에 전념하였으며 각지에서 훈련까지 진행시켰다. 그 후 중국 광둥에 와서「코민테른」의 앞잡이였던「보로텐」이란 자의 통역으로서 종사하였다. 1927년에 중국에서 체포령이 내리자「모스크바」에 도망하여 이곳에서 공산교육을 받았으며 1929년에는 또다시 아세아에 귀환하여 태국에서 남해지구 공산당을 조직했다. 1930년에는 향항에 건너와서 당시 수개 단체로 분산되었던 월맹공산단체를 인도지나공산당(印度支那共產黨)의 명칭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때는『테로』와 암살이 향항을 휩쓸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호志明은『테로단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1931년 향항에서 투옥되어 단기간 복역을 하였다. 출옥 후 1940년까지 동남아 및 중국에서 공산지하조직과 운동에 종사



<호志明>

하였으며 드디어 1941년에는 중국을 토대로 월남독립동맹, 즉 월맹(越盟)을 창건하였다. 특히 이에 근거하여 인도지나(印度支那)에 전선단체를 결성하고 게릴라전 기지를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1945년까지 월맹의 병력은 일만 인에 달하였다. 일본이 패배함과 동시에 호志明은 월남독립을 선언하여 자칭 월남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1946년부터는 불란서인에 대한 맹렬한 전쟁을 개시하여 8년간이나 격전을 계속하였다. 1954년 주네브휴전협정으로써 전쟁은 종료되었으나 그 결과 월남은 북위 17도선 이북의 월남민주공화국과 이남의 자유월남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호志明은 휴전협정을 빈번히 위반하고 남부 자유월남의 침략전을 계속 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의 간첩침투공작, 파괴활동을 전개하여 자유월남의 공산화에 현재까지 갖은 악랄한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 호志明의 인품은 일견 온화한 가장풍의 노인같이 보이나, 지략과 모략에 능하며 이중인격의 소유자로서 음흉한 면이 많다. 특히 파괴활동과 게릴라전에 많은 경험이 있는 만치 자유월남에 대한 정치공작과 파괴활동이 일의 우심해지고 있는 것은 호志明의 지휘 하에서 감행되기 때문이다.

⑤ 체덴발 (몽고)

공산국 각국 괴수 중에서는 외몽고의 당수 겸 수상인「체덴발」처럼 장기간에 궁(巨)하여 소련에 맹종하며 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이 자는 1921년에 외몽고의 초원지대에서 탄생하였다. 소위 몽고 인민공화국이 소련의 위성국으로 되었을 때는 이 자는 5세에 불과하였다. 소년시대부터 공산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 자는 1931년 몽고청년동맹에 가맹하였고 그 후 「모스크바」의 동방근로자대학에서 정치학을 수학한 순수한 소련계이다. 특히 자기의 부인까지도 소련인이며 항상「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소련 일변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39년에 외몽고정부의 재무차관에 등용되었고 그 익년인 1940년에는 몽고인민혁명당(공산당) 서기장에 승진하였다. 불과 24세에 최고직책에까지 등용된 것은 소련에 대한 충성과 맹종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항상 소련의 압력과 위협 하 혹은 회유에서 몽고는 소련에 절대복종하여 예속국가로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국(隣國)인 중국은 1933년래 외몽고에의 세력 확대를 기도하였고 항상 몽고를 예속화하려는 것도 사실이었다. 중공이 성립된 후에도 외몽고에 대한 압력과 예속화는 부단히 획책되어 왔었다. 1960년 5월 중공의 주은래(周恩來)가 외몽고를 방문하고



<체덴발>

외몽고의 제3차 5개년계획(1961-1965)을 위하여 5천만불의 차관까지 제공하였다. 7월에「부카레스트」공산권 수뇌자회의에서 중공, 소련의 사상대립이 진행되었을 때 몽고는 중립을 표명하였던바 소련공산당은 즉시「체덴발」을「모스크바」에 소환하여 많은 질책을 하였다. 이 당시 소련은 회유 등의 일단으로 1억5천4백만불의 소련차관을 공여 받았으며 6개월 후는 또다시 1억3천5백만불의 차관을 받았다. 이 차관들을 합하면 인구 불과 백만명 남짓한 외몽고로서는 국민일 인당 외화수혜는 세계 제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치 다액의 외화 원조를 받았었다. 그러므로「체덴발」은 1960년 이래「모스크바」에 충성을 다 하기를 공언하였으며 소련의 가장 충실한 주구(走狗)로서 등장되었다.

「체덴발」의 성격은 아부심이 강하며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더욱 영웅심이 강하여 자기의 동지들 중에서도 유능한 자가 있으면 이것을 숙청 추방하여 자기 독재의 영구화에 알은 술책을 감행하고 있다. 자기부인의 간섭과 정치적 지도에 좌우되며 철저한 「호루시쵸프」의 심복지인(心腹之人)으로 전변되었다.

⑥ 카스트로 <큐-바>

「카스트로」는 1926년 큐-바에서 80KM 상거(相距)한 오리엔다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사당업(砂糖業)과 목재업을 경영하는 대자본가였다. 오형제중의 삼남인「카스트로」는 형제들과 같이 고향의 산중에서 수렵과 탐험을 즐기면서 소년시대를 보냈다.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한 이는 근방에 펼쳐 있는 빈농들의 처참한 생활상태를 직접 보고 나라의 정치제도를 비판하였다 한다. 「카스트로」는 순서 있게 소학, 고등학교를 거쳐「하바나」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성적도 우수하고 특히 운동선수로서 활약한바 있고 웅변술에 능하여 항



<카스트로>

상 대학시절에는 정치적 활동에 취미를 가지고 그 당시의 독재자의 타도를 위하여 학생들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한다. 1947년에는「도미니카」의 독재자「트루히요」정권을 전복(顛覆)하기 위하여 3천인의 원정대에 참가하여 실패한 일이 있었고 그 후「큐바」및「라틴아메리카」제국의 부패정치를 반대하기 위한 대중 집회 학생의 항의집회에 적극 참가하여 수차 체포된 일도 있다.

1950년 「하바나」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동시 정치활동도 계속되었다. 1952년에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였으나 「바지수다」 독재정권의 방해에 의하여 당선되지 못하였다. 그는 드디어 「바지수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뿐이라는 것을 결심하고 1년간 동지규합운동, 훈련, 밀의, 계획을 수립하여 반란군을 2백여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로서 조직하였는바, 대부분이 대학생과 대학졸업생이며 전부가 20대 청년이었다.(이 당시(카스트로는 26세) 최초에는 자기고향에 있는 대규모의 병영습격을 계획하고 그곳에 주둔하는 4명의 군대를 기습하여 기관총, 전차 등을 약취하고 방송국을 점령한 후 쿠바인민에게 독재자 타도를 호소할 계획이었다. 1953년 7월에 계획과 같이 진행시켰으나 실패하여 많은 동지가 총살당하고 투옥되었다. 「카스트로」는 이곳을 도주하였으나 수개월 후 산중에서 체포되고 몇 개월간의 법정투쟁을 가혹하게 전개하였다. 결국 금고 15년의 판결을 받고 「베노스도(島)」의 감옥에 감금당하였다.

1955년 「바지수다」 독재자가 압력으로서 또다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 당시 전 인민들이 독재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중되어, 그 위신은 여지없이 타락되었다. 신빙성과 인민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또 주위의 정객(政客)들의 요청에 의하여 대통령취임경축의 대사령으로서 「카스트로」는 2년 만에 석방되었다. 1955년 7월 「카스트로」는 「큐바」 침입의 무기와 동지규합을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하여 많은 동지들과 「큐바」 침입계획에 필요한 무기와 자금의 수집에 몰두하여 불과 82인의 인원이 일단(一團)이 되어 「큐바」의 해안에 상륙한 이래 「바지수다」 정부군의 폭격과 수색에 조우하여 생존자는 단 12명밖에 없었다. 12명이 소총과 10포의 실탄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유격전에서 많은 동지를 획득하여 「큐바」를 완전히 수중에 장악하고 「카스트로」가 지휘자로 되었다. 이 당시 「바지수다」 독재정권은 너무나 부패, 부정과 철저한 독재로 인하여 「큐바」 인민들의 규탄과 반항을 자아냈기 때문에 「카스트로」를 동정하고 「카스트로」의 반란군에 가담하였기에 「카스트로」의 승리로 돌아갔다. 「카스트로」는 원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독재를 분쇄하고 「큐바」적인 인도주의적 정체(政體)를 수립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던 것이 소련의 추파와 공작에 의하여, 또 많은 차관(借款)과 원조유인에 의하여 소련에 기울어졌다. 그러므로 「카스트로」에 가담하였던 「큐바」의 민족주의자들은 실망도 하였고 후회한 자도 많았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스스로 사회주의적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자 전에 동지였던 전우들을 숙청 투옥하여 배은망덕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소련의 주구로서 소련의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자의 성격은 호탕하며 다혈질적인 다감다정한 자이며, 다변술(多辯術)로 동지를 설득하는데 능하며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횡포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과거의 「바지수다」 독재에 못지않을 정도로 독재를 실시하여 인민들의 빈축을 자아내고 있다.

⑦ 티토 <유고>



<티토>

「티토」는 「유고」 대통령이며 「유고」 연방집행회의 의장이다. 1892년에 출생하여 대정(大正) 및 군관학교를 졸업한 군인 정치가이기도 하다.

제1차대전 중에는 「러시아」군의 포로로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1917년 「러시아」혁명당시에는 혁명에 참가하여 적군과 같이 다대한 공적을 올렸다는 이유로 훈장까지 수여받았다. 이때부터 「티토」는 사회주의사상에 침투되어 1924년까지 「러시아」혁명군에 가담하여 사회주의 소비에트 건설에 참가하였고 1924년 「유고」에 귀국하여서는 봉건적인 전제군주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전심전력하였다. 혁명운동의 주도격(主謀格)으로 체포 투옥되어 1929년부터 34년까지 5년간 옥중생활을 거쳐 소련으로 망명하여 「코민테른」에서 활약하여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훈련을 더욱 쌓았다. 제2차대전중에는 「나치」 독일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민해방군을 조직하여 지휘관으로서 주로 빨치산 운동을 계속하였다. 1944년 소련군에 의하여 나치 독일군이 패망하자 「유고」 임시정부 수석이 되어 소련군의 지원 하에 「유고」 왕당파를 추방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수상으로 등장되었다. 「티토」는 수상이 된 후 소련에 「스탈린」의 지령과 정책을 채용치 않고, 「유고」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 농업의 소유권 인정, 상공업의 자치관리, 지방의 자치제를 실시한 탓으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있다하여 「스탈린」의 분노를 자아내어 국제공산주의진영에서 탈퇴시키고 압력을 가하여 결국은 국교단절까지 하였다. 「유고」가 지형상으로 자유제국에 포위된 조건하에서 「스탈린」 자신도 무력행세를 하지 못하고 모든 원조 중단과 국교만을 단절하였다. 「티토」는 굴하지 않고 도리어 서방 자유진영과 연대를 강화하며, 중립을 표방하고 나섰던 것이다. 1953년 「스탈린」 사후에는 재차 소련과 동구공산권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였다. 1956년에는 「호루시췌프」의 「스탈린」 격하가 시작되자 「유고」의 「티토」와 또다시 친교를 맺고 「티토」는 소련을 방문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호루시췌프」는 「유고」의 수정주의 노선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형태의 다양성과 평화공존론에 근거하여 일익 「유고」와의 친밀도가 가중해 가고 있다. 그러나 중공진영은 이것을 원수시(怨讐視)하고 이와 접근하는 「소련」과도 극도로 대립이 격화되어가고 있다. 「티토」의 성격은 고집불통이며, 자기의 주장을 굴할 줄 모르는 강직한 무단 정치가이다.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존중하며 자국의 전통과 민족성에 부합하는 독특한 사회주의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수정주의의 종가(宗家)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티토」의 사상체계는 공산 자유 양 진영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치 확고 부동한 점이 없으며 이해관계에 의거하여 양 진영을 이용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색채가 있음은 사실이다.

⑧ 고몰카 <폴란드>



<고몰카>

「고몰카」는「파란」통일노동당 제1서기(공산당)이며 사실상의 「파란」의 괴수(魁首)이다. 1905년에 출생하여 소련의 공산대학을 졸업하였다. 1926년「파란」공산당에 입당 이후 반「팻썬」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이 관계로 재삼(再三) 투옥하여 사경을 겪고 석방 후 제2차대전중에는 파란노동당에 입당하여 파란 수도「와르소」서기로서 지하에서 활약하였다.「나치」독일군에게 몇 번이고 체포되었으나 가명을 쓰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소련에 의하여 독일군이 패망한 후 통일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 당시는 부수상으로 등용되었다. 1948년 공산당과 사회 양당이 합동하여 통일노동당이 결성된 후 동당 중앙위원회 서기로 되었다가 동년「스탈린」주의를 실천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스탈린」정책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스탈린」이 추방시키고 말았다. 그 후에도「고몰카」는「스탈린」의 독재형태와 과격한 개인숭배사상을 배격하는 동시에「스탈린」의 예속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몰카」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유와 자주성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수정주의노선을 견지하였다.「스탈린」은 드디어「티토」주의자로 인정하여 1951년에「고몰카」를 체포 감금시켰던 것이다.「스탈린」사망 후 1956년「스탈린」격하운동이 야기되었을 때「파란」에서는 민중의 자유화애의 갈망이 치열해지자 동년 6월에는 민중의 폭동까지 발발하여 반「스탈린」운동과 악랄한 독재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반「스탈린」주의자인「고몰카」가 석방되어 수상직에 복귀하였다.「고몰카」역시 공산주의자로서 「파란」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나「파란」인민이 자유를 갈망하며「스탈린」식 공산독재를 반대하는 정황을 참작하고 농민의 토지소유권의 인정, 상업의 독점배격,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즉 민족의 특성에 부합되는 공산주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고몰카」의 성격은 자립자주성이 강하며 고집이 강한 외유내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의 지령에 복종치 않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인물이다.

⑨ 노보토니 <체코>

1904년 교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18세에 공산당에 비밀당원으로 입당해서 공산당원으로서 지하운동에 참가하였다. 소련에 유학하여 공산대학을 필(畢)하고, 자국에 귀환하여「나치」독일군의 점령 하에서 반「나치」운동 및 공산당 지하조직에 활약하다가 1941년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1945년 독일패망과 동시에「체코」가 해방되자 석방하여 수도인「푸라그」지구당의 서기로 임명되었다. 1946년에는「체코」공산당 중앙위원으로 승격되었고, 51년에는 중앙위 서기를 거쳐 53년에는 부수상 직위에까지 등용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년 중앙위원회 제1서기를 겸하였다.

1957년「샤브토키」대통령이 사망하자「노보토니」가 그 후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중앙위원회 제1서기까지 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보토니」는 온화한 신사풍채를 지니고 있으며 대학도 수 개 처를 졸업한 학자이기도 하다. 출세의 요령이 능하며 항상 침묵을 고수하며 극단적인 좌파를 반대하는 온건한 공산주의자이며 실천적 활동보다 공산주의 이론에 심오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스탈린」주의자이며 평화공존책을 주장하고 국내에 있어서도 농민의 집단화운동이 실패에 돌아가자 집단화운동을 중단하고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여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 있다. 성격이 학자적 기질이며,「체코」인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온건한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10년 이상에 걸쳐 중앙위원회 제1서기라는 최고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⑩ 카다루 <헝가리>

1912년 헝가리 중부지방의 농가에서 탄생, 중학, 대학을 거쳐 공산주의사상에 몰두하였다. 2차대전시에는「나치」독일을 반대하여「티토」와 같이 빨치산을 조직하여 유격전을 전개하던 중 독일비밀경찰에게 포로로 붙들려 수용소에 감금 중 소련군의 진군으로 인하여 구조되었다. 독일이 패망되자 공산당의 중견간부로서「헝가리」공산당 주당(州黨) 서기로 등용되었다. 1948년에는 내상을 역임하고 당 중앙위 서기로 재직 중「티토」주의자라는 낙인을 받아「스탈린」의 명에 의하여 투옥당하였다. 1956년「스탈린」격하운동이 전개되자「카다루」는 명예를 회복하여「호루시초프」의 충실한 졸도(卒徒)로서 소련에 충성을 다하였다.

귀중한 군수물자
내것같이 아껴쓰자



<카다루>

1956년 당시의 중앙위원회 제1서기였던「게레」는 철저한「스탈린」주의자였고, 특히 88%이상의 카토릭 교도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까지 말살한 탓으로 동년 10월「부다페스트」의 각 대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자까지 합세하여 반소(反蘇) 반정부혁명이 발발되었다. 이 대폭동은 약 2개월간 전「헝가리」를 휩쓸고 공산주의정권이 전복되려는 찰나 소련은 군대를 파견하여 대학살과 사살을 감행하고 진압하였다. 이때 혁명중의 수상인「나치」는「헝가리」인민편에 가담하여 반소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하고「호루시초프」의 충복(忠僕)인「카다루」를 수상에 등용시켜 소련정책을 충실히 집행케 하였다. 이리하여 1957년 3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의장까지 겸임하였으며 58년에 수상을 사임하였으나 1961년 또다시 수상에 등용되었고 62년 11월에는 제1서기에 재선되어 사실상「헝가리」의 괴수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자의 성격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며 굴종과 복종에 충실한 아부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도「호루시초프」의 충실한 지원자이며 충복으로서「호루시초프」노선의 충실한 집행자이다.

⑪ 계오루구데지 <루-마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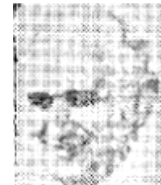


<계오루구데지>

1901년 노동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중학시절부터 노동운동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항상 전제정권에 증오감을 품고「루-마니아」국내의 각종 노동단체에 가담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쟁의파업을 선동하고 지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차 투옥된 일도 있다. 1930년에「루-마니아」공산당에 입당하여 본격적인 공산주의운동에 종사하였고 동 33년 유명한「부가레스트」철도종업원의 대동맹파업의 주모자(主謀者)로서 체포당하여 군사재판의 판결로서 12년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제2차대전의 말기인 1944년 혼란한 틈을 타서 수십명과 공모하여 탈옥 도주하였다. 그 후「나치」독일군의 반대 및 그 당시 국내에 수립된「팻쑈」정권을 반대하는 지하조직활동의 지도자로서 암약(暗躍)하였다. 독일군이 패망 후「루-마니아」의 독립이 이룩되자「소련」군의 지원 하에「루-마니아」공산당 서기장을 거쳐 48년부터 54년까지「루-마니아」노동당 서기장 수상을 역임하였고, 당제1서기 국가평의회 의장직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자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소년 시대부터 계속, 실천운동을 통한 공산주의자이다. 십년 이상을 공산당수로 독재를 실시해 왔으며 이 나라의 70% 이상을 점하는 농민들에 대한 농업 집단화 운동도 철저히 진행시키고 있다.

⑫ 지후코푸 <불가리아>



<지후코푸>

1911년에 출생하여 중학교정을 필한 후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21세에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제2차대전중에는「나치」독일을 반대하는 게릴라전을 전개하였으며 지하조직을 통한 공산주의 동조분자를 획득하여 독일군에게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후에 소련으로 건너가서 이곳에서 공산대학을 필하였다. 1945년에는 공산당중앙위원 후보로 되었고 1948년에는 중앙위원을 거쳐 50년도에 중앙위원회 서기로 승진하였다.「스탈린」이 사망한 후에 중앙위원회 제1서기라는 최고직에까지 등용되었다. 1956년「스탈린」격하운동이 전개되자 당시의 수상인「체르벤코후」내각이「스탈린」파로 인하여 해산되고 기후「유-고푸」수상 역시 종파주의, 개인숭배사상의 혐의로 추방된 후 1962년「지후코푸」가 수상으로 임명되었다.「지후코푸」는「호루시초프」의 충실한 지지자로서 반「스탈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성격은 우유부단하며, 항상 동요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소·중공론쟁에 있어서 중공을 비난한 첫 무대로 되어 있다.「유고」와도 화해를 강조하며, 중공과「알바니아」에 대하여는「호루시초프」의 의견에 추종하고 있다.

⑬ 울부리히트 <동독>

1893년 공장기사의 자식으로 출생하였다. 1910년 18세부터 노동조합운동에 관계하였고, 청년지도자로서 등장되었다. 1912년에 사회민주당원이 되어 1918년의(1일 공화혁명에 참가한 탓으로 19년에는 공산당원이 되었다) 공산당원으로 서 자유독일의 국회의원까지 선출되어 활동하다가「나치」정권이 수립되어「히틀러」비밀경찰의 수배인물이 되자 소련「모스크바」에 망명하여 수년간 공산대학에서 공산주의 이론의 연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차대전 후에 귀국하여 소련의 지원하에 공산당 재건공작을 전개, 사민당, 공산당 합동으로서 독일통일사회당을 조직하고 서기장이 되었다. 1954년 당제1서기, 1960년에 원수에 상당하는 신설의 국가평의회 의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명실공히 동독의



<울부리히-트>

괴수로 등장되고 있다. 성격이 강직하며, 고집이 강하여 인민의 억압착취(抑壓擄取)에 있어서 동구공산권중에서 가장 잔인한 평을 받고 있는 자이다. 자기 주위에 자파(自派)의 인물로서만 요직에 등용하여 독재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독과 대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민들에 대한 회유무마(懷柔撫摩)정치를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본성이 잔인한 독재적 성격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비난이 심하여 서독

으로 도피하는 자가 많다.

「호루시초프」의 지지자이나, 「스탈린」풍의 기질이 있어 「호루시초프」의 충고와 간언(諫言)을 많이 듣기도 한다.

⑭ 엔벨호자 <알바니아>

1908년 「알바니아」 북부지방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1930년도에 볼란서 파리대학에서 유학하였으며, 동시에 군관학교까지 수업하였다. 1936년에 귀국 후 이태리의 예속화에 반대하여 빨치산을 조직하여 유격전을 수년간 계속하였다.

제2차대전 후 이태리의 항복 후에 일시 독일군에게 점령된 때에도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 해방이 되자 반「팻쑈」평의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이것이 임시정부수립의 토대로 되었다. 1944년 11월 「호자」를 수반으로 하는 좌익정권이 수립되었고 동년 12월 초에 총선거가 실시된 후 민주전선이 대승하여 1946년 1월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이 수립, 「호자」가 역시 수상으로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근로당 서기장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자이다. 이 자

는 철저한 「스탈린」주의자로서 특히 육군대장으로서는 「팻스」주의의 고루(固陋)한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이며, 철저한 독재자로서 유명하다. 인구 100만여의 소국을 15년 이상이나 잔학(殘虐)한 독재로서 유지하고 있으며, 「스탈린」격하운동에 반기를 들고 「호루시초프」에 반항하였고 특히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22차대회시에는 「호루시초프」의 공공연한 비난을 받은 후에는 소련공산당과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중공측에 가담하여 소련과 「유고」를 신랄히 비방하는 노선으로 나갔다. 결국은 소련과의 국교단절까지 자행하면서도 「스탈린」지지를 고수하고 있는 집요한 교조주의자이며 횡포하고 완고한 정신의 소유자이며 융통성이 없는 독재자이다.

다정한 말 한마디
굳어지는 전우애

민주주의 원리 ⑥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

이극찬(李克燦)
<연대 교수>

1. 다수결원리의 의의

인간의 집단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행동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집단 그 자체가 통일적인 단일의 의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통일적인 단일의 의사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그 집단이 전제적(專制的)인 단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인 단체인가에 따라서 스스로 달라질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권력이 오직 군주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어 「집(朕)은 즉 국가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근대초기의 절대군주제도하에서는 그 군주의 개인적 의사를 가지고 곧 국가의 의사로 간주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단체성원들의 의사에는 전연 아랑곳없이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의 하강적인 방법으로 단체의 통일적 의사가 형성되는 이른바 「지배자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하에 있어서는 국가의 의사를 비롯하여 일체의 단체의 의사는 그 단체를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수의사로써 형성되어야 하며 그 의사를 곧 그 단체의 의사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 이것은 단체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오직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승적인 방법으로 단체의 통일적 의사가 형성되는 이른바 「다수결원리」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요컨대 다수결이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성원의 전부를 구속하는 의사 즉 그 단체의 의사로서 인정한다는 하나의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원래 개성의 존중을 근본정신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훌륭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하에서는 적어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사실상 초래하지 않는 한 각자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얼굴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그 견해도 역시 각각 다를 수 있음

으로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과 이해의 충돌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통일적인 단일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성가시고 비능률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바로 이와 같은 곤란을 돌파하여 비로소 각자의 자주성은 가장 잘 발휘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저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개별적 의사」로부터 하나의 통일적인「전체의 의사」를 만들어 낼 경우에 그때마다 전원일치가 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각 판이한 의견을 갖고 집요하게 각자의 판단을 고집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좀처럼 결론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성원 모두가 충분히 의논을 교환한 후에 최후의 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사는 언제나 정당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우수한 소수자의 의견이 도리어 어리석은 다수자의 의견보다도 정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상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릇된 의견이 다수자에 의해서 지지되는 반면에 올바른 의견이 소수라고 하여 도리어 배척되는 일이 있다면 민주정치는 이른바 중우정치(衆愚政治)에로 떨어지게 될 것이 아닐까. 공리주의자(功利主義者)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모토로 하여 다수결원리를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최대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상대적다수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절대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전체와 같을 수도 없다. 적어도「다수」라고 하는 이상 그것은 개념상 당연히「소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로부터 우수한 소수자에 의한 지배, 그 극단적인 형태로서 이른바「철인(哲人)정치」라는 것이 가끔 생각되어왔다. 이를테면 나치·독일의 총통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른바「지도자원리」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철인이라고 생각되는 독재자는 일반대중보다는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의사에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간주되어 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곧 이해할 수가 있다. 도대체 그가 온 국민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어진 인물이라는 것을 그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 또한 가령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오랫동안「권력의 맛」에 도취되기 쉬운 정권의 왕좌에 앉아 타락하는 일

이 없으리라는 것을 과연 그 누가 보장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답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하에서는 역시 다수결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단지 다수결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수,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상대적인「양」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질」로서의 진리성과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요컨대 현재의 단계라는 조건하에서는 어떤 결론에 동의하는 자가「비교적」 많다는 것뿐이다. 만일 이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수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고집하는「다수의 횡포」로 떨어져 오직 수만을 믿는「중우(衆愚)의 지배」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로서 도달하게 된 어떤 결론의 진리성이 비록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한「수」로서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수자의 의견의 진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소수자 즉 반대자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장차 다수자가 되리라는 굳은 결의를 가진 체로—다수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다수결의 본질은 결코 단순한「수의 지배」도 또한「힘의 지배」도 아니며 토의를 통한「이성의 지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결은 개개인의 잡다한 의견이 상호간의 토의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속에 조정되어 가는 원리이다. 이런 경우에 다수파의 존재는 언제나 소수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비로소 존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수파의 권리는 소수파의 권리를 전제로 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수결원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2. 다수결원리의 조건

그러면 이와 같은 다수결원리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

첫째는 그 사회에 개인적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다수결이 유효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통일적 의사의 결정에 참가하는 각 개인들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그것에 참여하려는 굳은 의지와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요컨대 각자가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집단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자가 타율적인 강요에 의해 공포를 느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없게 된다면 그곳에서 이룩되는 다수결은 결국 위선적인 다수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토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 자유가 요청된다. 이것이야말로 다수결원리,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민주정치는「수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유권자의 표를 하나라도 더 많이 얻은 자가 국회의원으로 되며 대통령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자유를 여지없이 유린하는 이른바 공포분위기 속에서 다수표를 얻었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다수는 어디까지나 이치에 맞아야 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얻어진 다수는 비록 숫자적으로는 다수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허위적인 다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정치는「수(數)의 정치」인 동시에「이(理)의 정치」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둘째는 토의에 참가하는 자를 모두 가치추구의 동질자로 인정해야 하며 또한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토의에 참가하는 자들이 지식이 부족하다 던가 사회적 신분이 낮다던가 하여 그의 발언을 무시하려 든다던가 또는 만일 다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들이 재산자격과 성별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면 다수결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는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갖고 소수자에게 반대할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수자로 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일이다.

다수결원리는 무엇 보다 그 결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원활하게 그 기능이 발휘된다고 볼 수가 있다. 오직 자기와 자기파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 보면 조금도 양보와 타협할 생각은 없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의견의 최대공약수(最大公約數)는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자기의 이해관계로 보면 자기의 의사를 조금도 굽힐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속하고 있는 조국과 단체의 안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대의(大義)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수결은 불가능하게 될 것은 뻔하다.

사실 개인적 및 사회적인 분화와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적 기초위에서의 분화와 대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개별과 분화 대립의 측면만을

중시하고 전연 일체적인 공동생활의 측면을 망각한다면 무정부적(無政府的) 상태에로 떨어질 것이며 또한 이것과는 반대로 사회 속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허다한 분화와 대립을 전연 무시하고 일체적인 의사를, 권력을 가지고 통합하여 이를 성원들에게 강요하게 된다면 전체적 상태에로 떨어질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수결에 있어서의「다수자」란 그 개념상 당연히「소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정한 수를 가지고 그것이 다수다 소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미 그 전에「전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수소수의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실은, 일체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다수도 소수도 없지만 그와 동시에 오직 일체성만이 있고 분화와 대립이 없는 곳에서도 역시 다수와 소수가 나누어진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다수결원리는 일체적인 공동생활과 성원들이 다수 소수로 분화 대립되는 것을 동시에 전제로 하여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는 결코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즉 어느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된 의견도 그 후에는 도리어 정당하다고 보여지게 된다던가 또는 그 정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는 바다. 따라서 어느 일 시점에 있어서의 다수의 의사를 절대불변의 것으로서 볼 수는 없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수결원리는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일체적인 통일된 의사의 성립을 예상하여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비판하며 설득하는 과정 속에는 이 양자는 감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생겨지는 의사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다수자의 의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다소간 소수자의 의사가 다수자의 의사에 대하여 감화를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다수자와 소수자의 공동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켈젠」교수는「다수결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다수=소수자원리」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미 심중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이 정치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정권교체의 자유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인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다수파는 정부를 조직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명백한 약속 위에 서는 것이다. 즉 소수파는 다수파의 통치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대신 정부를 조직한 다수파는 결코 소수파를 함부로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째요 소수파는 현 정부에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시기 후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면 곧 평화적으로 정부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둘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는 그 나라에 두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국가에는 반드시 두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한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운용되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끝으로 다수결은 원래가 구체적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수결원리는 실천의 장면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인식의 장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견의 대립은 다수결로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일체적인 통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필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절대적인 진(眞)·선(善)·미(美)와 같은 것은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며 인간의 의사를 통합시킴으로써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신념이란 지지자의 수의 다과(多寡)에 따라서 쉽사리 동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신념의 차이를 수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게 된다. 단지 그것을 단순한 상호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끝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신념으로서의 일단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이른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게 될 뿐이다. 이것은 결국 개성을 근본적으로 존중시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올바르게 터득하고자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목적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수단을 생각해야 할 경우에는 다수결은 그 본래의 효과를 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다수결원리의 조건으로서 네 가지를 지적했다. 만일 이와 같은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아무리 형식상으로는 다수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수결원리의 가치를 부정하여 소수독재를 민주주의로 가장하는 독재주의의 도구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폴레옹 1세는 그가 종신통령(終身統領)에 취임하기 위한 인민투표(1802년)에서는 3,568,885표 대 8,365표, 그리고 황제즉위의 인민투표에서는(1804년) 3,574,898표 대 2,569표라는 절대다수의 인민의 지지표를 얻어서 각각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인민의 절대다수를 얻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모범적인 민주주의자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역사가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는 없고 도리어 그를 전형적인 전제자로 낙인을 찍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유는 뻔하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단행된 반민주적인「투표의 사기(詐欺)」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인민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기성사실을 승인하는데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수결에 있어서의「다수」는—앞서 말한 것처럼—어떠한 부정적 수단과 방법으로써 얻어져도 무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와 같은「다수」는 어디까지나 이치에 맞아야 한다. 즉 그와 같은「다수」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조건하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결원리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와 타협을 통해서 보다 더 고차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을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다수결원리는「힘이 정의」가 아니라 도리어「정의야말로 힘」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그 본래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구의 부흥

서구의 부흥은 놀랄만한 가치가 있다. NATO 결성 15년이 되어가는 최근의 서구는 그 인구나 생산력이 소련을 능가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원조가 그 근본적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즉 서구가 이제는 단독으로도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자신을 가졌다는 증거다.「프랑스」의「드·골」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지려는 고집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알제리아 등 많은 국비와 군대를 소모해 오던「프랑스」는 이러한 해외에서 손을 떼고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여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독자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서구의 부흥을 의미하고 있다.

〈뉴스·위클리에서〉

공산주의 비판 ⑥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논쟁과
수정주의(修正主義)의 의미

김창순(金昌順)

〈평론가〉

2차대전 후의 자본주의의 세계구조(世界構造)에 대한「스타린」의 분석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세계정책이 크게 잘못을 범했다는 비판이 1956년 2월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전개된 사실을 전회 강좌에서 지적하였다.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로 불리우는「맑스」주의의 또 하나의 원칙에 의하면,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라는 것은 사회진화(社會進化)의 필연적인 하나의 단계이며 사회주의의 전단계(前段階)라 하여 그 일정한 진화사적 의의(進化史的意義)와 임무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 내재적 모순(內在的矛盾)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언젠가는 사멸하기 마련인 것으로 가정(假定)되어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자연사(自然死)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위적(人爲的)으로 축성(促成)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그 어느 시점(時點)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가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맑스」수의 위기대망론(危機待望論), 공황대망론(恐慌待望論)으로 불리워지는 소위 궁핍화이론(窮乏化理論)에 의하면, 경제적 위기(危機)와 공황이 없으면 사회주의 혁명은 실현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자본주의 체계(體系)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하나의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황(恐慌)이 일어나면,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나라에 파급(波及)되어, 세계경제의 공황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이때가 바로 세계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스타린」은 2차대전후의 세계정세를 전망(展望)함에 있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본주의 체계의 세계구조에 경제공황과 위기가 도래(到來)한다고 보았고, 바로 이 시기를 택하여 세계

혁명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를 정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타산은 들어맞지가 않았다. 자본주의 세계는 그러한 공황과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타린」의 오산(誤算)은 그의 선배인「레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25년 소련공산당 대표자대회에서「스타린」은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인정(認定)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는 오랫동안 양립(兩立)할 수가 없다. 결국 어느 하나로 되어지고 만다는 원칙은 불변의 철칙(不變鐵則)이다. 다만 문제는「오랫동안」,「결국」의 기간(期間)인 것이다. 「오랫동안」이라함은 얼마 동안의 시간을 말하며, 또「결국」이라함은 어느 시점(時點)을 의미하는 것인가. 혁명 당초(1917년 11월 6일「러시아」혁명을 말하는 것임) 우리는 1년 아니면 2년, 혹은 수개월 동안에 승패가 날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 후의 정세의 추이(推移)는 의외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양립(兩立)이 오랫동안 영속(永續)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기간(期間)의 계산을 잘못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원칙에는 하등의 변경을 요치 않는다』

「스타린」의 이 연설은「레닌」시대의 반성인 것이다. 「스타린」은 그 연설을 통하여 세계정세를 분석하기를「현하의 세계에는 다섯개의 상반(相反)하는 세력이 있다. ①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부루조아」와「프로레타리아」②자본주의 열강(列強)의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에 있어서의 독립운동 ③세계전쟁후의 전승국과 전패국 ④전승국간의 불화와 갈등 ⑤「소베트」국가와 자본주의국가」라고 하면서, 이 다섯개의 상반하는 세력은 나날이 더욱 격렬한 상쟁(相爭)을 하고 있는바 이것들 가운데 ①에서 ④까지는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의 투쟁, 혹은 자본주의 국가간의 내홍(內訌)인 것으로서, 그들은 이 국가간의 투쟁과 국가간의 내홍과, 아울러「소베트」국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은 심대한 것이 있지만, 「소베트」국가는 그 내부에 하등의 항쟁도 없이, 전력을 기울여 자본주의국가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1925년 당시 자본주의 세계가 안정기(安定期)에 들어섰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혁명운동」을 무위(無爲)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론가들과 지도자들간에「스타린」의 강경노선(強硬路線)을 불신(不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경고(警告)하고,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이 연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급속히 멸망하리라고 타산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가 이 대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소련의 대외정책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노선에 있다고 천명한 것과, 그 이유로서는 자본주의가 상대적(相對的)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세력이 포화 상태(飽和狀態)에 있으므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공격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가 쉽사리 멸망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말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스타린」의 무리한 논리(論理)는 그 정체(正體)를 감추지 못하였다. 즉 1925년의 국제세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백중(伯仲)하다고 한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은 「레닌」이 사망한 직후이며, 권력의 계승권 문제를 가지고 당내(黨內)가 몹시 혼란했으며, 생산력도 문제가 아니었다. 소련을 지원해야 할 구라파와 그 밖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곤란한 시기에 부딪치고 있었다. 무엇을 가지고 세계 자본주의 세력과 백중하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만 「스타린」은, 앞에서 지적한 ①에서 ⑤까지의 상반하는 세력의 설명에 의하여 논리(論理)의 타당성(妥當性)을 「카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타린」은 자본주의를 내다보는데 있어서 종내 그 단견과 편견을 수정(修正)도, 청산도 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안정기가 빨리 지나가버리고, 불원 세계혁명의 조건이 농숙(濃熟)되리라고 믿어왔지만 그의 생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호루시초프」에 이르러서는 1961년 10월 제2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신 강령을 설명하기를, 앞으로 20년 후이면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력을 능가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전망하였으니, 자본주의는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줄 모르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호루시초프」가 「스타린」주의를 청산하여 나선 까닭이 무엇인가. 「스타린」의 자본주의관(資本主義觀)을 가지고서는 세계정세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의 자본주의에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낡은 자본주의관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호루시초프」의 수정주의(修正主義)는 그가 즐겨 택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것이다. 출중(出衆)한 사회주의 이론가들로 그 이름이 높았던 「베른슈타인」의 수정 「맑스」주의, 「필바딩」 그의 조직된 자본주의론, 「카우프끼」의 초(超)제국주의론 등은 이미 오래전에 자본주의의 영속성(永續性)을 이론상으로 주장하였다. 아직도 자본주의 발전이 미약했던 산업자본주의(產業資本主義)

단계의 자본주의를 다루던 「맑스」와, 그 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선진 공업사회를 다뤄야 하는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안목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옳다. 현실이 같지가 않으며, 사람의 의식(意識)이 같지가 않다. 낡은 시대의 성격에서 벗어난 「법칙」이란 것이 새 시대에 있어서도 「불변의 철칙」일 수가 없다는 것은 벌써 상식 문제이다.

이 점은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타린」시대의 사상의 규율(規律)과 생활의 질서가 백대를 두고 불변의 철칙일 수는 없다. 오늘의 소련 사람은 「스타린」과 시대를 같이한 사람들이 아니며, 따라서 「스타린」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겠다. 여기에 어떤 진화(進化)가 없이는 「소베트」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온다. 「호루시초프」가 「스타린」을 수정(修正)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구실이 긍정성(肯定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호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부터가 우선 그러하다. 자본주의 세력의 현실적 압력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비록 그것이 공산주의 「원칙」의 이단(異端)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끔 강요할 수가 있다.

수정주의의 새로운 형태

1956년 2월의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는 그들 종래의 자본주의관에 반성과 수정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때로부터 공산주의의 고위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은 이것을 배워야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는 그래야만 한다고 「호루시초프」 자신이 권장(勸獎)하게 되었다. 여기에 내포된 의도는 「자본주의가 언제면 사멸하느냐」의 시간적 측정(測定)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그렇게 쉽사리 사멸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회주의의 현실적 보강(補強)을 자본주의의 장점에 구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그들의 태도는 백 년 전의 자본주의와 오늘의 자본주의를 동일시(同一視)하는 우매(愚昧)를 범하지 않겠다는 기도(企圖)에 있어서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끼에프」의 기술경제대학 교수 「나베르만」 박사는 「계획, 관리, 잉여가치」라는 논문을 통하여 소련공업의 생산성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방법을 전용(轉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1962년

9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푸라우다」에 전문이 게재되었다. 이 사실은 소련공산당의 자본주의관이 현재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현 지도간부들의 지지 없이 이 논문이「푸라우다」에 게재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베르만」논문은 말하기를『어느 기업체가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의 척도(尺度)는 그 기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못 벌었는가에 있다. ……; 소련기업의 생산성 침체를 타개하는 데는 그 기업체에 대하여 경제외적(經濟外的)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기업체의 생산계획은 그 기업체의 주체적 조건에 의거하여 기업체 자신이 수립하고 그것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 또 포상(褒賞)에 있어서는 종래의 칭호제(稱號制)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상금을 주어야 한다. ……』대략 이상의 요지(要旨)로 되어 있다. 이 논문이 공개되자 소련의 경제학계에서는 이것이「폭탄선언」이라고 떠들썩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경제학에서 본다면 이것은 폭탄선언도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의 공장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척도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에 둔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에 있어서는 차라리 A, B, C 이전의 이야기일 것이다. 또 기업체에 대하여 경제외적(經濟外的)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 포상제(褒賞制)에 있어서도「영웅」이니,「천리마」니 하는 명예칭호보다는 상금을 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물질적 자극으로 되어 질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전통적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소련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채용하자니까, 허기는「폭탄선언」이란 말도 듣게 될 판이다.

「나베르만」논문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것은『자본주의가 사멸(死滅)한다. 아니면 그렇게 쉽사리 사멸하지 않는다』의 논쟁이 아니라, 현실, 소련공업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침체를 타개하는데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있으니까, 이것은 종래의 자본주의관의 논쟁에서 본다면 대단히 미약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정주의(修正主義)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레닌」정권은 혁명당초 전시공산주의정책(戰時共產主義政策)을 취했지만, 그로 인하여 소련산업이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자, 소위「네프」정책(新經濟政策)의 이름아래, 토지, 가옥, 기타의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제도를 부활(復活)시키는 동시에 자본주의 열강(列強)과의 화(和)를 맺어, 국제무역을

부활시킨 일이 있다. 이것을 말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전략적 후퇴(戰略的後退)였다고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은 재빠른 전략적 퇴각이 아니었다면 소련의 경제조직은 그 후에 맑스주의의 원칙으로 부흥(復興)할 수가 없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한때의 휴식은 과연 생활의 필요한 측면(側面)인 것이다. 더구나「맑스」주의의 원칙인「공산주의는 산업조직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를 역행(逆行)한「러시아」사회주의 혁명의 직후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채용했는지라, 비록 그것이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로 끌고 나갈 수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네프」정책의 이름아래, 자본주의 제도에로의 일시적 퇴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만도 넉넉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근 반세기가 지나간 오늘에 있어, 소련의 공업관리(工業管理)에 자본주의적 방식을 전용(轉用)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次元)에서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즉 그 하나는 자본주의가 역사의 진화사적의의(進化史的意義)와 임무를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그의 둘째는 자본주의가 자기체계(自己體系)의 내재적 모순(內在的矛盾)을 능히 탈피하고, 소위 사회주의로 하여금 할 바를 없게끔 새로운 진화의「코스」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종전의 노선(路線)에 재삼 수정(修正)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 것이라 본다.

중공(中共)내의 우파인물

항항(香港)의 중공 난민들은 최근 중공의 뉴스 필름을 입수할 수가 있었다 하며 우파의 중요 인물인 장만기(章萬基)를 이 필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뉴스 필름에 의하면 장씨는 많은 노동자 학생 등 좌파분자의 격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파이푸를 물고 태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우파인물로서「광명일보」편집국장 신자안평, 농공민주당주석 장백조(章伯鈞)씨 등도 동 필름 속에 나타났다고 하며 이들은 중공정권의 압력 하에서 오늘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켜온 반공파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외지(外紙)에서>



소련을 추리(推理)한다

신일찬

소련의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 마음대로 떠들고 있다. 즉 소련에 관해서는 전문가나 오랜 동안「모스크」에 있는 사람이나 확실하게 일어난 일 이외에는 모른다. 그저「추리」할 뿐이다. 더구나 기자와 같이 여행자가 잠깐「모스크」에 체재했다고 해서 소련의 실정을 알 도리는 없지만 얼마만의 전문을 재료를 해서 감히 하나의「추리」를 시도해 보려 한다.

중국인 붓적 줄다

기자가「모스크」에서 발견한 것의 하나는 중국에 대한 소련인의—적어도 지식인의—감정이 의외로 나쁘지 않나하고 느껴지는 점이다. 이 잡다한 인종이 모인「모스크」에서 기자는 중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결국 없었다. 물론 중국인은 외교관 이하 교외의「모스크」대학근처에서 집단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련 기술자의 중국철수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인 자제(子弟)는 본국으로 송환되어 여기에 사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중국인은 부쩍 줄었다 한다. 이전에 많았던 중국계 의류도 점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오리키」공원의 산보길에는 전에 중국사회주의 건설의 사진이나 도표가 상설전시장에 게시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것도 전부 떼어져 지금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판매되는 「치이스」의 하나로「우호」라는 이름의 것이 있다는데 이는 당초「중국과의 우호」라는 이름의 것이었으나 어느새「중국과의」라는 문자가 상표에서 빠져버렸다고 한다.

중국인에게 호의적이 아닌 소문도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중국인「스푸트니크」를 쏘 올렸다 한다. 높은 나무까지 사이에다 끼어 70만명이「고무」줄로 잡아당겨서 새총 쏘듯 발사했다』고 엉터리 소문이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호전된 주택 식량

『우리들의 생활은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다. 물론 외국을 알고 있는 지식인은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대중으로서는 이전에는 1실 10명꼴이었던 것이 3명꼴로 된 주택사정의 개선이 대단한 진보이고 빵이나 우유, 또는 커피를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여긴다. 우리는 이런 생활수준의 진보를 놓치기 싫다. 전쟁도 싫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해서 잃을만한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소련인은 미국이 소련과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측이 전쟁에 의해서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생각이 소·중공간의 견해 차이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여하튼 우리는「스타린」시대에의 역행에는 반대한다』고.

여성의 복장도 다채로워

기자와의 대답에서「이즈베스치아」지 편집장인「아쭈베이」도 억지로 이론 건설을 전쟁에 의해서 파괴하는 것은 싫다고 했지만, 아마도 이는 소련인의 공통적인 사고일 것이다. 물론당지도자는 평화를 위해서「이데올로기」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한다. 평화면 아무래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인「비전론(非戰論)」이나 힘에 의해서 전쟁을 저지하려는「반전론(反戰論)」은 비판을 사지 않는다. 아무 쪽으로나 전쟁은 피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다.

식량이나 주택사정 뿐만 아니고 「모스크」시민의 복장도 지난 1, 2년 사이에 좋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서구를 돌고 온 기자의 눈에는 그럴 정도까지라고는 보이지 않으며,「모스크」의 생활수준은 아직도 각별하게 낮아 보였다. 그러나「모스크」만 보고 생각되는 것은 이 나라가 이제서야 비로소 대중소비사회로 돌입하려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소비사회에서는 누구나가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는 전쟁을 극력 피하려고 하는 법이다. 소·중공대립의 근본적인 것에 전쟁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이상 이 대립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중공 화해는 어려운가

국제적 입장에서 소·중공의 대립을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나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는 잠재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런 견지에서 동구 사회주의제국의 자유화의 경향—파란(波蘭)은 이미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실행하고 있으며 항가리도 그 뒤를 쫓고 있다—을 볼 때, 소·중공의 화해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파란은 이미 중공이 맹렬하게 공격하는「티토」주의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 자신도 소련의 현실적인 조건에 맞는 공산주의의 길을 더듬어 가고 있다. 중공은「스타린」시대의「맑스-레닌」주의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주장하나 소련이「사회주의의 조국 소련」이라고 각국의 공산당에게 내걸은 바는「이데올로기」의 면을 이용해서 소련의 국가적 이익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가. 사회주의적 국가에 있어서도「이데올로기」보다 국가적 이익이 선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혁명에 있어서도 불란서혁명도 그랬었지만 한번 열면 정열과

미래의 생활



기성도시의 입체교차로의 한 예, 물론 여기에는 고스톱의 신호는 필요치 않다. 왼편 윗측의 뾰족한 마천루의 스타일이 입체도로와 어울리지 않는 점이 특색이다.

이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정열은 이성으로 이상은 현실 앞에 굴복할 것이다. 소련에서도 혁명의「이데올로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건설을 진전시킬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소련은 혁명의 근거지로서 「이데올로기」의 불길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은 소련의 세계정책과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나「모스크」에 와서 본 것은 우선 건설이고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소련의 어린이의 이상이 기술자가 되는 것이고「모스크」국립대학의 법문경제(法文經係)의 교사가「크레믈린」근처의 낡은 것에 반하여 이공계(理工係)의 교사가「레닌」언덕 위에 우뚝 솟은 당당한 건물인 것은 상징적이다.

지도자는 실무자중에서

이것은 공산당 상층부의 앞으로의 인적 구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당 중견부(中堅部)에서는 행정, 경제 등의 실무자, 전문가의 세력이 뻗치고 있고, 금후 이들의 세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장래의 지도자는 단적인 이론가가 아니고—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동시에 실무자인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이데올로기」하나만 가지고 당 상층부의 의자에 앉을 시대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엄격한「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중공과 소련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중공이「이데올로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역시 중공의 국가적 이익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점에서 소·중공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크며, 소련은 이제 와서 중공에 양보하여「이데올로기」를 현실보다 앞세우지 못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렇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소련은 동구 또는 서구의 공산당간에 애써 쌓아 올린 신용과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소련의 정책이 경화(硬化)할 때가 있다하더라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중공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다.

소·중공회담은 연극

그래서 기자의 추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까지의 양국간의 서간(書簡)왕복이나 회담은 결렬(決裂)을 피하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사실상에 나타난 균열(龜裂)을 때우고 표면상이라도 공산주의의 단결을 살리려는 것이 아닐까. 서로 결렬을 공연화(公然化)했다고 해서 아무런 이익도 없다. 결렬이 공연화 되면 소련은 공산주의세계 전체의 이름으로 발언할 수가 없게 되며 중공도 공산주의세계에서 소련과 중공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강요할 지경이 되면 잃을 것이 많아지게 된다.「큐바」의「카스토로」의 예를 보더라도 결국 북경(北京)의「이데올로기」보다는「모스크」의 실력이 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건축(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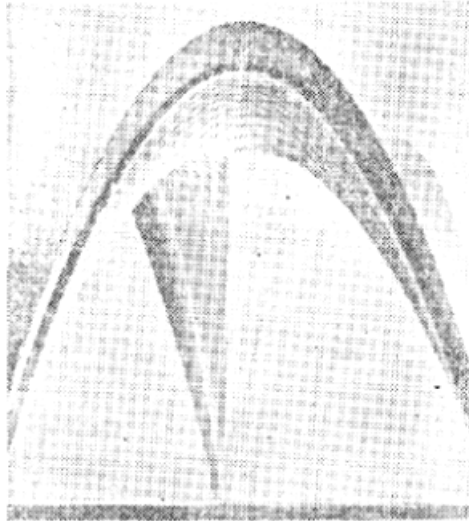
박학재
〈한양공대 교수〉

지금 생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의 공중전만 해도 제법 볼품 있었던가 싶다. 전투기라 해봤자, 복엽식 날개에다 천으로 감싼 기체였는데도 그 비속도적인 날음새를 뽐내면서 서로 접근하고서는 벽돌조각이나 돌멩이로 상대방의 프로펠러를 때려 꺾어서 격추시켰다 하니 기상천외의 걸작이 아닐 수 없다. 린덴버그가 대서양을 단번에 건넜다고 전 세계가 벅석대면서 센세이셔널한 기분으로 들떴었다는 것이다.

시대는 흘러서 음속비행을 거쳐「쿠퍼 소령과 신의호와 22회」의 우주시대로 돌진해 버렸는가 하면 달세계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들고 다니는 때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항공의학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음속비행이 절대로 가망 없는 일이라고 대들었던 때도 있었는가 하면 철선을 만들어 보았댔자 물에 뜨지도 못한다고 제법 진지한 태도로 말렸던 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건축계에서도 있었다. 옛켄탑(지상높이 400미터 1989년)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설계자 옛켄씨를 가리켜서 공상가니 불가능하다느니 머리가 돈 사람이라느니 하고 떠들면서 박해를 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말마따나 불가능이란 말을 육편에서 빼버리라고 했다지만 과학정신의 발로는 과학 공상소설에 나왔던 미래의 세계를 거침없이 개척해 나가고 있을 따름이다. 건축문화란 곧 그 사회나 민족문화의 정도를 재보는 척도(尺度)라 말하고 있듯이 미래 인류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한 사회기구에도 무슨 변화가 있게 될 것이냐 하는데서 비로소 미래의 건축문화에 대한 상상이나 추측이 서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핵시대의 제2산업혁명 시대로 치고 있는지라 이 산업혁명이 적극적으로 인류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지금의 생활양식이랬자 오히려 유치하고도 원시적인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멸시해 버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 산업, 경제, 사상, 정치, 종교, 예술, 과학……이런 것을 다루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인류의 생존문제를 합리화 하거나 해결하려는 방법이고 목적임에야 제1, 제2의 산업혁명이 이룩할 인류의 생활은 다음처럼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현재와 같이 놀랄 만큼 팽창되어 가는 인구에 대한 식량

문제 해결에 일대 혁명을 일으켜서 공기나 바닷물, 또는 해저에서 영양소를 달리는 화학적 식량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한편 육지에서는 강우량이 마음대로 조절되면서 농작물 수확이 훨씬 증가됨은 물론 사막지대도 경작이 가능해 질 것이다. 현대과학에 소요되는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리라 추측되는 전대미담의 설령(雪嶺……예를 들자면 알프스나 히말라야 산맥 또는 남북극지방)도 원자 에너지의 활용으로 개발되고 사람의 살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상의 거리는 물론 우주의 거리가 시간적으로 훨씬 단축되어져「공간」과「시간」에 대한 인간의 개념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모노레일」이 기차와 바꾸어지고 다양적으로 기능화 된 헬리콥터가 자동차와 대체될 것이다. 음속 이상의 항공로가 거미줄처럼 발달되는 한편 지금처럼 일단 활주에서 떠나는 방법은 직접 수직으로 올라가서 날기 시작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인공위성을 중계소로 삼는 통신통화가 국제간의 접촉이나 지방간의 연락을 신속히 하고 밀접하게 하고 또한 학교 교육제도마저 형식상으로 보아서 불편할 뿐더러 결함이 많다고 폐지되면서 교수는 T·V방송으로 강의를 하면 청강생은 다만 집에 앉아 있는 대로 다이얼만 맞추면서 원하는 강의를 마음대로 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트마저 자동 텔레타이프로 찍혀 나오게 될 것이 아닌가. T·V 와 녹음기가 컴바인 된 것 같은 자가용 판독기(判讀機)를 통해서 신간서적은 손쉽게 구독할 수 있게 될 른지도 모를 일이다. 기술자나 과학자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가 훨씬 고답적으로 확립되는 제도가 국제화 될 것이다. 과학시대가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많아질 빈잡한 산수식 풀이에 있어서도 인간의 두뇌와 손에서 계산기로 옮겨질 것이다. 비근한 예로써 5피이트 8인치 둘레의 바퀴가 8억마일을 굴러 가면 몇 바퀴 도는가 하는 정확한 답을 불과 57초만에 했다지만 $(1234 \times 567) \times 8^9 = 231,837,467,390,148,345,855$. 위도 0.7초로 해치우는 전자계산기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노동은 기계화 되었기에 근로시간도 훨씬 단축되는 반면 수입은 증가되어져서 오락과 즐거움을 누릴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외출시간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많아지고 매스·게임이나 스포츠를 더욱 즐기게 될 것이다. 의학과 약학도 훨씬 발달되어져 질병이나 유행병은 아주 감소되고 불구자의 수효도 무척 줄어드는 가하면 사망률은 줄고 수명이 늘 것이다. 만사를 기계력으로 처리해지는 까닭에 손과 발의 기능이 퇴화되어 갈 것이다. 현재로 우리 인류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천차만별의 가구나 기구도 그 종류가 훨씬 늘게 되는 반면 규격과 형태가 아주 달라지면서도 통일되어져 버리고 짐을 꾸릴 때의 용적 규격마저



윗 그림은 P.S콘크리트로 된 대스판의 건축. 철근은 피아노선이고 유니트로 나누어서 공장 생산해서 공사장에서 조립하는 예.

몇 종류로 규정되어져 버릴 것이다. 남녀의 복장은 비슷하게 되고 식사 준비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환약 몇 알로 대응해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2, 3개월은 거뜬히 견디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나라와 이 민족(異民族)과의 교제는 빈번해지고 언어의 장해라 했자 휴대용 번역기로 치루어 버릴 것이다. 민족별 국가별의 알록도 자연 도태될 것이고 한낱 인종차별을 없앴다고 전쟁을 벌였던「틴컨」의 이야기마저 흘러간 에피소드로 여겨질 때가 올 것이다. 다부(Tabu)적인 신(神)의 존재며 죄악의식을 조작하는 따위의 종교는 도태 되면서 2,500년 전의 회랍민족처럼 신과 인간을 동격시(同格視)하는 관념이 대두되어져 신의 절대사상은 인류의 관념에서 떠나갈 것이다. 신은 어디든지 있다고 여겨왔지만 신은 있는 곳도 없다고 떠들어 댈 것이 분명하다. 공산주의도 체념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맥을 못 칠 것이고 사회주의며 무정부주의며 민족주의에 대한 시비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것들은 필경 그 고도화된 인간의 지성으로 그 행동이전의 목적의식에 대한 분석적 간파가 보편화 되어가는 까닭에 흥미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을 뿐더러 착취자도 없고 피착취자도 없을 것이다. 개성의 존중이란 이기주의에 통한다고 배척을 받고 절대주의란 것도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들 잘 어울려서 자치제도가 고도화되어 문자 그대로 자유, 평등, 평화로운 인류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점차로 소멸되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이 펴 넓혀지면서 규칙 정연한 집단생활이 보편화 될 것이다. 이 집단생활에 적합할 장소가 즉 도시임은 물론이다.

지금까지의 도시가 지정학적(地政學的) 견지에서만 성립되어 왔지만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성도시(衛星都市)로서

전원도시, 상업도시, 공업도시, 행정도시, 문화도시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면서 발달해 갈 것이다. 이러한 도시와 도시는 먼저 말한 고속 교통기관과 벨트식 도로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는 10-15만 정도로 정해지는 한편 기성도시인즉 아무래도 구기술기의 소산임에야 대대적으로 개조되어 갈 것이고 이 개조사업이 불합리하다면 버려둘 것이다. 그래서 고대의「바빌론」이나「니네베」가 폐허화된 것처럼 버림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 위성 도시는 한 개의 「유니트 커뮤니티」가 되고 그 도시 전체를 한 개의 지붕으로 덮어씌우게 될 것이다. 이 지붕은「플라스틱 돔」이던가 고성능 유리로 된 씌우개가 될 것이다. 즉 한 개의 지붕으로 덮인 도시다. 이 도시 내의 기능은 원자 에너지로 충당될 것이다. 건물들의 높이와 양식 등은 제한을 받을 것인데 도시계획과 그 기능은 모두들 사전설계에 의해서 건설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물리학적인 조직체처럼 일사불란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이룩될 것이다. 여기에는 소위「뒷골목」이라 부르는 빈민굴이 끼어 있게 될 리가 없다. 건축이 공간예술인 까닭에 지금까지는 민족별, 지방별 또는 시대별에 따르는 양식이 각각 달라졌고 따라서 건축가도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려는 수법을 답습해 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우주 시대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결합에 보다 더 충실하려는 스타일로 될 것이다. 기계를 장치한 건축기계에 감싸진 건축「메카니즘」화한 사회 기구를 조정하는 건물들의 그 본질적인 형태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기능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이 더욱 일치되어져 외관은 단순해지고 미적 감각으로 보아서는 보다 더 무기적인 구성으로 되어갈 것이다. 그 기계 미학적인 냉철함을 피하려고 유기적인 감각을 조장하면서 휴머니티한 감각을 찾아보자는 주의주장이 통하는 현재의 문화 조류는 과학시대가 그대로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은 설비와 목적이 그 형태를 낳게 하고 구조와 재료가 이것을 성립시킬 것이다. 가장 센「하리케인」태풍의 초속이 겨우 80미터인데도 가옥은 고사하고 나무뿌리마저 뽑아 넘겨 버리는데 음속 이상으로 나는 항공기는 초속 340미터 이상의 풍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날고 있다는 것은 그 구조의 탁월함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적은 부재로 보다 가볍고 보다 더 초 압력에 견디며 또한 경제성을 더 부르는 이 항공기의 구조법은 그만큼 모든 조형체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것만은 사실이다. 건축의 구조기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항공기의 역학적 구조 기술을 응용해서 그 어떠한 규모나 형태 이건 간에 대담하게 이룩할 수 있는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체에 합당한 재료의 대대적인 출현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여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며 철골구조 따위는 유지하기 짝이 없다고 여겨버릴 때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위성도시나 기성도시에 건설될 앞으로의 건축은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한 설비가 기계화되는 한편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의식적인 예술성이나 지방성 또는 민족성을 각각 양식화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생산성에 대한 관리나 운영도 한 사무실에 장치된 자동 조정기의 보턴을 누름으로써 조종될 것이다. 상상컨대 여러 가지의 자동적인 공장, 창고, 그리고 자동적인 판매소와 관련되는 상품의 유동대사(流動代辦)를 자동적으로 콘트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화폐나 증권이나 다른 통계조직(統計組織)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계두뇌(機械頭腦)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이른바 무인조종화(無人操縱化)될 것이다. 현재로「미래세계」에 대한 건축을 개인적으로 착상하거나 연구해 보는 건축가로서는「후레데릭 제이 키스러」(Architect Frederik J. Kiesler)와 젊은 건축가「산포드 호하우스」가 있고 단체적으로는 미국의「제너럴·에렉트릭·모터스」회사와 국민연구원의 건축가 합동(National research corporation and Architect collaborative)단체가 있다. 키슬러는 벌써 1923년 파리의 만국 박람회 때에「공중도시 계획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고 현재로는 자기의 소론인「끝없는 공간론(Endless space theory)」에 의해서 무한공간(無限空間)을 상징하는 타원형 편면의 주택을 발표하면서 이것을「미래의 주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무한공간」이란 지구와 이것을 감도는 인공위성 또는「우주공간(Outside space)」은 둥글거나 타원유적이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운동의 반복」으로 결국은 무한성(無限性)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인류의 생활감정은 이 무한한 공간성에 관심이 집중되어지면서 인간과 우주공간과의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인식되어지는 까닭에 우주시대의 주택에 다도 이 무한성을 상징시켜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편면과 입면은 타원형으로 이룩했을 뿐 아니라 실내의 채광은 아침 낮 저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자재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카메라의 필터(Filter)와 조리개(Fade)를 겸한 창(Window)을 연상시키고 있다. 즉 필터 역할을 하는 프리즘 유리(Prism glass)에서 스며드는 광선을 조리개로 하루의 세 때에 맞추어 조절하면 광채와 색으로 지구의 이동 즉 우주와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느껴짐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접근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조명(電燈)은 자동적인 이동식으로 해서 방안을 걸어다니는 사람만을 비치게 한다면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이 그 대요다. 「호하우스」도

주택의 연구테마를 두고 있다. 키스러의 평면과 입면에서는 다소 불규칙하고 유기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이「호하우스」의 것은 평면, 입면, 단면에 있어서 모두 달걀형(卵型) 그대로이다. 본인의 말로는 달걀의 형태에서 착상을 얻거나 모방한 비는 아니라는 것인데 이것은 목적추구의 결과가 우연하게도 일치되어 버렸다고 볼 바다. 이 타원형도 키슬러처럼 끝없는 공간성에의 상징에서 오는 결과이다. 구조의 뼈다귀는 철재이고 이 철재에다 철망(Mesh)를 붙이고는 콘크리트를 뿔어서 완성시켰다는 것인데 미국의 버지니아주 바닷가의 바위 언덕에 세워질 것이라 한다. 위의 두 가지는 어느 개인의 과학 정신에 따르는 사회관 내지는 역사관에 의해서 개별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는 만큼 거기에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의 착상 혹은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미래의 건축문화를 말하는데「리처드 박민스터 홀러」(Richard Buckminster Fuller) 박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의 직업을 수학자, 철학자, 기술자, 제도사, 발명가, 교육자, 저술가 건축가로 쳐 본들 어느 한 가지에만 한정되거나 완전한 것은 없고 조금씩은 겸비한 사람이라는데 한때에는 몽상가로 쳐서 그의 이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그의「위대한 고안물(考案物)」이 미국을 비롯해서 아프카니스탄, 일본, 인도, 버마, 소련, 타이……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에「지측선(地測線) 돔」(Geodesic Dome)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돔의 구성은 공(球)의 장점과 사면체(四面體)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인데 여기에 공의 장점이란 최소한의 표면면적으로 최대한의 용적을 감쌀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가장 굳센 내력(耐力)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사면체(삼각형으로 조립된 사면입체)의 장점이란 그 표면적의 용적이 최소한도인데도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는 가장 굳세다는 것이다. 그래서 돔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구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증가되는 만큼 대소의 돔은 말할 것도 없이 한 개의 구역(區域)이나 도시(都市)의 지붕을 씌우는데도 쉽게 응용된다는 이른바 Energetic Synergetic이란 그의 독특한 기하학 체계로 이룩된 것이다. 이 돔은 또한 적은 토막(소부존의 단위)으로 조립되는 만큼 시공이 쉽고 공사비도 적게 든다는 특색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별명이 Dome Man이고 「Designer of Space age fuller」로 통용되곤 한다. 그래서 우주시대에 있어서의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도시계획에서는 이「제오데릭 돔」에 힘입은 바 클 것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인류의「꿈」은 현실로 되어 가고 이 현실은 과학의 힘이 실현시킬 것이다.

미래의 동력(動力)



이종수(李鍾秀)
<한국일보 기자>

동력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추진제다. 그 추진제가 풍부할수록 문명의 도는 높아져가게 마련이다. 유사이전의 인류는 사람의 힘밖에 이용하지를 못했다. 그것이 불의 힘을 쓸 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진보의 길을 더듬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동력의 원천을 찾아내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력 풍력 따위 자연력을 비롯하여 석탄, 석유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게 되면서 오늘과 같은 문명의 꽃을 피게 하였다. 이미 원자력이라는 획기적인 동력도 이용하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밖에 아직도 새로운 동력원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가속도가 붙어 발달하는 문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하여 충분한 동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만도 동력의 수요는 오늘 몇 갑절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백년대계는 충분한 동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세워져야만 순조롭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면 장래 할 세계에는 어느 만큼이나 동력이 수요될 것인가. 그리고 그 때는 어떤 동력원이 개발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미국에서「장래의 에너지」라는 책이 간행되어 나왔다. 저자는 당시 원자력위원회의 기술고문이었던「파머·푸트남」이라는 사람. 그는 오는 2050년까지 인구가 약 63억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숫자는 당시(53년)의 인구 약 20억의 3배에 해당되고 있다. 그런데「푸트남」은 당시에 비해 2050년에는「에너지」수요가 약 20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내렸다. 그는 1950년부터 2050년까지의「에너지」총수요량은 72Q가 될 것이라 하였다. Q란 석탄으로 환산해서 380억톤에 해당하는 중대한「칼로리」를 나타내는 에너지 단위다. 72Q 가운데 화석원료(석탄, 석유 등)가 38Q를 차지하며 태양열, 신탄(장작, 숯), 풍수력 등이 8Q, 그리고 나머지는 원자력으로 충족될 것이라고 그는 추정을 내렸던 것이다.

72Q란「에너지」량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한번 음미해 보자. 인류가 탄생한 이래 1850년까지 소비한「에너지」는 겨우 약 6Q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로부터 1950년까지 백년간에 약 4Q로 늘어났다. 2050년까지의 백년간에 72Q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이상의 비교로 명백히 들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아직까지는 문명을 밀받침하는 동력원으로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닥칠 장래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말할 것도 없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따위 화석연료는 동력원으로서 비길 데 없이 좋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잘 타고 열량이 풍부하니 많기만 하면 딱 동력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화석연료의 매장량엔 한도가 있다. 전 세계의 석탄, 석유 따위를 전부 굶어 모아본대야 약 100Q정도고 그중 경제적으로 개발해 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반쯤이 될까 말까다. 거기다가 석유 화학의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석유는「플라스틱」등 귀중한 유기공업 약품원료로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연료로서 무작정 태워버릴 것이 아니라 화학공업 원료로서 사용해야 한다. 수력 따위를 가능한대로 이용해서 석유에서 얻은「에너지」를 대신해서 보충해야 된다. 그러나 풍수력에서 얻을 수 있는「에너지」도 제한되어 있다. 지구상의 각 나라가 강을 막고 담을 쌓아 수력을 전력으로 바꾸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앞으로 더 개발할 여지는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다. 풍력 발전이라 해도 효율 같은 점으로 보아 그다지 대수로운 것이 못된다. 나무를 태워서 얻는「에너지」도 한계선이 있다. 원자력을 제외한다면 다음에 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태양「에너지」다. 태양「에너지」는 수력전기로서 간접적으로 이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에는 개발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다. 문제는 태양「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직접 이용하느냐다. 지구가 1년간에 받는 태양「에너지」는 5,300Q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열량이다.

제2차대전은 2발의 원폭이 끝을 맺게 했다.

TNT 2만톤에 해당하는 원자폭탄 2발 때문에 일본의「히로시마」,「나가사키」두 도시는 그대로 축발이 되어버렸다.

그 무서운 원자폭탄이 매초에 천발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히말라야」산맥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태평양이 그대로 말라붙을 것이다.

그런데 지상의 생물은 매초 천개 꼴의 원폭이 내는「에너지」가 아니면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주는 총「에너지」량은 이와 같이 막대한 양이지만 그것이 전 지구상에 그대로 깔리는 것이니까 매 평방「미터」에 쏟아지는 양은 그다지 풍부한 것은 아니다.

즉 지표에서 매분 1평방「센치미터」에 약 1.3「칼로리」의 태양열을 받고 있니까 1평방「미터」로 치면 1「킬로와트」의 전열기를 놓는 셈이 된다.

24시간 계속 매 평방「미터」서 1「킬로와트」의「에너지」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낮과 밤이 있고 개인 날과 흐린 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태양열을 모아 통조림을 만들어야 한다.

태양열의 저축방법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태양열을 농축해서 한 곳에 집중시켜야만 쓸모가 있다는데서도 어려운 문제는 남게 된다.

거대한(렌즈)를 만들어 태양광선을 강력하게 초점에다 모아야만 태양발전 같은 것이 가능한데 그 기술이 그다지 안이하게 개발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열 이용에 관한 연구는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다.

끊임없이 뿌려져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태양열을 이용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을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푸트남」은 태양열, 풍수력 등 동력원에서 나오는 미래(2050년까지)의「에너지」를 8Q로 보고 있다. 그것은 그때까지 태양열 이용 연구가 완전한 개발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인 것 같다.

「푸트남」의「에너지」수요량에 대한 추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없지만 지금의 정세로 보아서는 그 숫자를 넘어서면 넘어섰지 그 이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세계에서 어떤 유력한 새로운 동력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문명의 발달은「스톱」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푸트남」도 기대하고 있듯이 원자력이라는 유력한 동력원이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다가올 이 2050년까지의 세계에서 원자력에서 얻어낼「에너지」를 26Q로 추정할「푸트남」의 의도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그는 곧 원자력의 이용이 실용의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지구상에는 이용 가능한 원자력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선진 여러 나라에서 건설되어「제3의 불」에 의한 전기가 얻어지고 있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요금과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요금과 어느 쪽이 싸냐 하는데 있다.

아직은 화력발전 쪽이 싸게 먹고 있긴 하다.

그러나 석탄이 줄어감에 따라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요금이 더 싸게 된다.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저렴하게 하려고 예의 연구 중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단가가 보다 내려질 날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 올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요금이 서로 맞비기는 것은 대략 67년도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원자력발전 방식이 마련되지만 하면 원자력 연료는 풍부하게 있으니까 당분간 동력원 걱정은 없게 된다.

현재 지구에는 개발 가능한「우라늄」이 2천7백만톤이나 매장되어 있다.

이 양은 약 170Q에 해당된다.

그 위에 우리나라에도 풍부히 있는「토리움」이「우라늄」의 3배나 지구에 매장되어 있다.

「토리움」을 이용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 방식은 아직 연구 중에 있긴 하나 완전한 해결을 볼 날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수백년 같은 핵분열 방식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으로 필요한 동력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수백년 뒤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역시 비관할 것 없다.

하늘의 태양을 지구상으로 옮겨오면 된다. 수소와 수소가 융합되어 막대한「에너지」를 내는 태양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말이다.

수소와 수소의 급격한 융합으로 막대한「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이미 수소폭탄에서 실현된바 있다.

앞으로는 그 융합을 서서히 조절 통제하는 방식을 개발하면 된다. 그 연구는 지금 이때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 방식이 완성되면 수소다는 해수중에서 얼마든지 얻어내면 된다. 그래서 영원한 장래까지도 동력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의복(衣服)



김윤숙
<숙명여대 교수>

필자는 장래 할 세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단순히 추상명사에 지나지 않았던「인류」란 관념이 생생하게 구체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인류 의식에서부터 지상의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더 넓은 차원에서 검토되고 인류로서의 자각에 의하여 이데올로기의 교조화가 방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사고 양식의 평화적 공존과 지구적 규모로 확대된 데모크라시 사상은 마침내 세계 정부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 오는 21세기를 가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류의 최종적 유우토피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가 통일되어 군비가 철폐되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류의 침략적 에너지 전부가 평화적 개발에 사용되고 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학적 진보의 세기일 것이나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두 가지 파괴력 즉 그릇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와 과잉인구라는 경제적 이유는 인류를 몰아 새로운 우주개발을 시도케 할 것이다. 오는 세기는 우주여행과 혹성식민의 준비시대가 될 것이다. 한층 더 먼 장래에는 달이나 화성이 지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개발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혹은 이에 이르는 중간책으로 인공위성 도시나 혹성간을 날아다니는 대우주선을 상상할 수도 있다. 이런 우주공간 거주자는 지구상에서의 인간의 변형과는 전혀 형태를 달리하는 변형을 누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는 세기 기간에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못하리라.

× × ×

대저 어떤 세계에서건 인간이 인간으로 생활하는 한 의생활(衣生活)은 필수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상정하는 장래할 세계에서의 미래의 사회생활을 추측하는데 있어서도 역사적인 고찰을 빼놓을 수 없다.

한 시대의 문제는 과거와 떠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생활 전체가 과거와 관계를 가지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세계의 인간들의 복장도 과거의 복장과 관련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있던 인간의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 변화됨을 피치 못할 것이다.

복장의 역사가 산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입는

복장이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장이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각 시대의 복장은 상호간에 유기적인 필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복장을 끊임없는 흐름속의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 무엇을 입었느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입었느냐를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복장이 인간생활의 표현이라면 무의미한 새로운 형이 생기거나 변화하거나 할 이치가 없지 않겠는가? 반드시 원인이 그 사회생활 안에 있을 것이다.

참으로 복장문제는 단순한 포백의 문제가 아니라 산 인간의 문제이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치마와 바지의 투쟁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의복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입은 인간 자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복장의 본질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연결이 되어있다.「제2의 피부」가 된 복장은 하나의 사회의 습관이 되어버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만을 생각할 뿐이지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는 마치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며 살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치 한가지로 의식치 못하고 지낸다.

그러나 의복은 결코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나라와 민족에 따라 그 양식이 달랐고 같은 사회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내려왔다. 다만 습관 속에서 살고 주어진 것을 의심하지 않고 좁다란 자기 주변에서 취미와 독창을 운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의복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

스피이드한 현대생활의 템포는 자연 여러 모양으로 의복에도 나타나고 있다.「계절이 없는 의복」(Seasonless dress)의 출현은 교통기관의 스피드화로 인하여 일일이 계절에 맞추어 의복을 갈아입는 불편을 면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복의 형에 있어서도 상의를 떼 내면 소매 없는 원피스가 되고 상의를 붙이면 스프가 되는 식의「양상불」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보급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무계절의 의복은 또한 생활양식의 과학화에 따라 여름철이지만 지나치게 서늘한 냉방장치의 장소에서 현대인의 독특한 의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의복으로서 여행시에 휴대하는「구길 수 있는 의복」(Smashable ware)이란 것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여행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도 일단 꼬집어내서 걸어두면 맵시 있는 스타일로 회복이 되는 합성섬유직 의복을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장의 경향이 점차로 변천하여

새로운 것이 뒤이어 나타날 뿐 아니라 복장의 습관, 의복의 형, 복지 자체 까지도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복장의 일부분 또는 편리한 복장의 형식이 국경을 넘어 널리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의해 착용되는 형편에 있다. 복장의 국제화는 앞으로 더한층 박차가 가해질 것이 예상된다.

어떤 민족 고유의 의복인 소위「민족복」이란 것도 그 특징이 평균화되고 있는 사실은 근대화에 따르는 문화적 일체화란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0세기의 복장의 특징은 기능 제일주의에 있다고들 말한다. 특히 여성의 생활의 혁명적 변천으로 복장의 합리주의적 고려는 모든 유행에도 불구하고 근간적인 의생활상의 원칙이 되어있다.

새로운 화학섬유의 발달로 인하여 의복재료가 여러 종류 대량으로 생산됨으로 다수민중이 용이하게 그것을 구하여 옷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기성품이라는 생산판매방식이 보급됨으로써 복장에 있어서 차별을 발견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유행이란 것도 하나의 시대적 경향을 나타낸다. 아무리 새로운 유행형이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것, 즉 기능적으로 소용없는 것은 보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 의복의 경향의 하나로 복장 간략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약장의 추세는 앞으로 일층 더해질 것이 틀림없다.

× × ×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고도의 문명을 누리게 될 장래 할 세계에 있어서도 인간이 몸뚱이를, 더 정확히 말하면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도는 줄어들 기보다 도리어 높아질 것이다. 생활환경의 일대 개선으로 말미암아 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즉 살아 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의복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이지만 피부의 강인성을 생각해 볼 때 도리어 앞날의 사람들은 약해질 것이라고 추측 된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어도 기후나 온도에 대한 적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활이 변혁될 수는 없을 것이니 한서(寒暑)에 대한 보온의 필요상 의복은 여전히 불가결한 것이다.

또 오는 세계의 사람들의 생활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그 이중에 따르는 소지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것임으로 친히 몸에 무엇을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활동상의 필요에서도 역시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의복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은 장래할 세계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올 세대의 의복은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언할 수가 있다면 다음 같은 점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의식공용(衣食共用) 섬유의 발명이나 경량내구(輕量耐久) 섬유의 출현은 꿈 아닌 사실로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미「부직포(Non-woven fabrics)」라고 불리는 짜지 않은 천이 나왔지만 다음 계단으로 우리는 호지 않은 의복의 출현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문하는 사람의 몸의 사이즈를 입체사진으로 찍어 이것에 의하여 인체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부직포로 성형(成形)한 의복을 만드는 방식을 예측하게 된다. 또 하나 현대 생활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으로서 앞으로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더러워진 의류를 세탁해서 쓰는 수고를 생략하여 그것들을 사용한 뒤에는 버리고 마는 시대의 도래가 상상된다. 대량생산의 능률화에 의하여 의복의 코스트가 점차 낮아지고 제조의 간이화, 스피이드화가 이루어져 양에 있어서 얼마든지 생산되게 되는 날이면 한번 사용한 것은 두 번 다시 안 쓰고 버리는 종류의 것이 많아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 × ×

장래할 세계의 변천된 복장을 상상해 볼 때「형식승격의 원칙」에 의하여 복장은 더 경쾌하고 더 간이하고 과장이 없는 단순한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일상복과 예복(禮服)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차별이 없어질 평민사회이니 만큼 특정의 재료나 형식을 특별히 존귀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 의미도 없는 복장이 인간생활과 결부되어 특권적인 존재가 되는 소위「복장의 인격화」란 현상이 없어짐과 동시에 한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도 천한 형식과 고귀한 형식으로 구별되는 의복생활이 불식되리라고 본다.

이미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된 여성의 해방과 이에 계속된 기능주의적 경향은 복장면에도 강하게 반영되어 그 결과로써「성차(性差)의 몰각(Sexless)」이란 새로운 명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 추세가 촉진되어 오는 세계에 이르러서는 남녀복장의 완전한 무차별이란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고대의 여성은 남성과 같이 생산에 종사하고 전쟁에도 참가하였으므로 그 복장은 남자의 것과 다름이 없는 단조로운 것이었다. 여자의 생활이 육내의 생활로 줄어들며 따라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남녀완전 동등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미상불 의복의 형식이 극히 포피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임으로 남녀의 성적 구별이 따라서 불명료하게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복색(服色)에 있어서 인습상 또는 법령으로 제정하여

자유의 품안으로

이준수

구별하는 일은 완전히 옛날이야기가 되고 흰 색깔을 숭상하게 될 것이다. 즉 작업복이나 사무복이나 가정복이 아닌 일상복이나 특히 여가복(Leisure ware)에 있어서는 평화와 번영의 세계이니만치 순결하고 평화로운 백색일색의 세대를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천연섬유와 화학섬유의 대결(對決)이란 과정도 끝나고 다시 자연섬유를 애용하게 되어 옛사람들 모양으로 견직물과 마포(Linen)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의복 즉 우주복(宇宙服)의 출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먼 장래 우주여행을 자유로이 하게 되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밖에 나갈 때에 진공의 우주에서 방사선, 태양의 직사광선, 열선, 자외선, 우주진, 기타 중력의 변화 등등의 여러 조건에 대응하는 형태와 구조와 기능을 갖추므로 자유로운 행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게 고안되어질 것이다. 이 의복에는 정밀한 기계가 장치될 것은 물론이다.

× × ×

끝으로 한마디 첨가하여 두련다. 현대에 있어서도 생활조형의 세계성에 따라 복장양식의 일반화란 경향이 현저하여짐을 느끼지만 오는 세계에 들어서서는 이 세계성이 더 확립적으로 강력하게 되어 표준화되고 개인을 초월한 인간 공통적인 것이 그 기반이 될 것이다. 복식에 있어서의 향토적(鄉土的)인 것의 상실이라는 사태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관적인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현기증 날 정도의 유행 모드의 변화는 결코 인간의 건전한 정신생활의 발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세계의 사람들은 과학이 모르는 정신의 세계를 오늘날 사람들보다 더 생각하고 또 믿으리라. 정신의 세계는 과학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의 인간은 과학에 현혹하여서 정신을 잊고 있다. 정신의 진보와 정신세계로의 각성이 뒷받침이 되어 장래할 세계의 인류는 평화와 행복을 오늘의 우리들보다 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구제와 세계개량을 염원하는 그들의 복장이 신기한 것을 경쟁할리가 없고 간단, 소박한 형식으로 귀일되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톨스토이」가 의복을 최면술이라고 비유하였듯이 과연 의복은 오늘날 인간의 정신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가장 강한 수단 하나가 되어있지만 앞으로 올 그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질 줄 믿는다.

놈들이 어깨에 메었던 총을 다시 잡아 나를 쏠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히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홍수가 흐르는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도구 없이 자살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거센 물결 속에 몸을 던졌건만 다시 살기위해서인지 끓는듯한 홍수 속에서 정신마저 잊을 뻔 하면서도 생의 의욕을 생생히 느끼면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나 살기위해 휘적거리는 손에 무엇인지 꼭 잡히는 것이 있었다. 살았다는 희열과 더불어 물결에 늘어지는 몸을 힘껏 앞으로 당겨 보았다. 사방을 경계해 보았으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뿐 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다. 비로소 독으로 올라와 숲 속에 엎드렸다. 맞서서 뺨을 쳐도 모를 만큼 어두운 밤에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걸쳤던 옷은 거센 물결이 벗겨가고 별거숭이의 몸이 어두운 밤에 희미하게 노출되었다. 나는 다시 위험을 느껴 우뚝 솟은 산을 향해 최대속력으로 달렸다. 풀잎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로 나무숲이 옥어진 산길을 뛰어가니 몸은 새 풀과 나무에 찢리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몸이야 어떻든지 가량이 짧은 것만이 한이었을 뿐이다. 얼마 후에 비가 그쳤다. 그리고 내 앞에는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소리 없이 몸을 감추고 또 방정맞은 생각을 해보았다. 저 집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살고 있다면 어떤 색의 인간일까? 나는 달라붙는 모기를 쫓으며 사람이 살고 있나를 알기 위해 번소로 생각되는 곳으로 가서 붙어 섰다. 틀림없는 그 냄새다. 집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찾아보았으나 몇 톨의 감자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나는 다시

산정으로 올라가 근처에 부락이 있나 없나를 살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는 세상이 흰해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리저리 기어 다니며 낙엽을 주어다 몸을 숨기고 누었다. 등과 다리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아픔을 참으려고 눈을 감고는 앞으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온몸이 소스라치게 아프기에 눈을 떠보니 몸에 빨간「불개미」가 붙어서 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피가 흐른 상처마다 마른 흙을 뿌렸다.

나는 그저 빨리 밤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산 밑의 부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부락에 내려가면 빈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또 의복도 구할 수 있을 런지? 드디어 날이 어두워지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끌고 부락으로 내려갔다.

부락에 들어서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전에 나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을 뻔 했고 놈들의 총탄에 상처를 받은 생각을 하니 더 갈수 없이 공포감이 다리를 잡아 세우는 듯 했다.「공포감이 생기면 행동을 중지하라」교육을 받을 당시 교관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여유 있는 말이 아닌가? 무엇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도망이라도 갈수 있지 않는가? 생각 끝에 20여 호 되는 부락을 여기저기 헤매어보았으나 얻은 것은 세 자루의 옥수수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명으로 된 옥이 잠뎀이를 얻어 몸에 걸칠 수가 있었다.

나는 결심을 다시 했다. 이제부터는 한발자국이라도 빨리 남으로 가야 한다. 한 번의 경험이 나의 선로(選路)를 택할 것이다.

나는 이 풀 저 풀 먹음직스러운 풀을 뜯어먹어 가면서 때로는 소나무 껍질도 벗겨먹으며 그저 남쪽을 향해 걸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나의 빈 배속을 채울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익지도 않은 사과란 머루 다래를 따서 씹어가면서도 공복을 극복해 보았으나 끝내 참지 못하고 10일이 지나서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게 되었다.

부락으로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하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끝에 성냥을 얻었다. 나는 부락 제일 간역에 있는 집에 들어가 연기가 나는 굴뚝 옆 추녀 밑에 불을 놓고 반대편 집으로 뛰어가 숨었다. 잠시 후에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부락민들이 불난 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으나 내가 가기를 기다리는 집에선 웅성대는 소리만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 사이에 불길은 사정없이 검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그때서야 내가 기다리던 집에서『불이야』소리를 지르며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뛰어났다. 집안이 빈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찰라 뒷문이 활짝 열리더니 총을 든 4명이 뛰어나와 나의 옆에 엎드렸다. 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그들을 주시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총을 어깨에 메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불이 났으니 내일이면 놈들이 와서 화제의 원인을 조사할 것 아냐? 그러니까 우린 모래쪼 온다고 편지나 써놓고 빨리 산으로 올라가자.」그러더니 한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나와서는「모래 밤12시에 다시 온다고 적었다」고 하면서 적당한 간격으로 흰하게 비치는 불빛을 등에 지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뒤져서 국방색옷 한 벌과 조그만 자루에 들어있는 약 두 되 가량의 가루를 들고 산골짜기를 흐르는 냇가로 달렸다. 모래 같은 가루를 몇 주먹 집어넣고 물을 마신 후에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발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남십자성을 찾아 걸어갈까 하다가 잠시 생각을 했다. 아까 그 집에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틀림없는 아군이다. 그러나 내가 그자들에게 제시할 증거품이 없지 않은가? 나는 놈들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어 보려고 그들이 내려온다는 날까지 산에서 기다렸다가 그날 12시경 그곳에 먼저가 엎드려 있었다.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나 밤이 깊어 세상이 조용할 때다. 내 앞에 검은 사람 두 명이 나타났다. 나는 그들에 발 각되기 위해 기침을 하려다가 용기를 얻지 못하였다. 몸을 숨겨 그들을 미행하여 보니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약 30분후에 밖으로 나와 전번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잠시 동안 그들을 따라가다가 있는 용기를 다 내서 그들을 불렀다.「유격군 동지들」

「누구야!」그들은 재빨리 총을 내 가슴에 댔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들과 같이 산으로 올라갔다.

역시 그곳도 과거 우리들이 생활하던 것과 조금도 다른 생활이다. 처음 며칠 동안은 유격군 동지들의 총을 닦아주다가 일주일도 못되어 쇠약해진 몸 에 결국 병이 들어 산중에 눕게 되었다. 약 일주일후에 정신을 차렸으나 몸은 나의 정신과 분리된 것 모양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았다. 며칠이 지나 몸이 좀 회복되었다 생각할 적에 괴뢰군들로부터 노획한 아시보기마단 총(銃) 한정을 받았다. 이것을 받아들고 재생한 기분으로 유격군들을 따라다녔으나 쇠약해진 나의 몸은 비호같은 유격군들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고 그들과 같이「비위골」작전에 참가했다.

새벽 4시를 기해 놈들이 즐고 있는 틈을 타보았으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보니 8명의 괴뢰군이 민간집에 갇혀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흰하게 동이 터 밝아갈 무렵 삼, 사, 오로 나가는 자동소총의 신호탄 소리를 들으며 놈들에게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놈들이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있기에 나중에는 수류탄공격과 집에다 불을 질러 놈들을 소탕시키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전투에서 용감한 전우 1명을 잃었다. 총에 맞아 최후발악을 하던 놈의 수류탄에 맞아「고만복」군은 2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름도 성도 기록하여보지 못한 무명의 용사였다. 특히 전우애와 용감성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 기습작전에서 식량 실탄 및 놈들이 메고 다니던 담요를 벗기어 피가 흐르는 고만복군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양지바르고 나무가 무성한 곳에 묻어 주었다.

그 후에도 교량파괴, 철로차단, 터널폭파 등 놈들의 보급을 지연시키는 작전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점점 줄어가는 총탄을 보충시킬 길이 없었다. 실탄을 구하려 여러 곳으로 놈들의 주둔지를 기습했으나 가지고 있던 실탄만 점점 적어져 결국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총탄이 없어 작전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처에 있는 정보원을 통해 총탄을 구하려 해보았으나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작전을 중지하고 며칠이 지난 후였다.

평산군 마산면에 있는 노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국군이 복진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수십명의 괴뢰군들이 죽은 것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묻은 곳이 있다는 것이다. 그 노인의 말에 의하면 놈들을 묻을 적에 어깨와 허리까지 매달았던 총탄을 그대로 묻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보를 분석해 보았다. 깊이 묻혀 있지

않은 놈들의 시체와 같이 썩어가는 총탄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놈들이 땅속에 묻힌 지 근 일 년 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 끝에 우리는 정보원의 뒤를 따라 그다지 높지 않은 산중턱으로 갔다. 그곳엔 거의 다 매워져 가는 호가 있고 나무도 여기저기 하나씩 서 있었다. 50세가 훨씬 지나 보이는 정보원 아저씨가 여기저기 삼을 찢러보다가「이 구덩이를 메울적에 내가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를 한번 파보게」하면서 한곳에 삼을 쫓았다. 경비병을 제외하고 우리는 모두 그곳을 열심히 파헤쳤다. 약 10분 동안 팠을 무렵이다.

산짐승 같은 우리들의 코에 말할 수 없는 악취(惡臭)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약 30분후에 발굴 작업을 끝내고 산으로 올라와 악취 나는 실탄을 물에 닦았다. 돌로 문지르기 전에는 미끈미끈한 것이 영 지워지질 않았다. 실험삼아 실탄 속에 화약을 빼서 불을 질러보니 예상한대로 잘 붙었다. 전 대원이 실탄을 분배하여 지참했다.

그 후부터는 실탄을 노획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면 중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발의 실탄이 없어도 출동하여야 된다는 급한 정보가 들어왔다. 폭격에 맞은 부상병과 일선에서 부상을 당한 놈들을 민간인들이 업고 10시부터 11시 사이에「물매고개」를 통과한다는 정보다.

인솔하는 괴뢰군은 1개 분대 병력에 장교가 한 명 끼어서 인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고개중턱 험한 길옆에 배치하고 놈들이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냇가를 건너는 부상병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들은 배치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격권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5명 일제히 두발씩 집중사격을 한 다음 밖으로 나와 7명의 괴뢰군을 생포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구출했다.

우선 우리는 놈들이 가진 실탄부터 빼앗았다. 7명 전부 합쳐야 40발 뿐, 도리어 10발이 마이너스 된 셈이다. 부상병들은 전원 그곳에 두고 민간인들을 데리고 제3의 집지로 갔다.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이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유격대장의 결심대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보내고 5명은 남한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격군 안내원을 시켜 남한으로 보내주었다. 나도 그들과 같이 따라 나올 생각이 간절했으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 곳에 머물렀다.

그 후 어느 날 우리는 중공군 집결지를 기습하였다.

그러나 뜻밖으로 중공군의 증원부대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는 치열한 전투 끝에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 나는 민가에 숨어 하루를 보내고 밤에 학생복 차림으로 그 집을 빠져나와 미리 정했던 제5의 집결지에 가 보았으나 한명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러자 새벽에야 민간복을 입고 동지 김두현군이 찾아왔다.

우리는 타 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려 보았으나 이들이 지나도 다른 대원들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현군과 나는 민간복에 총도 갖지 않고 남쪽 하늘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역시 그 곳 주민들과 외상거래를 하며 15일만에야 일선으로 생각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아마도 고랑포 북방 7-8마일정도 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밤 10시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이곳은 최전방이기 때문에 지뢰가 빈틈없이 매설되어 있다는 정보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지뢰를 피해 적진을 탈출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 남지 않은 전선에서는 지형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동안에도 시간은 자꾸 흘렀다.

다시 일어나 남쪽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나의 발에 무슨 줄이 걸렸다.

지뢰선이 아닌가 하고 가만히 만져보니 뜻밖에도 전화선이었다.

나는 살았구나 생각하며 두 손으로 전화선을 꼭 쥐었다. 이 선을 따라가면 지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을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한다. 끝에는 놈들이 앉아있을 것이다. 결국 암호를 모르는 우리는 전화선을 합선시키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전화가 통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가설병이 나오리라는 생각에 합선을 해놓고 약 2보 뒤 도랑에 큰 돌맹이 하나를 주어다놓고 전화 수리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 1시간 30분정도 지나서야 북쪽에서 중얼거리는 신호가 들렸다.「어디에서 끊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동무 거기서 찾았어」하고 뒤에 따라오던 놈이 묻는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려져 조사하지는 놈들의 소리가 푹푹하게 들렸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중공군의 주둔지역이 아닌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때 한 놈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야전전화기를 어깨에 메고 옆구리에는 무엇인지 주렁주렁 매달고 다가온다. 나의 앞에 와서는 전화선을 붙잡고 서서 옆구리에 찬 연장을 푸른다. 이때와 뒤에서 달려들어 놈의 목에다 팔을 끼고 머리를 앞으로 내려 누르는데 준비했던 돌로 두현군이 그놈의 머리를 내려쳤다. 우리는 재빨리 놈이 가졌던 연장과 옷을 벗기어 갈아입었다. 두현군에게 그놈의 복장을 입히고 놈이 지참했던 전화수리도구도 매어주었다.

나는 다시 돌아서 전화선을 끊어놓고 그 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 약 100메타 전방에 2명의 괴뢰군이 나타났다.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 놈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지나갔다.

그들이 우리들의 앞을 조금 지나자「서 누구야」하고 수하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우리 앞을 지나가던 놈들이「조」하니까 수하를 한 맞은쪽에서는「국」하고는 그만이다. 나는 엎드린 자리에서 두현군을 불렀다.「두현아 우리가 알려고 하는 비밀은 다 알았으니 지금부터 빠졌이 행동해도 될 거야. 놈들의 암호는「조국」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화선을 잡고 두현군은 서서 걸어가고 나는 그 뒤를 약 5휘트 간격으로 포복을 하며 따라갔다. 그러자 앞에서「누구야」하는 수하소리가 났다. 두현군이「조」하니까「국」하고는 우리들의 앞으로 다가오며「동무들 전화선을 빨리 좀 수리 하시오. 중대본부에서는 아까부터 전화가 불통이라고 연락병이 가고 야단인데」하고 두현군의 옆에 섰다. 그러자 두현군도 침착한 어조로「어디가 고장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중대본부까지 사이에 고장날만한 곳이 없을까?」하고 응수했다.

「여기서 중대본부까지는 약 150미터밖에 안되는데 그 안에서 고장난지 모르니 빨리 조사해 보십시오」

놈들의 말을 뒤로 남기면서 두현군은 전화선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경비를 하는 놈이 있어 주춤하고 있다가 포복을 하여 따라갔다.

거기서 두현군과 나는 옷을 바꾸어 입었다. 내가 놈들의 전화수리병이 된 것이다.

나는 다시 능선으로 뻗어간 전화선을 붙들고 돌아가는데 앞에 총을 멘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더 나가려면 그 놈이 가진 총이 필요할 것이다. 전화선이 없는 곳에 어떻게 전화기를 메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두현군에게 손짓을 하여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전화선을 수리하는 척 하다가 그놈을 향하여「아유」소리를 조그맣게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경비를 하던 괴뢰병이 달려 왔다.「동무 지금 전화선을 수리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좀 봐주세요」하고 응석을 부렸다. 그러자 그는 내 앞에 총을 놓고 얼굴로 손을 왔다. 그가 나의 얼굴을 드러다 보려고 할 때 뒤에서 두현군이 뒤통수를 내려치고 나는 다시 명치끝 밑 급소를 올려쳤다.

두현군은 어느새 옷을 가로입고 전화수리도구를 놈의 배위에 올려놓자

능선을 넘어 비탈길로 내려섰다.「누구야」하는 차가운 수하소리에「조」하니까「국」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앞을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 그 앞으로 다가서며「동무 지금 저쪽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못들었오」하고 손을 들어 우리가 올라온 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그는「못들었습니다」하면서 그쪽을 본다. 두현군이 침착한 어조로「그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하자 나는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우리는 문화부중대 순찰원이요」하고서 작은 소리로「동무 그곳을 잠깐 갔다 오지」말이 떨어지자 그는 앞에 총을 하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비탈길을 살금살금 돌아 산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놈들의 수하하는 소리는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우리는 좀 더 빨리 포복을 하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을 삼포복으로 기어오는데 철조망이 우리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 자리에 엎드려 사방을 관찰해보니 우리는 양쪽 고지중간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철조망을 뚫고 남쪽으로 건너와 계속 포복을 하며 아군진지로 생각되는 곳에 와서 은폐진 곳에 몸을 숨기고 한참 엎드려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맞은편 쪽에서, 영어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를 부르나하고 그곳을 보니 저어들끼리 오고가는 말이였다.

그러자 3명의 유엔군 병사들이 앞에 총을 하고 우리 앞을 지나간다. 나는 빈 손을 높이 들면서「할로」하고 소리 쳤다. 놀라서 뒤로 돌아선 그들 앞으로 뛰어가서 그들의 호위를 받아 대대본부에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통과한 적정을 설명해주었다.

세계 각국의 의회제도

1962년 현재 87(북한과집(北韓傀集)제외)개국이 의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단원제(單院制)는 38, 양원제(兩院制)는 49개국이다.

양원제의 중요한 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서독, 필리핀, 소련 등이며 단원제는 자유중국, 태국, 파키스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제2공화국에 양원제를 채택했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는 단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1927년에는 62개국이 의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단원제는 18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덴마크」와「뉴지랜드」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했다.

나의 반공시(反共詩)

박기원(朴琦遠)
〈시인〉



북괴의 침입으로 인하여 발발된 6·25전란으로 말미암아 그 악착스러운 공산도배들의 포악한 만행에 짓밟혀 원통하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13만6천이라는 놀라운 숫자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국의 강토를 위하여 공산도당과 싸웠고 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끝까지 붉은 마수들과 대항하다가 마지막엔 값있는 피 한 방울과 살 한 점을 아낌없이 조국에 바침으로써 정의에 대한 민족의 정신을 복돋우고 멸공의 기백을 함양한 승리자들이었다.

그때의 분통하고 치욕스런 피난생활의 뼈저린 원한이 그대로 문학이 되었던 시(詩) 몇 편을 적어봄으로써 하여 반공의 정신을 다시 또 새롭게 하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폐허(廢墟)에 돌아와서

(환도(還都)직후) <졸작(拙作)>

아비를 버리고 어미를 버리고
수두룩 까놓은 농주리마저
낙락 장송 꼭대기에 남겨둔채
빨간 독사의 이빨이 징그러워
새처럼 훌쩍 떠나간 사나이.

가다가 팽개칠 생명의 파편을
차마 못꿨어 찾아든 낯서른 항구



반공시

어느 바위틈에 쭉지를 쉬이면
울분처럼 날아오는 돌팔매에
꿈은 들시습마냥 위태롭기만했다.

악물고 참아오기 실로 세해
이제 지친 향수의 조각을 모아
애달게 돌아와 보는 옛길
장송은 불어져 흔적이 없고
깨여진 질향로엔 불마저 꺼졌는데
허무러진 돌담밑엔
아비의 뺨다귀 어미의 뺨다귀
아 어이하리 어이하리.

내 지금 스스로 마음하여
푸른 창공에 훨훨 나래를 털고
터져라 소리쳐 노래 하노니
구름아래 깔린 허연 폐허위에
아 한그루 장송이여 푸르라.

<1953년 환도직후 형정지(刑政誌) 9월호 소재(所載)>



반공시

염원(念願)

(환도(還都)후 적개심(敵愾心)이
불타는 날) <졸작(拙作)>

기여이 아껴온 도성이기
하늘이 가을처럼 푸르다
무심코 돌담을 헤치면
거기 녹쓰른 파편하나.

엄청난 분노의 기록이었기
오랑캐 피 아직 끈적이고
가만이 눈 감으면
가슴을 찢는 벽력 소리.

잡초가 치욕처럼 커간 폐허에 서서
슬픔을 복수하여 씹어분다.

반공시



피 흘러 강산에 꽃밭되어도
의로써 싸워온 민족의 혼이어니
보라 억척창검 번득이는 정기밑에
북진을 고향치는 용마의 들레임을.

해만치면 내달을 짙은 얼굴들이
푸른 별밑에 찬꿈이 바쁘다.

옥야천리 남북길 티는 날엔
함초록 익은들판 통채로 내것이니
이젠 우리 아무 양탈도 잊은채
그저 소처럼 말없이 살고만 싶다.

〈1954년 6월 의용지(義勇誌) 창간호 소재(所載)〉

이러한 반공노래가 있었다

하중희
〈HLKA음악계〉



세계 제2차 대전의 종결은 조국광복의 기쁨을 안겨준 대신 소련의 정치적 야욕은 줄지에 한반도를 전리품으로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비운의 38선을 그어놓기에 이르렀다.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민족도 하나인 동방의「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오직 평화만을 사랑해온 백의민족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처럼 고운 인정이 오순도순 즐거운 삶의 노래를 불러왔다.

그러나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가꾸어 놓은 이 땅에 나도 아니오 너도 아닌 붉은 무리들을 이리떼처럼 저 북녘 땅을 마구 짓밟아 놓음으로써 민족비운의 역사가 악몽의 주름을 잡아놓았다.

3·8, 6·25, 1·4, 이것은 무슨 수자를 셈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수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가 슬픈 사람들의 일기라고나 할까……

3·8선이 그렇고 6·25전란이 그렇고 1·4후퇴가 그렇다.

모두가 십여년 전의 거치른 물결 속에 입은 상처였지만 덧없이 흘러간 세월 속에 이제는 옛날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류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었던 6·25참변은 공산주의 침략의 야욕을 폭로했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전인류의 규탄을 받게 되었다.

어쩌면 한국동란처럼 동족상쟁의 참혹한 전화를 초래한 예는 없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소련 공산제국주의의 주구들로 이루어진 괴뢰단의 끊임없는 파괴공작과 불법침략으로 강도와 삼천만 동족을 소련에 예속시키려는 음모에서



반공시

맺어진 결과가 그것이었다.
 평화스런 잠에서 깨어난 우리들은 그로부터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비인도적 만행,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지각한 그자들을 송두리째 이 강산에서 없애버리자는 힘찬 맥박은 고동쳤다.
 음악가도 미술가도 시인도 모두 호흡을 같이해서 반공(反共) 멸공(滅共) 승공(勝共)의 가치아래 모였던 것이다.
 공산국을 무찌르자! 오랑캐를 무찌르자! 너도 나도 외치는 구호는 군가에서 가곡에서 동요에서 그리고 대중가요에까지도 물결쳤다.

1. 뭉치어 한덩이된 민주의 세계
 외치고 부르짖는 자유와 평화
 태양같이 빛나는 정의의 행진
 꺾어라 무찔러라 반역의 무리
 후렴 골수에 사무쳤다 민족의 비원
 나가자 반공통일 구국의 길로

2. 조국의 남북강산 피로 물들고
 내동포 죽음속을 헤매는 오늘



반공시

뛰쳐나 건져낼 이 그가 누구냐
 손들고 맹세하라 앞을 나서라

3. 우리는 땅도하나 겨레도 하나
 나라도 하나 오직 하나뿐이다
 원한의 삼팔선을 박차버리고
 새역사 바퀴를 떠밀고 가자.

이「반공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반공 멸공 승공으로 통일의 길을 향해 정신무장을 굳건히 해온 것이다.

밀리고 쫓긴 듯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북에 갈려 있는 형제들 지금은 생사조차 알길 없는 친구들……

다만 고향산천을 눈앞에 그릴 때마다 떠오르는 어린 시절에 부르던 노래를 합창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 바라면서 힘찬 재건의 메아리가 여울지는 오늘의 땀 흘린 보람으로 영광의 날! 민족의 영광을 노래하는 너와 나의 굳은 신념을 모두여야 겠다.

5년간의 이야기

심수명
〈공군대위〉

내가 공군본부로 전속 온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서투르고 분주한 업무를 수행해 오는 동안에 언덕에 깎터나던 나뭇잎이 어느새 수집은 아가씨처럼 가을 바람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다.

—대위 심수명 먼 공중근무—

지금 보고 있는 특명의 이 한 줄이 창밖에 찾아온 계절을 느끼게 했다.

올봄에 본부로 오면서 심은 식목일 푸라타나스 잎이 투명해진 하늘에 어울리는 색조를 띄우고 섰다.

경비행기의 아무진 폭음이 비행장 쪽으로 살아져 갔는데 나는 지금 옥상에 올라서서 이일 저일 비행기 타던 직업의 5년간을 생각해 본다.

관측사 교육을 받으러 사천 비행단에 부임한 것이 5년전 초겨울의 일이다. 같이 간 P나 나나 대전의 구대장 경험자인 신입 중위라 두 서너달은 정신의 반만을 가지고 산 것이 분명하다. 수많은 훈련기의 이착륙 폭음과「Yes」「No」만을 말하라는 직속상관 빨간 마후라의 억센 상급자들 틈 속에 끼어서 반정신은 이미 잃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6개월의 교육이 전부 끝났을 때는 버럭 소리 질러 대화하는 비행단 풍습에 호감이 가고 있었다.

철학이란 것이 비행장에선 너무도 사치한 학문이란 이유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

어느 비행학생의 장례식이 끝난 저녁의 일이다. 진주 시내의 친한 음악실에서 장송곡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여 들으면서 자신을 잊어 보려던 나에게 낯모르는 조종사가 어깨를 치고 맥주집으로 끌고 가 남자들의 풍습을 가르쳐 주던 L소령의 태도가 비행단 인정의 축소라고 느껴졌다.

그 후 서울로 올라온 것이 일년 후의 일이다. 우리에게 맡겨졌던 임무는 주로 동부 산악지대를 중심한 지형관측 훈련이었다. 사진과 좌표로 지시받은 지점을 관측하는 임무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엔 언제나 흥분한 기분이다.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왈츠를 추면서 돌아왔다는 전쟁 때 얘기는 너무도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태백산맥의 초가을이면 높은 봉우리에 단풍이 든다. 이 붉은 가을의 꽃이 차츰 계곡으로 번져 피면 높은 봉우리 위엔 또 하나 새로운 계절의 손님이 내려앉게 마련이다. 이때쯤 시골길엔 소풍가는 때때웃 행렬이 늘어난다.

이렇듯 계절은 눈으로 느끼게 되었고 공간에 대한 관념이 건방지게 변해갔다. 고도 7천, 강릉까지 몇 분, 춘천까지는 몇 분 하는 식으로.

이러는 동안에 나는 가끔 생명 있는 조국 땅을 의식하곤 했다. 높은 산은 골격이요, 넓은 벌판은 근육이다.

호르는 강은 정맥이요, 마을마다 연결된 도로는 동맥이다. 그 속에서 나는 다정한 고향향 한국의 호흡을 들으며 살았다.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해군 함대와 공격연습을 하는 임무는 공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었고 무한한 바다의 침묵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강능은 전쟁 때의 공군과 깊은 인연을 맺은 도시다. 이곳이 우리 임무의 동해안 중심지 오비트 포인트(Orbit point)였다. 강능엔 경포대도 유명하지만 공군의 전설이 일등이라고 한다.

C대대장과 동승하여 강릉에 들어서면 적은 소나무 밑에 깃든 옛말까지 소개해 주었다. 이곳 강릉에서 북으로 5분이면 내가 자란 고성 금강곡(金剛谷)이다. 떠난지 15년이 된 고향이다.

사변 때 모두가 부서지고 풀만이 무성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어린 날의 고향을 그려보고 있다. 모형 비행기를 띄우면서 하늘을 배웠고 하늘 높이 떠다니는 비행기를 보며 내 장래를 꿈꾸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비행기를 타는 직업인이 되었다. 남강과 적벽산 언덕 위를 비행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얼굴들을 생각했어야 하겠는가.

강능에서 북으로 5분!

가지 못하는 고향 5분의 거리.

이것은 이미 개인 이전의 슬픔이다.

앞으로의 소년들이 이런 슬픔을 모르고 살도록 할 뚜렷한 의무를 내가 느끼고 있기에 별공 필승의 신념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는 것이다.

금강의 봉우리 봉우리들이 수많은 변화를 초월하여서 불상 같은 자태로 호미하게 서 있을 뿐이다.

나는 또 보람찬 대열속의 일원이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 5·16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공군 사관생도의 시위행진을 호위 비행하던 일이다. 현장에서 송신되는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웅장한 대열의 상공을 날아들 때 우리 편대의 동작 하나 하나를 중계하던 아나운서의 열띤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부패와 무능을 무너뜨리고 조국의 장래를 기약하여 일어난 투사들!

홍분과 열망 속에 가슴 벅찼던 5·16

산(山)

김석철(金錫喆)
〈공군병장〉

…산

별경계 벗겨진 알몸둥이 인채
피로 울먹이는 딱딱한 가슴을 열다.

타게 쬐는 황토 얼굴은
따스한 계절의 원천을 어디에 묻
어두고
저리 서러운 자세인가.

천년 씩스레한 고독이 살고
구름이 나고 사슴이 우는 고향.

이제
너무도 먼 청신(淸新)한 하늘일랑은
안으로만 질투하면서
한줄기 의미깊은 꽃비라도 기다리
는 것일까.

아아
산아 산산산……
그러다가 마침내는
파이란 바람 알알이 나래를 퍼는속에
창성(昌盛)하여 화창할 미래가 있으라.
(기교단 항공병학교)

그 후 날로 발전하는 수도 서울의 모습이 여기저기 반겨왔다. 없어진 청계천 위로 달리는 자동차들, 웅장한 모습의 장충체육관, 서울의 밤을 질서 있게 장식한 가로등과 네온등.

이렇게 문명화한 외국의 도시가 서울로 서울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비행사고 현장을 수색비행하다 순직한 W대위의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서글픔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그가 5년을 같이 지나온 동료중의 유일한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와 내가 같은 비행기로 비행하였었는가? 언젠가 자기 애인에게 썼노라는 편지를 보여주던 일이 되살아와 내 마음을 적셔준다.

—숙아 너 이 포근한 구름의 평원에 오라. 이 아름다운 신의 낙원에서 우리 함께 뛰놀아 보자. 제발 네 하이힐은 벗어 버려라. 이 은색의 비단 구름에 뽕뽕 구멍이 뚫릴 테니까.

아! 이 멋진 구름산을 보렴. 우리 여기서 슬래잡기를 하자. 너는 눈을 가리고 나는 네 등 뒤에서 통통한 뺨에 입 맞추고 숨을 테니까……—

이 어찌 가슴 아픈 옛일이 아니겠는가? 소위 중위로 몰려왔던 동료들이 이젠 소령 대위로 진급했다. 어린애들처럼 요란스레 싸우던 차사주기 운동시합이며 멋과 웃음과 낭만을 승화시키던「크리스마스파티」.

이론은 모르고 실천만을 알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흩어져 새로운 직장으로 영전하여 떠나고 있다. 부디 어디서나 자기들의 내일과 조국의 장래를 미화하면서 다행한 나날들이 계속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듯 많은 옛날들을 삼키고 5년이 흘러갔다. 공군본부로 온지 6개월이 되는 오늘 나는 공중근무 해임을 명받았다. 어느 면에선 흥분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눈 아래 여의도 비행장을 내려다 보면서 나는 더 많은 옛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있다.

어떤 대목에선 눈 감고, 어떤 대목에선 싱겁게 웃어본다. 비행장에선 육중한 수송기의 이륙 폭음이 요란하게 들려온다. 앞으로는 부지런한 천성을 배우면서 새로운 업무에 성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해 본다. 5년간 600시간의 관측사 생활이 이제는 끝나 버렸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비행생활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옥상을 내려선다. 짧은 소매 밑으로 찾아드는 초가을을 만지면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려본다. —지금쯤 높은 봉우리엔 단풍꽃이 피어나겠구나. 언제 또 가을 날이 있을까—라고.

여자가 사랑을 할 때

김영태(金榮泰)
<시인>

1년 전 사상계 잡지에 어느 공군장교 한분이 불란서에 공무로 갔다가 파리지엔느들의 여러 가지 생태(生態)를 카메라에 포착하고 일부분은 사상계 지상을 빌려 화문(畫文)형식으로 화보(畫報)를 만들고 한번은 공보관에서 전시를 가진 일이 있었다.

주로 파리에 사는 파리지엔느, 파리장느의 사랑의 대화, 모습, 고독, 기다림, 희열(喜悅)같은 것을 예리한 카메라의 각도로 묘사(描寫)한 것들이었는데 그 주제를 한말로 붙이면「여자가 사랑을 할 때」로 일관할 수 있다. 그 분이 미혼이었거나, 혹은 로맨티스트인줄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의 여러 장의「스냅」속에서 우아(優雅)하고 향기롭고 감성적인 충동의 포말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영화제목도 같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가장 인생의 감미(甘美)로운 시간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W·막시모후」가 그의 소설「그래도 인간은 산다」를 집필할 때 이런 문장이 있다.「……그 여자의 손이 장난감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자가 사랑을 할 때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무시될 수도 있다. 단지 흘러가는 시간의 감회, 순간의 변화, 그리고 조용하고 순결한 사방을 가질 뿐이다. 남자가 동(動)이라면 여자는 정(靜)이다. 사랑도 그렇다. 남자는 동적이고 외향적이지만 여자는 정적이요 내성적이다. 나는 가끔「베비」(내 애인의 칭호)를 만날 때마다 여자가 사랑을 할 때를 감지(感知)한다. 그의 웃음은 부드럽고 마치 비단처럼 그의 목소리는 실생활의 어두운 단면이나 구석을 말살해 주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여자가 사랑을 할 때는 여백(餘白)이나 질투나 격화된 감정, 고민의 일련들이 모두 해소된다. 그 시간에 충실하고 조금 의지하고 절반쯤은 남자를 신뢰(信賴)한다. 아니 아주 신뢰하는지도 모른다. 여자가 사랑을 하고 있는 증거다. 때로 여자는 남자를 악마나, 사기꾼이나, 무뢰한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상념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부터 차츰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공군 장교님이 찍은 여러 장의「스냅」속에 파리「췌느」강변에서 위로 높은 담장을 배경으로 하고 속삭이는 연인들이 앉아 있다. 담장이 위로 올라가고 연인들이 앉은 호수 옆에 여자의 힐이 놓여 있다. 남자는 바바리 같은 것을 걸치고 열심히 속삭인다.「프·레프·당세·아베크·와·…」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한 장의 사진은 젊은 애인들(대학생 차림의 반코트를 걸친)이 가로수가 많은 거리에서 황혼에 입술을 대고 있다. 마치 높은 나무의 두리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새들 같다. 한 노파가 웃으면서 응시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역시 개방적인 나라요 남녀의 사랑이란 이렇게 자연스러울수록 한층 인간의 본연을 보여주는 것 같이 부러운 것 같았다.

한 사진에는「메트로」라고 쓴「스테이슌」옆에서 착크·타이트를 입은 여성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다. 모두 사랑을 주제로 해서 마치「사랑의 콘첼트」같은 단조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었다. 사실 사랑이란 시(詩)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사랑하고 있는 행동, 껍속을 울리는 말, 서로 응시하고 있는 눈, 그 눈의 무언(無言)의 언어들은 모두 살아있는 성실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베비」를 만나기 전에는 늘 자정(子正)을 건조하게 보냈다. 밤은 비평(批評)의 시간이고 생략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없는 밤은 삭막하고 쓸쓸한 스러운

귀영

유수남
〈공군병장〉

황혼이 질어가는 무렵
시간에 쫓기는 바쁜 마음들
일요일 오후!
귀영시간이 다가 왔다
삶에 지쳐 맛없이 내뱉는
차장의 안내
「역전 동춘 반야월 가요」

귀영하는 군인들로
딱 드러찬 비좁은 뺨
시청입구 동인로타리
차안은 갈수록 비좁아 졌다
「아이구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만 탔네」
큰 고개에서 승차한
어느 할머니의 말
「군인은 사람 아닝기요?」
짓궂은 친우의 반문
차안은 한바탕 웃음이 지나갔다
「아양교 내리소」

땅거미가 누리에 깔리고
길 양편의 고목이 된 포푸라에도
어둠이 짙게 걸려있다
「몇시죠?」
「8시10분입니다」
「아직 40분 남았군」

희끄무레한 모습들
여기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맘을 바치는
수호신들의 안식처
이름하여 내무반
성스러운 보람의 터전을
찾아가는 마음엔
의미모를 안식의 기꺼움이
깃들어 있다.
「유병장 반장님께 용무
외출중 이상없이 귀영하였습니다.」
귀영점호 5분전

〈7항보 감찰관실〉

풍경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때 쓴 시
가 내 생활을 단적으로 말해주기도
한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
의 감정적인 표현의 반영이다.

사랑하고 싶은 일요일 자정에
나의 신체는 밝아온다.

음악은 나직한 경사를 유지하고
하루의 은 언어들
빈셋트로 골라내자

세계의 사람들은 일요일 자정에
전부들 귀한 사랑의 말을 하고 있다.

거리의 나무들도 따뜻하게
몸을 기대이고 있듯이
전부들 귀한 사랑의 말들은
꽃으로 변한다.

어떤 속삭임은 이 순간에
시가 된다.

내 방의 순수는
차라리 모순으로 떨어지는 일요일 자정

사랑할 대상도 없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허전한 나의 신체는
일제히 경련을 일으킨다.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이때는 남
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싶을 때다. 따
뜻한 방 따뜻한 시. 그리고 무언으로
머리칼을 맞대이고 싶을 때다. 가
이 이 적은 세계 속을 지나가는 바람
결 속에서—

벽공(碧空)의 편상(片想)

김옥남(金玉南)
〈가정주부〉

타는 듯한 사루비아의 다홍이 차츰 스러질 무렵이면 하늘은 어느 듯 꺾도 아
득해지고 또 몹시 질푸른 맑음을 지닌다. 버릇과 같이 내 몸과 마음은 어느 계
절을 찾아 멀리 솟구쳐 치솟아만 가고 이제 나는 다시 낮 잃은 표정으로 그러
나 마음엔 무엇인가 충만한 채 이렇게 앉아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오늘도 바
삭 소리 날듯한 바람이 가볍게 불고 태양은 아직 따갑다. 그토록 살갓을 불쾌
하게 하던 우기(雨期)는 잊혀진지 오래다.

새벽엔 서늘해서 솜이불을 손질했던만 장독대에 바짝 드러앉은 별은 이마
에 땀방울을 솟게한다. 어디서 비가 익어가고 발구석의 다홍 고추가 들어가
나 보다. 북악산의 뿔그림자가 차츰 내 방 유리창에서 뚜렷해지고 흩어진 성
터가 서늘히 눈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또 연대를 잡고 실을 풀기 시작한다. 뭉
인 실은 보이지는 않고 연이 아득한 하늘을 향해 해엄을 친다. 공연히 마음
이 가벼워 진다. 그리고 두 손은 턱을 고이고 눈길은 끝없이 하늘을 쫓는다.

내 마음에만 잠시 적막이 깃든다.

『엄마』하고 밖에서 뛰어드는 아이들의 부름이며 구르는 차바퀴소리가 나
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두지는 않는다. 허지만 이런 마음의 불연속선(不連續線)
을 타기에 익숙해진 나의 연륜은 이젠 어떤 부분엔 무디어졌는지 그대로 가
벼운 마음으로 하늘을 좇을 줄 알게 되었다. 붉은 점이 나의 눈을 끈다. 나는
한 번 눈을 비볐다. 다시 한 번 비빈다. 분명히 붉은 것이다. 실에 묶이어 곱
게 오르는 연은 아니다. 마구 울랐다 내렸다 또 흔들렸다 하는 품이 손에 쥐
어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날아 나의 눈길에서 벗어나려드니 바람이 가볍게
일어 다시 눈에 들어온다. 풍선이다. 붉은 풍선인 것이다. 얼만한 것인지 또
아주 둥근 것인지는 모르겠다. 가볍게 가볍게 바람을 타는 것이 어디선가 꼬
마 주인의 손을 벗어났음이 분명하다. 아니 어수룩한 구멍가게 할머니의 손길
에서 벗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나와 같이 질푸른 하늘이 그리워 떠올랐는지 지
로지도 않은 가을바람에 타고 온 풍선은 낭만이 아닌 향수를 실었다. 내 마음
은 소녀같이 이슬 맺힌 풀싹을 헤치는 동심으로 저 풍선을 탄다. 붉은 풍선이
어쩌면 이렇게도 보랏빛 푸른 향수를 빚어내는 것일까? 멀고 먼 옛 가을 하늘
이 내 마음에 되살아온다.

보리 이삭이 꽤 무거워진 때였으리라.

그러니 메뚜기가 쉬 눈에 띄곤 하였다. 마구잔

조약돌이 깔린 길을 나는 뛰고 있었다. 아무것도 살필 겨를도 없이 나는 그저 뛰고 있었다. 조약돌이 깔린 그 길은 나의 발을 쉽게 뛰게 하진 않았다.

조급한 마음이 울고 싶었다. 발바닥이 아프긴 한데 잘 뛰어지질 않았다. 짧은 단발머리가 이마는 땀에 젖어 붙었고 뒤는 그런대로 바람에 날렸다. 이렇게 1킬로가 넘는 길을 뛰어 집에 간 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겨우 점심을 먹었으려니 하는 집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하고 그래도 앉아 쉬지도 못하고 나의 작은 책상에서 붓을 꺼내들고는 눈물도 못 씻고 돌아서 나왔다.

『예! 왜일이나?』하시며 영문을 몰라 애처로워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나는 또 마구 뛰었다. 학교 문을 들어선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 가슴에서 몹시도 소리 내어 뛰는 심장을 느낄 수가 있었다. 붓을 들고 조심스레 교실 문을 들어선 나는 일제히 나에게 쏘리는 급우들의 시선을 몸으로 느끼며 가볍게 선생님께만 인사를 하곤 내 자리로 갔다. 앉긴 앉았으나 머리속은 여전히 뛰는 것 같이 피가 마구 சு구치는 것 같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러나 급히 모든 다른 것들은 준비되어있는 벼루의 먹을 갈았다. 그리곤 칠판에 써 있는 오늘 연습할 글귀를 베껴어 몇 번이고 썼다. 연습지인 신문지가 까맣게 되도록 써야한다고 귀가 달도록 들곤 하는 습자시간이었기에 나는 까맣게 썼다. 물론 다른 동무들보다 오늘은 반도 연습을 못했으리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나는 흰 반지(半紙)에 청서(淸書)를 했다. 하나를 교탁위에 청서를 해다 내놓는 아이들이 있다. 오늘은 비장한 마음이 내손을 더 떨게 했다. 나는 열심히 청서했다. 다른 어느 시간보다 한자 한자에 힘을 넣었다. 마음은 아직도 울고 싶었다. 그때 그 일본인선생은 좀 지나치게 엄하긴 했으나 평소에 펍 나를 귀여워 해주는 모두가 존경하는 여선생이었다. 또 습자엔 좀 자신이 있었던 나는 습자시간이 싫다고 느낀 적은 없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면 기를 더 뿜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습자도구인 붓을 깜박 잊고 집에 둔 채 온 것이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초등학교 학생이면 흔히 하듯이 그전날밤이면 으레 모든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해서 머리맡에 두고 자는 벼루가 나에게도 있었다. 분명히 전날 밤 넣은 것으로 알았던 붓이 그대로 집의 책상위에 있었던 것이다. 요사이와는 달리 펍 엄했던 그때는 그런 도구를 잊었을 때는 집에 가서 가져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었다. 습자시간이 되어 당황한 나는 붓을 가져오겠다고 선생님께 말했다니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으나 예외는 없었다. 그리고 백사십 넘는 눈들이 나와 선생만을 지키고 있었으며 많은 눈이 놀라면서도 어딘가 호기심에 차고 그리고 잘됐다 하는 눈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하여 이를 악물고 나는 그 시골길을 험한 줄도 모르고 달렸던 것이다. 그러 길래 나는 또 더욱 힘들여 써 냈었다. 어쩌다가 차가 지나가면 뽀얀 먼지가 사정없이 일고 누르러가는 벼이삭과 수수며 밀밭이 양 옆에 있을 뿐 나무 그늘조차도 찾을 수 없던 그 길은 펍이나 멀고 콧속을 스치는 공기는 유난히 말랐었다. 구름 한 점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햇빛은 한 여름보다 나에겐 더 뜨겁게 느껴졌다. 며칠을 불쾌한 채 그 습자시간을 잊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조희시간

에 교장선생의 호명으로 나는 몇몇 상하급생의 교우들과 함께 앞으로 불리어 나갔다. 도에서 주최하는 습자대회에 뽑혔었다는 것이다. 우리 학년의 대표가 된 것이다. 전일 습자시간의 청서가 이번 선발의 키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일이다. 그러곤 며칠 후 우리는 각 학교대표들이 모인에서 정말 시험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대회장에서도 원지 그 붓을 잊고 갔던 습자시간의 감정이 생각났으며 붓에 힘이 절로 갔다. 전력을 기울여 나는 그날의 글귀를 썼다. 그날 잊고 갔던 바로 그 붓이었다. 그리곤 가을도 깊어져 때때로 짓궂은 회색하늘이 단풍조차를 몰아치는 바람을 비와 함께 신고 와 옷깃을 여미게 하고 습자대회에 대해선 거의 잊고 있을 무렵 나는 아주 멋있는 6·25 전까지도 내가 지너오던 그 벼루통과 함께 특상을 땀던 것이다. 나의 마음엔 그 푸른 높은 하늘이 되살았다. 이젠 거의 건히어진 논두렁에 벼구루만 남았건만 그 목질하던 벼이삭이 되살아 오른다. 특상을 탄 그날의 글귀『가을바람 푸른하늘』비록 일본말이었으나 그 글귀와 더불어 그날 붓을 잊었던 가을 하늘이 잊히질 않는다. 단순히 입상만을 기뻐할 줄 알던 그 마음!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던 그 따가운 햇살 조약돌이 지뿔던 아픈 발! 조급하여 하늘을 한번 쳐다 보지도 못했던 지금 나의 마음엔 그때 그 하늘이 유난히도 푸르게 유난히도 맑게 또 높게 기억된다. 나이가 먹고, 먼 소녀시절이 마음 손 깊이 파묻히어 저 벽공(碧空)이 보다 낭만적이고 보다 분홍색이 아닌 이런 향수(嚮愁)가 깃드는 것일까? 어떻든 그 가을별이 독특한 따가운 햇살로 들판을 덮고 하늘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만큼의 맑은 푸름과 높음을 지니면 나는 그 어린 시절의 티없던 기쁨과 함께 큰 자랑도 못되는 그 붓을 잊었던 일이 엷은 혼자만의 미소와 함께 향수를 가져다준다. 지금 나는 나의 방에 앉아 있다. 그 먼 전일의 나의 공부방이 아닌 이집의 가장 중심인 안방이 나의 방인 것이다. 붓을 잊어서 그토록 두근거리던 나의 가슴의 땀이 이제 다시 울 리 없고 그 적은 상(賞)이 그토록 나를 기쁘게 하던 벽간 감정이 다시 올 것 같지 않건만 그 하늘은 다시 드높이 맑게 푸르며 햇빛은 화사롭다. 그러기에 향수는 밀물처럼 나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이다. 기억의 빛같은 차츰 퇴색하러만 향수는 보다 여(戾)은 보랏빛을 된다.

『엄마! 연 잘 오르지』서투른 말씨로 소리 지르는 네 살 난 아들 녀석의 소리에 나는 등 뒤를 보며 먼 전일의 가을날의 실낱을 푹 끊는다. 그리곤 나의 손으로 가꾸어진 적은 정원으로 아이들에게 끌리어 나간다. 해바라기가 짙은 노랑색을 더욱 빛내며 해를 쫓고 있고 너무도 붉은 색이 눈길을 돌리게 하던 사루비아는 한물갔으나 아직 그 짙은 녹색의 잎과 함께 맑게 피고 있다. 유주가 알알이 모두 버져서 진홍빛 씨가 드러나 노란 껍질을 무색케 해준다. 국화가 망우리 졌다. 수세미가 넝쿨에서 너무 무거워졌다. 맨드라미는 까만 씨가 앉았고과는 자주, 분홍, 드문 흰 것, 연분홍이 난발(亂發)하여 한창이다. 씨가 좋았던지 껍질이 피어 하치않은 국화보다 훨씬 찬란하다. 봄엔 초급(焦急)한 마음에 입춘이 채 넘기도 전에 씨들을 뿌려 놓고는 늦은 눈보라와 찬바람에

얼어붙었을까 겁이 나서 며칠 잠을 못 자기도 했다. 또 갯목을 구해다 오줌과 섞어 거름을 해서 그 지독한 악취도 모르고 주긴 했는데 너무 질어서 죽으면 어쩌나 염려가 되어 그 밤은 잠을 깊이 못 잤다. 아마도 이렇게 소심해진 것은 내가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일까? 이럴 때면 그 단순하던 먼 동심이 그리워진다. 하긴 그토록 애태웠던 값으로 모든 화초가 걸직한 땅과는 인연이 먼 우리 석벽의 정원에서도 배(倍) 키가 크고 꽃이 일렀다고 자위(自慰)도 해보지 않는가? 아이들은 그저 꽃 사이를 누비며 뛰고 좋아한다. 바람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니 맘껏 뛰게 하여줘야겠다. 현실이 꼭 고달파서가 아니라도 또 현실이 꼭 불만해서가 아니라도 먼 전일의 계절의 향수나 마음의 향수는 사람을 추억의 세계에서 즐겁게 해주고 또 어떤 면에선 진실된 슬픈 즐거움도 알게 해준다. 인간세계는 상대성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니 고독이란 결코 혼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중 속에서 느껴진다는 말이며「건전한 향수나 추억은 보다 현실을 성실하게 살찌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저 꽃 사이를 누비며 적은 정원이나마 즐기는 아이들의 가을 살이를 잘 준비하는 충실한 엄마이면서 나는 또 다가올 다음의 가을을 그 질 푸른 맑은 하늘을 가벼운 마음으로 화려하게 맞기 위해 꽃씨들을 건우어 드릴 봉투며 또 구근을 건우어 넣을 알맞은 고장이며 그리고 짧은 기간이나마 애써 가꾼 몇십개의 화분들을 위한 월동준비를 챙겨야 하겠다. 북악산 그림자에 땅거미가 긴다.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더 맑아졌으나 서늘해지고 연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짙긴 꼬리며 동강이 중천에 떠다닌다. 바람이 좀 무겁다. 가을의 벽공은 참 즐거움을 이렇게 나에게 일깨워 주고 그래도 더 푸르게 높아만 간다. 그리곤 다시 내년엔 또 찾아드는 것이다. 슬픔이며 즐거움은 가장 가까운 것이다. 깊은 저 속에선 맞닿아 있는 것이다.

트란지스타

오윤환
〈공군병장〉

일본국민성의 이면과도 비교될 만큼 잔 손재주에 능란한 일본 과학자가 발명하여 노벨 과학상까지 타게 했다는 이 트란지스타가 근동(近東)은 물론 세계적으로 아니 지금은 바다건너 우리네 상가의 윈도우에 잔뜩 진열된 것을 보면 유행의 물결 따라 변천해가는 세상사가 꽤 재미있다고 하겠다. 국산 트란지스타의 붉은 별씨부터 엮고 원만한 가정에선 전기용 대신이 트란지스타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시피 일반화 되었다. 하기가 간편하고 전기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건전지만으로 대용되니까 쉽사리 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야외로 갈 때나 운동경기장 중계 때의 그 이점이나 정전(停電)시는 물론 그 외에 간편하고 유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란 것은 누구누가 다 이해할 것이다. 얼마전 매월 봉급에서 푼푼히 긁어모은 돈으로 평소 그렇게도 열망했던 이 트란지스타를

이때까지 평정기하학

사기 위해 어느 상가의 진열장 앞에 서서 이런형 저런형 가격의 차이 등 한창 눈독을 올리다가 섣뜻 마음에 내키는 것을 골라 겨우 상반된 금액에 낙찰이 되어 완전한 내 소유물이 되었다. 물론 국산이다.

이 순간의 벅찬 기분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을 독점한 기분 그대로였으며 모든 방송국은 내 것이고 방송국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도 하나 빠트리지 않고 감지할 자신과 한가할 때 나에게 속삭여 줄 벗이요 경기장에서의 보도원이 될 것 등등 이루 해야될 수 없는 이점(利點)과 친밀한 벗이 되어 주길 마음속 깊이 되새겼고 또한 잡자리 들 때까지 머리맡에다 놓고 듣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림으로서 약을 새것으로 갈기가 일수요 심지어는 「트란지스타·걸」이란 유행어처럼 길 갈 때 까지도 손아귀에 쥐고 다니는 습성을 잊지 않았으니 미련스러움도 이만 저만이 아닐 만큼 지독한 트란지스타 애용가였고 산 이후로 한 번도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산지 삼개월 가까이 된 어느 날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 갈 기회를 얻어 봄비는 12열차에 올랐다. 이때도 두 말할 것 없이 나의 애원물인 트란지스타도 동반했다. 지친 기차여행의 여독을 풀 겸 해서 거리에 따라 변하는 싸이클을 둘러가며 이 방송, 저 방송을 골라잡고 가다가 그만 줄음 아닌 깊은 잠이 든 사이에 점잖지 못한 친구가 영원히 실 예해 버렸다. 아쉬움보다 미련이 미련보다 아쉬움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 꽤 애용했던 모양이다.

그 것 뿐이라 내 것이 된 이후 까만 비로도 꼭 맞게 걸음까지 입혀 훑이나 다칠세라 애지중지 손질까지 했던 것을 보면 미련이 가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원래 내 소유물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과 애정을 쏟는 과격파의 성격을 탓하진 않는다. 월간잡지 한권 사는 것과 영화 한편 볼 값을 절약해가며 푼푼히 모아 산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놈을 사랑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난 후 타격은 막심하다.

한번은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전 KA 어느 연속 방송극의 몇 회째가 되는 날 무슨 일로 외출을 했다가 막 저녁을 먹고 난 후 급한 일로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 집을 뛰쳐나와 얼마 가지 않아 들쭉 연속방송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연속방송극은 첫 회부터 줄곧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은 것은 물론 스토리 전개가 치근덕스럽게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침 그날은 그 연속극의 크라이막스라고 인정되자 급한 사무고 무엇이고 간에 어디 들음만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구썰스럽게도 떠들썩거리던 거리의 확성기가 그날따라 한 집도 없다.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이리 저리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다행이도 어디선가 막 그 연속극의 씨그날 뮤직이 새어 나지 않는가? 우선 급한대로 옆치고 무엇이고 견지할 겨를도 없이 남의 상점 창문에 기대어 바깥 안으로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고 있었다. 한참 열띤 표정으로 듣고 있는데 주인집에선 몇 번인가 의외의 손님에 눈총을 꽂아 놓고「어떻게 왔느냐? 누굴 찾느냐?」고 성화시다. 자세히 보니 아까씨만 상대하는 미장원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무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방송극에 반쯤 미친(실은 그렇지도 않는데) 내 사정을 들은 종업원이나 손님 이 배를 쥐고 웃어 재긴다. 그들은 펄시 내 심정을 모를 것이다. 그 트란지스타를 잃고 부턴 자신에게 고소를 급치 못할 만큼 넉센스까지 부러운 것을 생각하면 한결 그 놈의 생각이 간절하다.

이제는 트란지스타를 다시 살 여유가 금방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그놈이 더욱 아깝기만 하다.

지금도 그 습성의 잔상인지 미련의 탓인지 라디오 상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 예쁘장한 트란지스타에게 눈짓을 한다. 언제 한번은 또 저놈을 내 손아귀에 넣을 것이냐고……. (제 107 기지단 인사처)

친구야!

이창운
<공군병장>

어제 너를 향해 붓을 잡았을 때도 억센 빗줄기드니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젠 겁도 나지 않는다. 겁이란 것은 처음 시작이 무섭지 자꾸 계속되면 무서움 대신 냉소를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러기에 참으로 슬픈 사람은 울지도 않는다는 말이 나올 만도하지. 행복한 사람이 잘 운다고 믿을 데가 있는 자가 신경질을 부린다고, 옳은 말들이다.

오늘 네 서신을 받았다.

보라, 틀림없이 네 편지를 받았다. 너도 틀림없이 나의 편지를 받는다. 세상사 모두가 주면 받는 거라지? 그렇담 우린 아직 낙담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우린 현실에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우린 사회에 무엇을 주어야 한다. 일생을 울면서 마치는 웃으면서 마치는 그 종말의 죽음은 모두 같다고 했다. 무의미든 의미든 순간에 현제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욕망덩이가 괴롭게 만들어 오는 까닭에 이 생명을 이 목숨 하날 가리고 우는구나, 웃는 구나 나도 몰라 내 지금 무슨 소릴 지겨리는지 몹시 술을 마시고 싶고 무어라고든 소리치고 싶다.

그때, 몹시도 비가 온다. 저 소리 들어 봐 한국민의 눈물의 소리야.

밤 10시 35분

요즘 내 탐독하는 책이 있다. <O·S마텐>저「희망달성의 길」이다. 이 책을 읽어갈수록 나는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다.

이 책이 말하는 바를 요약한다면「누구나 훌륭히 될 수 있다.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욕망(희망)을 장사지내지 마라 낙담으로 자신을 죽이지 마라. 성공의 첩길은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데 있다」

이 책을 보고나서 난 너에게 권하려고 한다.

우선 마음에 상상을 가져라. 노력은 뒤따라 일어날 것이다 노력하라. 성공은 뒤따라 올 것이다.

구세주는 날 때부터 구세주는 아니다. 그것이 역시 노력의 결과이며 그의 사업은 전혀 그 마음의 그런 농상(弄相)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모두 우리자신이 불러들이는 것임을, 조물주는 그대를 만들어 놓고 부끄러워하는바 없다. 하물며 그대에게 있어서라 그대는 당연히 부끄러워 할바 없다. 신은 그 만들어 놓은 바를 옳은 것이라 하였다.

우리를 창조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이 심중의 힘이다.

이것은「희망신성(希望神聖)의 길」에 나오는 말들이다.

이 시간에 너는 고민하고 있겠지? 너뿐만 아니라 내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간들이.

「사회인이 되는 사회가 다가온다. 밥도 안주고 옷도 안주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회가……」

네 말 엄연한 사실이다.

네가 처음 군에 입대할 때 나에게 한 말이 기억난다.

「일찍 군무를 마치고 자유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때의 네 생각과 지금의 네 생각은 차이가 있을 테고 그때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 역시 차이가 있다.

「빈손으로……」네 말.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두 손에 무엇을 가득 들고 나왔는가.

이런 말은 말아 달라. 자신을 가져라. 하기 싫은 것도 자꾸 하면 자연히 흥미가 붙는다고 언젠가 넌 말했다.

어디에다 노력하느냐고? 그 노력을 먼저 네 열등 되는 마음을 반대되는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라. 앉아서 공상으로 천하를 뒤집었다 앉았다 하는 것보다 실지로 돌맹이 하나를 던지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느낀다.

12시가 다 되어가는군. 가지 말라도 갈 붙잡아도 갈 시간, 언제부터 우린 초조함을 알았는가? 이봐 무슨 즐거운 이야기는 없을까?

너무 고민 말라, 아무 거라도 할 그런 용기만을 가져라. 혼자 몸이야 못살아가겠나. 안 그러나. 응?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해 버려, 닦쳐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다. 앉아서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 없고 열등감만 느껴지며 안 될 것 같은 것도 실지로 당해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해나갈 수 있더라. 괴로워만 말고 무엇이든 용감히 할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는, 단념하지 않는 투지와 의지를 길러 달라. 12시다. 이만 붓을 놓는다. (제10헌병대대)

◇옥스포드 명예박사호

세계에서 가장 여물기로 유명한 대학이 옥스포드와 캠부릿지라 한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옥스포드 대학이 희극배우로 유명한 차푸린에게 명예 문학 박사호를 수여하였다. 이에 앞서 이를 반대한 사학자(史學者)「트레바레바」교수는『나는 개인적으로는 차푸린을 존경하고 또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예 박사호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과에 관계있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이며 옥스포드 대학에 유모어 과목은 없다』라 말했다. 그런데 차푸린을 지지하는「더·모리스·보」학장은『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옥스포드 대학이 가장 존중하는 것은 상식과 유모어다』라고 말했다.

익명(匿名) (제4회)



임어당(林語堂) 저
하정옥(河正玉) 역

제2장 소련의 정치

자본이 점차로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의 운명은 그들 수입의 다과(多寡)를 불문하고 필연적으로 처참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이 축적되는 반면에 불행과 노동자의 고통, 노예화, 무지, 야만, 심지(心智)의 퇴보 등이 더욱 극심해진다.
—칼·맑스—

(40) 재판— 자기네들 멋대로 사법과정을 조작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에 경찰, 조사관, 검찰관, 변호사, 서기 및 형집행원(刑執行員)들이 사전에 이미 조작된 보조일치(步調一致)를 엮보게 하는 것이다.

(41) 낫손 기차— 특권계급만이 전용(專用)하는 호화편의 열차다.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퇴폐한 부르조아지〉의 1등 기차와 등급을 겨누기나 하자는 듯이 호화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를 1등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근대서 1등 기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바로 소련의 정치사를 두고 한 말과 같다. 본장 끝에 소련의 정치사 대강을 엮은 〈소련대사연표(大事年表)〉를 적어 지난 사실로써 앞으로의 그들의 추세를 알아보겠다.

그에 앞서 하기와 같은 〈노동시계〉를 가지고 소련의 변천이 직선적이 아니고 순환적임을 밝히고, 1900년에서 1960년까지 60년간의 소련에서 말하는 이른바 〈혁명〉과 〈반혁명〉의 진전상(進展相)을 보이겠다. 즉 1분을 1년으로 간주한 이 노동시계를 보면 그 바늘은 갈수록 결국 그 바늘이 원래의 기점으로 되돌아올을 알 수 있다. 사실 맑스주의나 사회주의도 1930년 이후로 이 시계의 바늘처럼 되돌아 그들이 말하는 소위 〈반동(反動)〉 즉 우익적(右翼的)인 경향으로 퇴보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맑스주의 목표상에서 보더라도 1930년을 개시점으로 그들의 혁명과정의 반혁명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이 바로 그들이

내 거는 유물주의변증법(唯物主義辨證法) 제2법칙의 표현이라 하겠다. 즉 모든 사물은 정반대로 상반되는 곳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혁명이란 말은 틀림없이 〈노동자의 지위가 하락했음〉을 말한다 하겠고, 이 현상이 한 국가 안에 사실로서 존재하느냐 안하느냐를 증명하려면, 맑스가 말한대로 〈불행과 노동자의 고통, 노예화, 무지, 야만, 심지의 퇴보 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소련에서 전단적(專斷的)인 국가자본이 무한량으로 축적되어 가는 반면에 이러한 〈반혁명적〉인 현상 즉 노동자의 비참, 고통, 불행, 무지 등등이 날로 증가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련의 정치와 경제는 맑스주의에서 반맑스주의로 진전되어 나감으로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물이 정반대의 상반되는 곳에 되돌아간다는 그들의 이론을 그대로 예증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맑스가 말한 독점자본의 축적은 나아가서는 식민지 확장의 국제전쟁을 야기시킨다는 것도 바로 소련이 실제로 그 이론을 증명해 주었다 하겠다. 더욱 맑스주의의 기초이론인 계급이익에 대한 견해—즉 자본이 축적되고 권세와 특권이 수렴된 후에는 반드시 특권 계급이 노동자 및 농민을 압박할 것이라는 현상이 바로 그들 국가 내에서의 현상인 것이다.

즉 그들의 권력에 따른 이익이란 이른바 유물주의변증법에 의거한 것이요 또한 지위가 공고한 특권계급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분쇄하고 자기의 권세를 보지(保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련 내에서 새로운 자산계급이 대두하여 짜르(舊)황제시대나 마찬가지로 통치 계급으로 군림하여 물질과 특권을 향수(享受)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특권계급은 소련에서 노예노동을 면할 뿐 만 아니라 고급 자가용차, 별장, 특별 상점, 극장, 호사로운 요양원 및 유원지 그리고 특별좌석열차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헤겔의 이론대로 한 명제는 반드시 반명제(反名題)(Antithese)로 변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 하겠고 또한 맑스주의가 반맑스주의에 흐른 것이라 하겠으며 무산계급이 반드시 압박을 받는다(소련 내에서)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노동시계〉외권(外圈)에 표시된 혁명으로부터의 반혁명 과정진화는 축보적(逐步的)이며 내부 즉 근처에서는 쉽사리 알아보기 어렵다. 하나 시계표로써 소련의 변전(變轉)과정을 크게 구분지어 다루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짜르황제기 1900-1917
- 혁명기 1900-1923
- 극단(極端)맑스주의기 1924-1942
- 식민확장기 1939-1949

9. 반대파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물론, 당의 간부급 중에서도 반대세력은 모조리 숙청 (1921년)

10. 소비에트 정권의 조직에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인물을 시베리아로 추방하여 강제노동에 복역토록 한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맑스·레닌주의를 행동의 근거로 삼은 스탈린은 극히 손쉽게 모든 공작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기는 모든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면에서 스탈린은 레닌보다 한층 더 심했다. 그 때문에 흐루시초프 역시 스탈린주의를 비난했던 것이다. 요컨대 레닌주의가,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혁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한 데에 비해, 스탈린주의는,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완성된 후에도 영구히 지속되어야 할 정책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 외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레닌이 그의 적을 모조리 죽여 버린데 비해 스탈린은 그의 친구들마저 모조리 죽여 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스탈린주의는 카포네주의(Al Caponeism; Al Capone -1899-1947는 미국의 유명한 대(大)갱)와도 또 다르다. 두 가지가 다 자기네 범죄의 목격자를 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같으나 그 중에서도 스탈린은 한술 더 떠 자기의 복심자(腹心者) 또는 이전부터의 친구까지도 죽여 없애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인의 손에 의한 전체·독재는 결국 그들 소련이 신봉한다는 맑스주의 자체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들의 혁명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흐루시초프조차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스탈린같이 한 개인의 손에 의해 우리들의 정치와 사회질서가 변역되었다는 것을 인정함은 맑스주의와 모순되는 것이다』라 하고, 따라서 그들의 중앙위원회는 1956년 6월 30일 그 변역을 어거지로 스탈린의 개인적인 소치가 아니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어쨌든 극단(極端)맑스주의는 반드시 반(反)맑스주의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2] 반혁명기:반혁명 반동기는 1924년 레닌이 죽은 이후서부터 1953년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약 30년간이다. 표면상으로 보아서는 이 시기에 소위 <사회주의가 건설>되었고 동시에 공업화 및 집단화가 강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한 무력공업국가가 되었다 하겠다. 물론 그들은 일반 생활소비품 공업에는 그다지 발전한 점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구속, 강압에 의한 생산증가가 있었고, 더우기 일 개인의 독재로써 당내 당외를 막론하고 민주적인 면이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그들 소련이 열었던 소위 전국 당대표 대회의 소집시기의 간격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단체적인 민주 양식을 포기 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당대표 회의가 소집된 차수(次數)와 연대 및 간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당대표대회차수	소집연대	간격(년)
레닌집정기	제6차	1917	1
	제7차	1918	1
	제8차	1919	1
	제9차	1920	1
	제10차	1921	1
	제11차 제12차	1922 1923	1 1
스탈린집정기	제13차	1924	1
	제14차	1925	1
	제15차	1927	2
	제16차	1930	3
	제17차	1934	4
	제18차 제19차	1939 1952	5 13
흐루시초프집정기	제20차	1956	4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섭취한 것은 중공업 방면이라 하겠다. 농업의 집단제도는 실패에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공업화 역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네들의 사회주의적 목적에 비추어서 이루어진 것이지, 공업 건설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결코 아니다. 하기에 이 기간 동안에 있어 그네들이 이룬 소위 발전의 특징은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간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들 자신은 이러한 인간성을 부인하려 하지만……

1. 숙청(肅清)과 심판 (제4장에서 상술)…인간성의 하나인 권세욕에서 나온 것이다.
2. 노동자 구속과 신자산계급의 흥기 (제5·6·7장에서 상술)…특권과 안전을 향수(享受)하려는 인간성 때문에 저지른 것이다.
3. 식민지 확장 (제8장에서 상술)…국가의 번영과 영광을 기도(企圖)하고자 하는 인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간첩추리소설>

내부의 적(상)

유기영

치안국 수사계통에 허(許)박사라는 총경이 있었다. 물론 별명이며 진짜 박사는 아니다.

허 총경은 때때로 기묘한 수사방법을 써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동료들로부터 박사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게 되었는데 간혹 지방경찰에서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허 총경을 찾아와서 상의하는 일도 많았다.

한번은 B도(道)경찰국에서 기묘한 자살사건의 해명을 의뢰해 왔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수수께끼 같은 자살이었다. 그 사건을 취급한 경관의 말에 의하면 그 자살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았다.

1

항도, 부산에서 제일을 자랑하는 어느 호텔—

밤 9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40내외로 보이는 신사가

2층 8호실에 투숙했다. 그는 중절모자를 쓰고 코 밑 수염을 기르고 안경에 바리코트를 입은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보이는 보통 키의 남자였다. 그는 작크가 달린 불룩한 손가방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소중히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열두시가 가까워서 8호실 바로 맞은편인 16호실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40대의 어수룩한 남자가 투숙했다. 그의 차림은 이 같은 일류호텔에 투숙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주래한 차림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소지품이 없었고 이렇다 할 인상을 주는 용모도 아닌 40대 전후의 남자였다.

8호실에 투숙한 신사는 서울말을 하고 있었고 투숙할 때 내일 아침 서울행 급행열차가 몇 시에 있느냐고 여관보이에게 물었다. 새벽 6시에 있었던 것이다.

16호실에 투숙한 손님은 내일, 경주행이 몇 시에 있느냐고 물었다. 경주행은 하오 3시반에 있었다. 그는 오전 중에는 꼭 쉬고 싶으니 깨우지 말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8호실 신사는 다섯시 반 쯤 되어 역으로 나갔다. 그런데 16호실 손님은 하오 세시가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여관 보이는 경주로 가는 손님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16호실 도어를 노크했다.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16호실 손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보이는 좀 크게 도어를 두들겼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보이는 도어를 열었다. 그런데 도어는 안에서 잠겨져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보이는 주인에게 말해서 도어를 부시고 들어갔다. 손님은 침대에 의젓이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맡에 있는 조그마한 탁자에 몇 개의 수면제와 한 장의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완전히 죽은 자임을 확인한 뒤였다.

그것이 수면제였음은 물론 의사에 의해 판명되었고 봉투는 그의 유서였다.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깨끗이 자살한다.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나에게 돈을 제공해준 분들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다—

유서에는 자살한 자가 말한 사업을 같이한 사람, 자금을 제공해 준 자가 누구인지 전연 이름이 없었고 자살한 당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그의 의복을 살살이 추려 보았으나 신원을 알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그의 포켓에서 나온 것은 16호실 섯대뿐이었다.

그러나 경찰의(警察廳)는 그가 자살한 것이 아니고 타살이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아내었다.

수면제는 물론 수면제였다. 그러나 자살자의 위액이나 혈액 속에서 수면제는 전연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타살의 뚜렷한 증거는 목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것은 끈으로 목을 졸랐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며 끈이 아니더라도 외부로부터 목을 졸랐을 때 있는 증상이었다.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로

- ① 자살자 자신이 목을 졸라 죽었다면 목에 끈이 감겨있어야 한다.
- ② 다량의 수면제로 자살했다면 체내에 수면제가 발견되어야 한다.
- ③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자살을 가장하기 위하여 수면제와 유서를 위장한 것이다.

경찰은 유숙계에서 16호실(자살자)의 주소 성명을 조사했다. 경주시 X동 XX번지에는 그가 거주했다는 흔적조차 없었다.

이러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들어났다.

그것은 죽은 자가 16호실 손님이 아니라 8호실에 투숙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울에 있는 XX산업주식회사 전무인 P라는 사람이었다. 하룻만에 돌아올 예정으로 부산에 출장을 간 그가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본사에서는 부산 지사에 전화로 연락을 했다. P는 현찰 백만원을 가지고 이튿날 아침 차로 상경했다는 회답에 본사에서는 P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행방을 감추어 버린 것이나 아닐까 해서 P의 수색을 경찰에 의뢰했던 것이다. 이래서 밝혀진 것이 죽은 자는 16호실 투숙객이 아니라 8호실에 투숙한 P가 16호실에서 죽어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이쯤 되면 범인이 누구인가는 자명해진다. 16호실의 사람이 8호실의 P씨를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의 증절모자에 그의 안경에 그의 코오트에 그의 돈 가방을 들고 완전히 P를 가장해서 그날 다섯시 반에 호텔을 나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가상범인, 즉 혐의자인 16호실 남자가 굉장한 지능범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들어났다.

첫째, 그는 8호실 어디에도 그의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장갑을 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둘째, 그는 유숙계에 쓴 필적과 유서에 쓴 필적을 완전히 다르게 썼다.

셋째, 그는 경상도 사투리에 경주라고 했다. 그가 경상도 사람을 가장한 것이 분명하다.

넷째, 그는 자살을 더욱 가장하기 위하여 유서와 수면제를 썼고 16호실 섯대를 P씨의 포켓에 남겨두었다.

다섯째, 그는 P씨를 살해한 다음 그 코 밑 수염을 깨끗이 면도해서 16호실 투숙객으로 보이게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수염을 자기 코 밑에 붙였다. 이리하여 그는

완전히 P가 되어 유유히 호텔을 나섰던 것이다.

경찰의 수사초점은 물론 16호실에 투숙한 P라는 사나이를 찾아내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자의 인상은 호텔 보이의 뇌리에 남은 희미한 영상뿐이며 다른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가?

2

허 총경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추리했다.

범인(16호실 투숙객)은 P씨가 거액의 돈을 가졌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의 뒤를 미행했다. P씨가 8호실에 투숙하자 그는 8호실과 가장 가까운 16호실에 투숙하면서 한밤중에 P씨가 깊이 잠들었을 때 8호실에 침입하여 그를 목 졸라 죽이고 죽은 P씨를 16호실로 옮겨 수염을 깎고 16호실 투숙객으로 가장시켰다. 문제는 돈을 가진 P씨는 도어를 안에서 잠그고 갔을 것인데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 또 16호실 도어의 섯대를 안에다 두고 어떻게 도어를 잠글 수가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허 총경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즉, 범인은 보통 도어용 섯대 몇 개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섯대의 어느 한 개를 골라 8호실과 16호실에 맞는 것으로 쓸어서 만들었다. 시간이 약간 걸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 총경은 이것만 가지고서 객실이 나란히 있는 호텔에서 한 사람을 죽인 다음 그 시체를 다른 방으로까지 운반할 수는 없다고 단정했다. 다른 방 손님들이 모두가 한잠이 들었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으며 전연 소리 없이 시체를 다른 방으로 운반할 수는 없다. 반드시 주위를 감시하고 만일 제 3자에게 보였을 때 그것을 감푸라주할 또 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리했다.

허 총경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가장 무난한 자가 호텔 종업원 중의 어느 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그 다음 문제되는 것이 범행 동기였다. 범인은 과연 돈을 훔치기 위하여 그처럼 대담한 살인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범인은 돈보다 이상 가는 그 무엇이 필요 했지나 않을까?

이와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하여 경찰은 P전무의 가방 속에 돈 외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를 추기한 결과 주요한 비밀문서의 사본이 들어 있었음을 알아내었다. 그것은 XX산업주식회사가 군대에 납품해야 할 모종의 기계의 수량과 성능이었다.

경찰은 허 총경의 지휘 하에 범인 수색의 행동을 개시한 지 20일만에 범인의 단서를 포착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호텔의 종업원인 보이, 박씨를 미행함으로써 알 수가 있었다.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호텔을 그만 두고 같은 호텔의 여자 종업원 김이라는 처녀와 시내에서 집을 빌려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씨와 김녀와의 동거생활은 매우 호사스러웠다. 매일 같이 식당출입, 영화구경에 좋은 옷을 갈아입었다.

박씨는 경찰의 신랄한 추구에 마침내 돈의 출처를 자백했다. 그는 범인으로 부터 50만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범인의 행방을 박씨는 모르고 있었다. 허 총경은 범인이 간첩임을 단정하면서도 그를 체포하는 묘안을 생각해 내지는 못했다.

이러던 중 어느 날, 허 총경은 F라는 지방 2급 서(署)에 근무하는 한명의 젊은 형사가 치안국에서 개좌한 경찰 교육을 마치고 치안국에 근무하는 동료 한명과 함께 치안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군거리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허 총경은 이날 휴무였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등산 약속을 했다가 시간을 어기고 다른 동료와 만나기로 되어 구내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때문에 허 총경은 등산차림을 하고 있었다.

F서 형사의 얘기는 주로 자기의 직속상관인 F서장에 대한 불평과 비난이었다. F서장은 XX당 국회의원이며 국회XX분과 위원회 위원장인 삼촌을 배경삼아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아니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실 예를 얘기하고 있었다.

당시, 그러한 예는 많았다. 때문에 허 총경도 그러한 얘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그런데 허 총경이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는 얘기가 있었다. 그것은 젊은 형사가 불평을 터뜨리고 F서장의 대내적 업무수행 상에 관한 얘기였다. 특히 허 총경이 관심을 가진 그 젊은 형사의 불평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① XX당 F군 지구당 사무소에는 매일같이 젊은 당원들이 모여서 정담(政談)을 벌이고 그 화제는 주로 반미(反美)적인 것이었다. 사찰 형사는 그들의 언동이 심상치 않으니 일단 취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X시장은 끝내 거부했다.

② OO신문 F군 지사에 있는 기사는 고의적으로 여당과 야당 간의 이간을 불어는 언동이 심했다. 한번은 이 기사가 서울을 다녀와서 OO당 F군당지부 위원장에게 즉시 위원장을 그만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권고했는데 그 이유인즉 위원장의 사촌형이 목재상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사촌 동생인 위원장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당이 치안 국을 통하여 날조범죄를 꾸며 사촌 형을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OO당은 야당이며 이 정보를 입수한 형사는 기자의 그와 같은 말의 진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전연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임을 확인했고 또 평소의 기자의 언동이 수상하니 일단 수사해 볼 것을 요청했으나 F서장은 거절했다.

③ 북한 괴뢰 간첩이 F군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보에 의하면 간첩은 2, 3일 전에 서울에서 왔다고 하며 방금, 모 면장 집에 유숙하고 면장의 이중동생이라는 자가 아난가 하는 풍설도 있어 그 자를 조사해 보자고 주장했으나 F서장은 거절했다.

이상 세 가지의 요구를 거절한 F서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젊은 당원들의 반미언동은 젊은 사람들의 민족적 양심의 발로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 2세들의 정열을 길러주지는 못하는 처지에 있다 해도 꺾어서는 안 된다.

② 기자의 편미인간, 정당간의 이간 언동은 기자가 가지는 직업적인 생리이며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입건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그러한 일은 비밀비재한 사실이며 또 경찰이 지금까지 기자를 입건해서 승소해본 실적이 없다. 잘못 취급하면 오히려 경찰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알맞는 일이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례가 되기 쉬우므로 언론의 창달을 위하여 손대지 말 것이다.

③ 면장 집에 간첩이 잠입했다는 정보는 유치한 것이다. 간첩이라는 작자가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면장집을 택하겠는가. 그 정보를 믿고 면장 집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경찰서의 무능 졸렬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며 민중의 공복인 경찰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것이다. 좀 똑똑한 정보활동을 하라.

F군은 한때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4명을 가질 만큼 좌익분자들의 준동이 심했던 곳이다. 6·25사변이 끝난 후에도 몇 해 동안은 무장간첩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젊은 형사는 현 서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기업을 토했다.

『이사람, 너무 큰소리치지 말게나. 적당히 하게 적당히. 그렇게 불평 부리다간 괜히 자네만 목 달아나네. 국회XX분과위원장을 뺏으로 가진 사람을 누가 손대겠는가?』

듣고 있던 동료는 이렇게 말하면서 흥미 없다는 듯 일어섰다. 형사도 일어섰다.

식당밖에 나선 그들은 악수를 교환하면서 헤어졌다. 다시 청사로 들어간 형사는 선배 동료들에게 오늘 본서로 내려가겠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다녔다.

이 때 나타난 것이 허 총경이었다. 허 총경은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형사를 불렀다.

『자네, F서에서 왔다지?』

허 총경이 이렇게 묻는 바람에 형사는 눈이 동그래지며 등산복의 허 총경을 아래위로 훑어보고만 있었다.

『뭘,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네. 알고 보면 나도 자네의 동료네. 나, 허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허 총경이야』하고 싱그레 웃었다. 그러자 형사는 더욱 놀랐다. 그의 머릿속에 아까 구내식당 뒷자리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쩍, 재미나는 얘기를 하더군.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들려주게나』하고 허 총경은 형사의 소매를 끌어당겼다. 젊은 형사는 눈이 동그래서 어리둥절하며 좀체 그곳에서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3

본서로 내려간다는 그 젊은 형사는 뜻하지 않게도 이날 밤 허박사 집에서 허박사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단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허 총경님, 국회XX분과위원장이 그 사람의 삼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F군에서 입후보 했을 때 지금의 서장은 그곳 경찰에 경위로 있으면서 그분을 당선시키는데 절대적인 공로가 있었습니다. 공연히 허 총경님의 목만 날아갑니다』하며 젊은 형사는 허 총경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물론 그렇겠지. 내가 그걸 안 믿는 다는게 아니야. 목이 날아가도 내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구. 박형사 목이 달아난다면 내가 박형사의 밥 먹을 구멍을 마련해 주면 되잖아』

『하지만—』박형사는 반대하는 의사다.

『틀립없어, 내 추리는. 내가 자네 얘기를 듣구 왜 그러한 추리를 했는가 그 근거는 나중에 말해주겠네. 지금까지 내 추리가 어긋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네. 그러니까 박사칭호를 얻어 잡수었지』

<다음호에 계속>

<요약>

제3제국의 흥망 <제5부>

W·R 사이러 저

승리와 패배

히틀러의 평화제안

1940년 6월 불란서가 굴복한 지금에 와서는 영국은 강화를 갈망하리라고 히틀러는 굳게 믿었다. 거대한 독일군은 그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쳐부수고 이제 대단한 넓이의 유럽을 석권했으며 거의 무방비상태인 영국을 침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찌서 영국은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을 홀로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처칠이 공공연하게 영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 시작했을 때도 히틀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히틀러는 7월 19일 밤 의회에서 영국에 대한 최후의 평화제안을 했다. 연설을 통해서 히틀러는 시종 목소리가 낮았으며 좀처럼 전과 같이 외치지 않았다. 의회연단에서 그는 가끔 히스테리칼하게 절규했지만 그날만은 끝까지 조용했다.

『지금 이 시간에 영국이 지니고 있을 이성과 상식에 호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패자로서 호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자로서 이성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서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대부분의 관리와 군인들은 총통의 관대한 평화제안을 영국이 수락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한 시간도 못 되어서 히틀러의 제안에 대한 회답을 BBC방송을 통해서 보냈다. 그것은 결정적인 <No>이었다. 독일의 군인과 관리들은「자네 영국의 바보 녀석들을 이해할 수 있나? 녀석들은 미치광이야」라고 외쳤다.

큰 소리는 컸지만 사실상 히틀러와 그의 예하 육해공군 장성들은 대영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그들이 거둔 눈부신 성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역사상 최대의 군사적 승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 계획도 없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이것이 제3제국에서의 최대의 모순의 하나였다. 히틀러가 그의 군사력의 절정에 서서 유럽대륙의 태반을 발밑에 깔고 승리를 자랑하는 군대는 지금 잠깐 숨을 돌린 다음 행동으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이때 히틀러는 이제부터 어떻게 전쟁을 종결 시키는가 아무런 명안도 없었다. 이 숙명적인 태만이 제3제국과 히틀러의 단명을 재촉한 커다란 원인의 하나였다.

물개작전(영국침공)의 실패

1940년 6월 30일 독일의 요들장군은「영국에 대한 최종적 승리는 지금은 다만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침공에 대해서는



독일이 제공권을 확보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일기에 적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독일의 게링이 지휘하는 공군은 8월 15일에 독수리작전을 개시했다. 독수리작전은 영국의 공군을 하늘에서 구축함으로써 영국침공의 절대요건인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영항공작전이었다. 게링은 승리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했다. 독일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천3백대의 항공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방대한 공군력에 대항하는 영국은 8월 현재로 불과 8백대의 전투기를 가졌을 뿐이었다.

독수리작전의 서막(序幕)으로서 8월 12일 독일공군은 영국의 레이더 기지 및 전투기기지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했다. 8월 15일에는 최초의 대공중전이 벌어졌다. 독일측은 폭격기 80대, 전투기 1,149대를 출동시켰으며 그 중 1개 편대는 거의 런던 상공에까지 침입했다. 4개의 비행기공장이 파괴되고 5개의 전투기기지가 손해를 입었다. 항공기의 손실은 독일측이 75대, 영국측이 34대였다. 이러한 비율로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독일 공군일지라도 영국공군을 하늘에서 구축하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었다.

이 대공습에서 게링은 그가 범한 기술적인 2대 실책 중에서 그 첫 번째를 범했다. 영국의 전투기 사령부는 레이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세한 공격군에 대전했다. 독일 항공기가 유럽의 기지를 이룩한 순간부터 영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며 전투기사령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지점 및 공격시간을 선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게링은 레이더 기지에 대한 공격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중지시켰던 것이다. 레이더와 함께 영국의 방위를

가능케 한 또 하나의 관건은 섹토·스테이션이었다. 이것은 지방에 설치된 신경중추로서 지상감시초 및 전투기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무선전화로서 전투기를 지휘하였다. 독일측은 이들 섹토·스테이션의 중요성을 깨닫고 8월 24일 전술을 바꾸어 이를 파괴하는데 착수했다. 독일공군의 전술전환은 영국수호의 생명선 바로 그것에 대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독일측은 이 목적을 위해서 1일 평균 1천대의 항공기를 출동시켰으며 영국전선은 결정적 단계에 돌입했다. 월여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출격을 거듭하여 온 영국공군의 조를 중사들은 지칠대로 지쳤으며 5개의 전투기기지가 중대한 손해 입고 거기다가 7개의 섹토·스테이션 중 6개가 극심한 폭격으로 노크·아웃에 직면하였다. 그중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조종사의 손실이었다. 영국공군 조종사중 일 103명이 전사하고 12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그것은 전 보유조종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몇 주일만 계속되면 영국은 이미 조직적인 공중방위는 불가능했다.

그때 돌연히 게링은 두번째의 전술적 실책을 범했으며 타격을 받고 흔들리던 영국공군은 구원되었으며 공중전의 일대전기(一大轉機)의 하나가 되었다. 영국공군이 만신창이가 되어 이상 더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도이취공군은 9월 7일 그 공격의 방향을 돌려 런던의 야간폭격을 시작했다. 영국공군은 간신히 한숨을 돌렸다. 이렇듯 중대한 전술적 전환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짓궂은 운명의 장난이었다.

사건의 시초는 8월 23일 밤, 십 여대의 도이취 공군 조종사들이 항법의 미스로, 지정된 공격목표를 벗어나 런던시가에 폭탄을 떨어뜨림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획적인 것으로 간취한 영국은 다음날 베르린을 보복 폭격했다.

대수로운 것은 없었으며 물적 손해는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독일국민의 사기에 미친 효과는 심대하였다. 베르린에 폭탄이 떨어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들의 환멸감은 컸다. 영국공군은 8월 28일과 29일의 밤 또다시 대규모로 내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독일의 수도에서 독일인을 살상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영국공군이 2,3천 킬로의 폭탄을 던지면 우리는 하룻밤에 15만 또는 40만 킬로의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도시에 공격을 가하면 우리는 그들의 도시를 뿌리째 뽑아 줄 것이다. 머지않아 때는 올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 패망할 때가 올 것이며 독일은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공군이 영국공군에 대한 주간공격을 런던야간 폭격으로 바꾼 운명적인 전환은 히틀러의 신경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결정은 군사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며 수도를 송두리째 부셔서 영국의 저항의식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틀러와 게링은 이의 성공을 틀림없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되면 침공상륙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9월 7일 하오 늦게 런던의 대공습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최초의 이틀 밤 동안에 런던의 대도시는 사망자 842명 부상자 347명을 내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공습은 밤마다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야간폭격의 성공에 힘입은 독일공군은 불길에 싸인 런던에 대거 주간공습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약 200대의 폭격기가 3배나 넘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9월 15일 정오에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영국 전투기 사령부에서는 레이더로서 공격군의 편대를 감지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그들을 요격했다. 대부분의 폭격기는 폭탄을 투하치도 못하고 산산이 흩어졌으며 혹은 격추당했다. 2시간 후 또다시 강력한 독일군 편대가 내습했으나 이 역시 패주를 면치 못했다. 이 날의 전투는 영국에 대한 대규모 주간공격의 성공이 당분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독일공군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렇다면 영국에 대한 침공상륙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9월 15일은 영국전선의 하나의 전기였다.

히틀러는 9월 17일에 영국침공의 물개작전을 무기한 연기했다. 런던 9월 7일부터 57일 동안 밤마다 매일 평균 200대의 폭격기에 의한 폭격을 받고 파괴된 돌이나 기왓장이 산더미처럼 되어갔으나 히틀러가 바라던 것처럼 영국의 사기가 꺾이지도 않았고 군수생산은 저하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영국폭격에서 독일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실로 막대했으며 독일은 그때 받은 타격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내 보충하지 못했다.

독일해군은 이른 봄 노르웨이에서 받은 손실 때문에 불구(不具)에 가까웠으며 영국침공을 위한 해군력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해군력과 공군의 제공권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독일의 육군일지라도 좁은 해협이나마 건너서 영국에 침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히틀러는 전쟁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다.

영국은 서방세계에 의한 유럽 탈환을 가능케 하는 기지로서 보존케 되었으며 히틀러는 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련과의 대결

1940년 여름 히틀러가 서부정복에 정신을 쏟고 있는 틈을 타서 스탈린은 발칸계국을 엄습하여 남으로 내려와 발칸에 침공의 손을 뻗었다.

베르린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순조롭지 못했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제3자를 속여 넘기는 데는 그 수단을 같이 했으나 피차에 서로를 속이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졌다. 히틀러는 소련이 발칸계국을 위시해서 루마니아, 뱃사라비아 및 북부 빅꼬비나 지방을 탈취하는 것을 저지하려다 실패하고 분통만 터뜨렸다. 서방 및 루마니아에 대한 소련의 진출은 어떻게든지 해서 막아야만 했다. 그곳의 석유자원은 영국의 봉쇄로서 석유의 해상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독일에게는 사활(死活)의 문제였다. 히틀러를 한층 더 곤경에 빠뜨린 것은 헝가리 및 불가리아에 의한 루마니아 영토의 분배 요구였다. 이러한 문제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독일은 가장 중요한 석유자원이 차단당하고 끝내는 소련이 루마니아전토를 점령하여 독일의 루마니아 석유권을 영원히 박탈할 것이라고 히틀러는 생각했다.

8월 28일 히틀러는 독일 및 이태리외상(外相)을 뷔엔나로 급파하여 헝가리와 루마니아로 하여금 주축국의 조정을 수락토록 강요했으며

협박공갈로서 이를 달성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루마니아에 군사사절단의 파견을 명령했다. 이에 소련은 나치·쏘비에트 조약을 들어 독일을 비난했다. 정복자들은 약탈품 분배의 의례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그 뒤 독·소간의 알력이 더욱 격화되자 히틀러는 스탈린을 비난했다. 「스타린은 머리가 좋고 교활하다. 점점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냉혈적인 착취자다. 소련은 독일의 승리를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될수록 빨리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군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냉혈적인 나치 강탈자는 상대가 호적수(好敵手)임을 알고 항쟁의 분노를 솟구쳤다.

1940년 12월 18일 히틀러는 지령 제21호를 내렸다. 그것은 바르바루사 작전이 라는 이름 붙여진 것으로서 지령의 첫 문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극비(極秘)

독일 국방군은 대영전쟁 종결이전에 신속한 작전에 의해서 소련을 분쇄하는 준비를 갖춘다.

준비는 1941년 5월 15일까지 완료한다.」

그러나 바르바루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발칸제국에 가로 놓인 남부측면을 확보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때 못소리니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곤란에 부닥치게 되었다.

히틀러와 못소리니는 10월 4일 브란넬의 언덕에서 회담했다. 히틀러가 거의 혼자서 떠들어대고 황홀한 제세전망을 시도했으며 이태리가 눈독을 들이고 있던 루마니아파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에 못소리니는 극도로 분개했다.

「히틀러는 언제나 나에게 기성사실을 내민다. 이번에는 녀석한테 같은 수법으로 보복을 해야겠다. 그 녀석은 신문을 보고 내가 그리이스를 점령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못소리니는 후에 지껄었다. 10월 22일에 못소리니는 10월 28일을 그리이스에 대한 기습공격의 날짜로 정해놓고 히틀러에게 통보했으나 그 정확한 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히틀러가 중지를 명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히틀러는 못소리니에게 즉시 회담할 것을 요구했다. 못소리니는 10월 28일 피렌체에서 회담하자고 했다.

그날 아침 회담장소에 나타나는 히틀러를 맞이하는 못소리니는 환희에 차 있었으며「총통, 서로 손잡고 진군합시다. 승리를 거듭한 이태리군대는 오늘 아침 새벽 그리이스·알바니아국경을 넘었습니다.」라고 외쳤다. 못소리니는 이것으로서 히틀러에 보복을 했다고 느꼈으며 히틀러는 불꽃같이 노했다. 히틀러는 1년 중에도 가장 나쁜 시기를 택해서 군세기 이를 데 없는 적군에 대하여 무모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발칸에 대한 모든 계획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못소리니가 자랑하던 이태리군대는 일주일도 못되어 그리이스에서 궤멸에 직면했으며 히틀러에게 행동을 강요했다. 영국은 그리이스에 군대를 보내서 발칸에서의 독일의 지위를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다.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불가리아를 통과해서 그리이스에 침공하는 작전계획을 곧 준비하도록 육군에 명령했다.

발칸의 전주곡

1941년 2월의 셋째주에 접어들어 독일은 폴란드국경으로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 3백마일에 걸쳐 68만의 대군을 집결시켰다.

2월 28일 밤 독일군대는 루마니아에서 다뉴브강을 건너 불가리아의 전략적 지점에 포진하고 불가리아는 다음날 3국 동맹에 가입했다.

다루기 힘든 유고인은 그리 만만하게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유고인의 완강한 태도는 히틀러의 의욕을 더욱 돋구었으며, 그는 항상 하는 버릇대로 위협을 하고 사탕발림으로 사로니까지 방을 제공해 주었다. 유고의 수상과 외상은 삼국동맹가입을 히틀러 앞에서 조인했으며 히틀러는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가입에 조인한 유고의 장관들이 벨그라드에 돌아오자 공군간부장교에 의해서 지도되고 육군의 지지를 받는 민중봉기에 의해서 그들은 타도되고 말았다. 신경권은 독일에 불가침조약의 서명을 요청했으나 히틀러가 강요한 괴뢰적인 위치를 수락할 것 같지는 않았다. 유고인들은 독일공사의 자동차에 침을 뱉고는 세르비아인의 감정을 표현했다.

유고의 쿠데타는 히틀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으며 그의 치밀어 오르는 걱정은 드디어 결과적으로는 제3제국의 재액(災厄)을 초래하는 급속적인 결정을 차례로 내리게 했다.

히틀러는 3월 27일 군수녀들을 소집하고 유고에 대한 복수를 외쳤다. 국가로서의 유고를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때려 부셔야 한다고 했으며 게링에게는 폭격기로서 벨그라드에 공격을 가하여 수도를 송두리째 말살시키라고 지시했다. 동 회합에서 히틀러가 행한 것 중 가장 운명적인 결정은 바르바루트작전의 개시를 4주일 정도 연기한다는 것이었다.

히틀러가 발칸의 소국인 유고의 반항을 복수하기 위해서 소련 공격까지 연기한 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파국적인 실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발작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히틀러는 전쟁에 승리하고 제3제국을 독일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며 그 자신이 유럽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최후의 황금 같은 기회를 던져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독일의 군 수녀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최후의 승리를 3·4주 앞두고 러시아의 광야에 백설과 영하의 극한이 습래했을 때였다. 장군들은 자만심이 강하고 조금한테다가 사료가 부족한 히틀러의 결정을 길이 비난하게 되었다.

**간접 침략을
분쇄 하자!**

방첩표어

편집후기



☆...역사적인 대통령선거를 끝내고 국회의원선거를 눈앞에 뚝으로써 바야흐로 자손만대의 번영을 꾸며갈 제3공화국의 탄생을 목전에 두었다. 다시는 욕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못난 백성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다시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다 같이 고쳐 앉아 마을을 모아보자.

☆...〈사기양양〉을 위한 페이지를 꾸었다. 넘치는 사기는 일기당천(一騎當千)의 강군을 만든다. 그러나 사기는 윗사람이나, 바깥사람들만이 높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다. 스스로 자기를 이끌고 옆의 전우를 떠밀므로 써 추천하는 사기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소박한 취미, 건전한 오락, 가벼운 스포츠, 이 모두가 사기를 높이는 지름길들이다. 아울러 멋을 아는 군인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미래의 생활〉은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어긋났다. 따라서 계획보다 늦게 실게 되는데 대해 필자 세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간 장병들의 흥미를 모아오던 반공수기 〈북한동포는 나를 살렸다〉가 이번 10회로 끝을 맺었다. 필자 이준수 문관님의 건투를 빌며 독자와 더불어 사의를 표한다.

☆...조성식(趙誠植)님의 ◇ 73매를 전부 실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자들인지 똑똑히 알아두자.

☆...여러 면에서 편집이 〈만네리즘〉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느낀다. 구태여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손도 모자랐고 제약도 적지 않았다. 구각을 탈피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 장병들의 격려와 성원을 바랄 뿐이다. (현)

☆...이 해도 이미 저물어 간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월간잡지를 만들고 있는 편집관계자들은 벌써 X마스도 지나고 새해도 지나 64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1월호에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기를 쓸 때면 언제나 관념의 시점에서 2개월은 후퇴해야 한다. 이 후퇴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자성(自省)의 기회가 된다. 이 자성에서 느끼는 것이 또한 언제나 좀 더 참신한 내용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국내에는 이 나라 역사의 새로운 운명이 창조되는 찰나에 있다. 제3공화국의 입법위원의 선거가 그것이다. 우리는 항상 민족적 자각과 민주주의 이념의 확립에 깊은 관심을 기우려 왔지만 이 중대한 시점에 특히 군인으로서의 자각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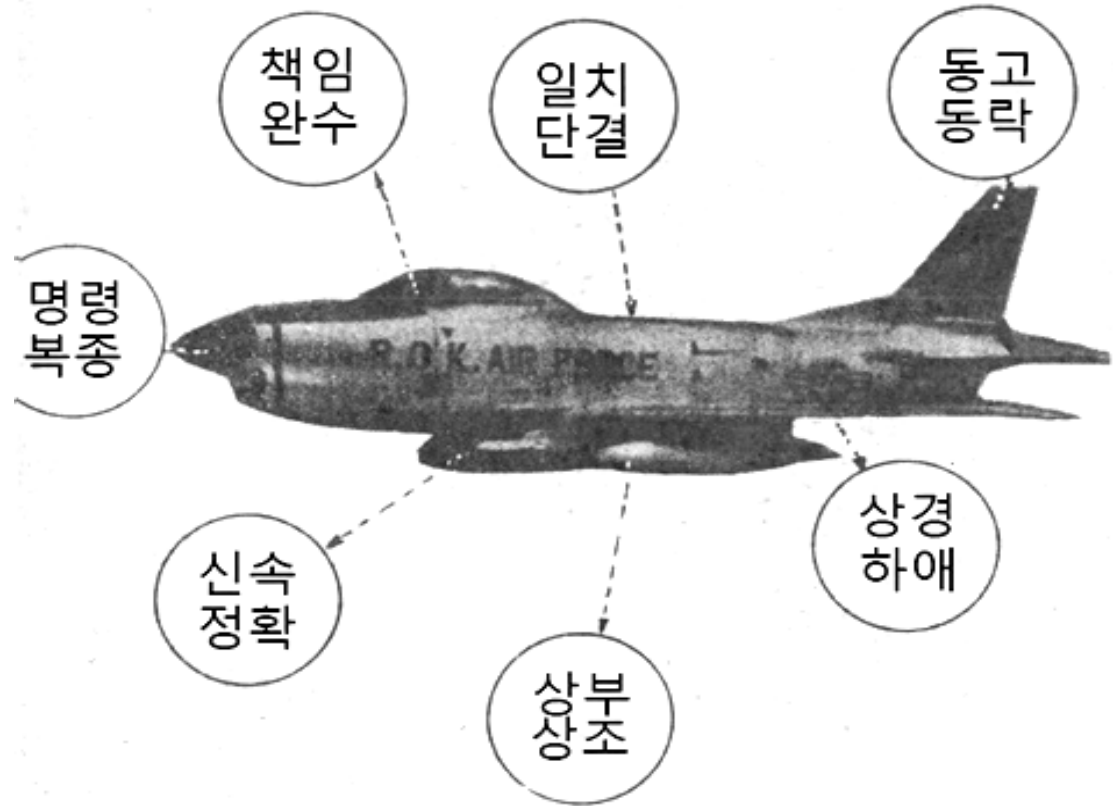
30방공관제단(防共官制團) 창설(創設)
제30방 공관제단 창설식이 9월 25일 K-55 기지에서 거행되었다.



1만5천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제1초등훈련비행전대에서는 9월 21일 1만5천 시간 무사고비행기록을 수립하여 우리공군의 전력을 또 한 번 빛냈다. <사진은 동 기념식광경>



우리의 전력





인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